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자습서

I. 언어, 매체, 삶	002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005
III.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032
IV. 국어의 역사와 문화	043

I. 언어, 매체, 삶



1. 언어와 국어의 이해

(1) 언어의 본질

핵심 다지기

pp. 011~013

01. ④ 02. ② 03. 다른 나라 언어에 '간장, 온돌, 부럼' 등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는 이유는 그 언어 공동체에는 그 단어와 관련된 문화가 없기 때문이다. 04. ② 05. ⑤ 06. 우리 문화에서는 '쌀'이 생산되는 땅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01. (다)를 보면 지역이 같더라도 연령, 성별, 사회 집단 등의 차이로 같은 뜻을 지닌 언어가 형태를 달리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 방언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라)를 보면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한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다)를 보면 언어는 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즉, 언어는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사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③ (나)를 보면 언어가 있어야 사고할 수 있는 것인지, 사고가 있어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⑤ (나)를 보면 인간은 언어를 도구로 하여 생각하여, 그 결과 사고력과 인지 능력이 점점 발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02. <보기>는 '팽이'를 지역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여 부르고 있는 사례이므로, 이에 영향을 준 사회적 변이 요인은 '지역'이다.

03. (라)를 보면 언어는 그 사회의 문화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언어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평가 기준	
예시 답에 가까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04. (바)에서 의미와 말소리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를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05. (사)를 보면 인간이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의 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인간은 이를 활용하여 무한한 표현을 생산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한다.

06. ㉠에 따르면, 우리말에는 벼농사를 짓는 땅만 특별히 '논'이라 하고 그 외엔 '밭'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는 '농사짓는 땅'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에서는 '쌀'이 생산되는 땅이 중요했음

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우리 문화에서는 '쌀'이 생산되는 땅이 중요했음을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소단원 적중 문제

p. 017

01. ④ 02. ⑤ 03. ⑤ 04. 언어에는 그 사회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01. (가)에서 '언어는 지역이나 연령, 성별, 사회 집단에 따른 사회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변이 요인에 따라 언어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02. 우리말에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상을 영어에서는 'mother', 독일어에서는 'mutter'라고 부르는 예는,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된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된 사례이다. ②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된 사례이다. ③ 언어의 본질성과 관련된 사례이다. ④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사례이다.

03. '어여쁘다'는 과거에는 '불쌍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예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의미로 쓰이다가 현대에 이르러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변화했다.

오답 풀이 ①, ④ 과거에는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라진 말이다. ②, ③ 새로운 사물이나 문화가 나타나면서 새롭게 생겨난 말이다.

04. 이누이트어의 경우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특성상 눈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된 어휘가 다양하게 세분된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쌀이라는 곡류가 우리 삶과 문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언어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예시 답에 가까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2) 국어의 특성과 위상

핵심 다지기

p. 020

01. ④ 02. ① 03. 첫째,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다. 둘째,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 셋째, 주어와 서술어 같은 문장 성분 이 있다. 04. ⑤

01. 우리말에서는 담화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02. 이 글에서 한국어는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언어라고 설명한 부분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한국어는 세계 곳곳에 있는 재외 교포와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03. (나)에서 국어가 가지는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세 가지 모두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	3점

04. 주체 높임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우리말에서 ‘부모님’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께서’를 붙이고 ‘-(으)시-’를 사용하여 ‘저희 부모님께서는 들일을 다니시거나 집안일을 하십니다.’ 정도로 표현해야 한다.

소단원 적중 문제

p. 024

01. ③ 02. ② 03. ③ 04. 우리말은 말하는 이의 질문이 긍정 질문이나 부정 질문이나에 따라 대답을 달리한다.

01. (다)에 따르면 영어는 중국어 등과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의 기본 어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말과 구분되는 문법적 특징이다.

02. ②는 문장의 목적어인 ‘선생님’을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나타난 문장이다.

03. 조건 없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한국어를 쓰도록 권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진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한국어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4. (라)에서 말하는 이의 질문이 긍정 질문이나 부정 질문이나에 따라 대답을 달리하는 점에서, 항상 일정하게 대답하는 영어와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 또한 국어에서 나타나는 담화적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예시 답과 같은 내용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중단원 실전 문제

pp. 025~027

01. ③ 02. ⑤ 03. ② 04. ㄱ. 자의성, ㄴ. 창조성 05. ② 06. ⑤ 07. ④ 08. 한국어는 사용 인구로 볼 때 13위에 올라 있는 데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필요가 커지고 있다. 09. ② 10. ① 11. ⑤ 12. 언어의 자의성

01. 인간의 삶과 관련한 언어와 사고·사회·문화의 관계와 언어의 기호적·구조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전체를 아우를 만한 제목으로는 ‘언어의 본질’이 가장 적절하다.

02. 언어에서 ‘의미’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한다. ‘꽃’이라는 문자나 [꼐]이라는 음성은 모두 언어의 형식에 해당한다.

03. 언어는 언어가 가진 일정한 구조들이 유지되도록 일정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데, 이를 언어의 규칙성이라 한다. 언어의 창조성은 체계성과 규칙성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마)에서 설명하고 있다.

04. ㄱ은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 있다. ㄴ처럼 이미 알고 있는 어휘를 이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언어의 특성은 창조성이다.

05. 이 글은 국어의 특성이 음운, 어휘, 문장, 담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남을 밝힌 뒤, 국어의 특성을 음운, 어휘, 문장, 담화 등의 항목별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06. (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말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분 체계를 가진다.

07. 국어는 담화 상황에 따라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필수적인 성분을 생략할 수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정확한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필수적인 성분인 주어와 목적어를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을 때 생략하기 때 문이다.

08. 한국어는 대략 7천여 개에 달하는 세계의 언어 가운데 사용자 수가 13위로 높은 순위에 있으며, 높아지는 한국의 위상과 더불어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필요가 커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

평가 기준	
사용 인구 순위와 한국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필요가 커진다는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의 근거만 든 경우	3점

09.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은 언어의 구조적 특성이 아니라 기호적 특성에 해당한다.

10. ①과 같이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반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한다.

11. ‘감동(感動)’은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로, ⑤의 ‘느낌’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여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암시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미리 느낌.’을 뜻하는 ‘예감(豫感)’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12.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을 언어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언어의 자의성을 보여 준다.

2. 매체와 매체 언어의 이해

(1) 매체의 본질

핵심 다지기

p. 032

01. ⑤ 02. ⑤ 03. ⑤ 04. 매체 유형에 따라 정보 구성과 소통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 (다)를 보면 옛날보다 사회 규모가 커지고 생활 양식이 복잡해지면서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커지면서 생겨난 것이 매체라고 하였다.
-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과 연결된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복합 양식 매체를 전통적인 매체와 구별하여 뉴 미디어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 매체의 종류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누리 소통망(SNS) 등이 있다.
- 문자,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양식의 매체 언어가 한 자료에서 통합되어 사용되는 복합 양식성은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과 연결된 뉴 미디어의 특성을 나타낸다.
- 매체를 분류하는 이유는 매체 유형에 따라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정보 구성과 소통의 특성이 다름을 모두 언급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소단원 적중 문제

p. 035

01. ⑤ 02. ③ 03. ② 04. 인쇄술과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이다.

- 전신기는 전류나 전파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기계로, 모스 신호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초기의 정보 전달 형태이다. 인터넷, 이동 통신과 연결된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복합 양식 매체로는 스마트폰, 누리 소통망(SNS)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소통 양상에 따라 단방향 매체(인쇄 매체,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양방향 매체(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누리 소통망(SNS) 등)로 분류할 수 있다.
- (가)에서 인쇄술의 발명으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인쇄 매체도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가)와 (나)에 따르면 매체의 발전에서 인쇄술의 발명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그다음으로 인간의 소통에 이바지한 것은 전기, 전자, 통신 기술이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인쇄술과 전기·전자·통신 기술을 모두 말한 경우	5점
하나 이상 누락시킨 경우	3점

(2) 매체 언어의 특성과 위상

핵심 다지기

p. 038

01. ④ 02. ⑤ 03. ④

- (나)에 따르면 언어의 기호적·구조적 특성은 매체 언어에도 거의 적용되는데 갈래에 따라 어떤 특성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기도 하며 새로운 특성이 더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리나 이미지에 중점을 두면 분절성은 약해진다.
- (라)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정보 통신 기술에 힘입은 뉴 미디어는 복합적이고 개방적인 소통 현상을 낳았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 결과 인터넷 등을 통한 지식의 공유, 집단 지성의 발휘 등이 가능해졌다.
- (다)에 따르면 음성 언어는 한번 말하면 사라지고 대화 상황에 따라 억양이나 표정, 몸짓 같은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므로 상황 의존성이 높다. 반면 문자 언어의 상황 의존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소단원 적중 문제

p. 042

01. ③ 02. ④ 03. 매체 언어 04. 첫째, 음성과 문자, 소리와 이미지,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 둘째, 다양한 전자 매체로 소통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전파의 속도와 범위가 기술 발달에 함께 계속 늘 수 있다.

- 매체가 같더라도 갈래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소통된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라는 한 매체 안에서도 뉴스, 예능, 드라마 등의 구성 방식이 다르고, 같은 뉴스 범주 안에서도 신문 뉴스인지 텔레비전 뉴스인지 또는 인터넷 뉴스인지에 따라 구성과 소통 방식이 다르다.
- a는 다큐멘터리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b의 공익 광고 역시 설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를 중심으로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한다.
- (라)에서 뉴 미디어와 음성 언어·문자 언어의 대비되는 매체 언어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세 가지 모두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	3점

01. ④ 02. ② 03. ① 04. 뉴 미디어는 신속성, 대량성, 양방향성, 복합 양식성, 연결성 등의 특성을 두루 지닌다. 05. ④ 06. ⑤ 07. ③ 08. 심리적 거리도 줄어든다. 09. ② 10. ④ 11. ④

01. 이 글의 (바)에서는 매체 자료가 시각이나 청각이나에 따라 정보의 구성과 소통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각 매체 정보와 청각 매체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02.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일반적인 소통 양상은 발신자에게서 수신자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단방향 매체이다.
03. (나)에서는 (가)의 인쇄술의 발명에 이어 인간의 소통에 기여한 기술을 설명하므로, ㉠에는 '그다음으로'가 적절하고, (라)의 ㉡에서는 소통 양상에 따른 매체 분류의 예를 들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가 적절하다. 또한, ㉢에서는 (라)에서 설명한 매체들을 지시하므로, '이러한'이 적절하다.
04. (바)에서 매체 유형에 따라 정보 구성과 소통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으며, 마지막 줄에 뉴 미디어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뉴 미디어의 5가지 특성을 모두 언급한 경우	5점
뉴 미디어의 특성을 3가지 이하만 언급한 경우	3점

05. (나)를 보면, 매체와 갈래에 따라 자료의 구성 방식과 소통 특성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06. <보기>는 스마트폰의 영상 통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스마트폰은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의 사용뿐만 아니라 영상 통화나 그림말(이모티콘)을 활용한 소통이 가능하므로 뉴 미디어로서의 특징을 보여 준다.
07.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매체 발달과 연결되며 현대 사회의 소통에 영향을 주었지만, 단일의 소통 생태계라 볼 수는 없다.
08. (라)를 보면 전통적인 매체로 소통한 경우와 비교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의 소통은 의사소통의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속도가 빨라지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도 줄어든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09.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를 중심으로 소리, 이미지,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표현하고 전달한다.
10. 음성 언어의 시공간 범위는 제한되는 반면, 문자 언어와 매체 언어는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음성 언어는 한번 말하면 사라지고 대화 상황에 따라 억양이나 표정, 몸짓 같은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의사를 전달하므로 상황 의존성이 높지만, 문자 언어의 상황 의존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11. 매체를 활용해 멀리 있는 친구와도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만큼 소통의 속도가 빨라져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다.

II 국어의 탐구와 활용



1. 음운

(1) 음운의 개념과 체계

핵심 다지기

pp. 061~067

01. ③ 02. ② 03. 서로 다른 음운으로 인식된다. 04. ⑤ 05. ④ 06. ③ 07. 조음 위치, 조음 방법 08. ② 09. ⑤ 10. ① 11. ㅎ 12. ② 13. ③ 14. ① 15.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분류한다.

01. (가)에 의하면, 허파는 공기가 나오는 곳으로, 음운이 만들어지는 조음 기관은 아니다.
02. ㉠은 초성 'ㅂ', 'ㅃ', 'ㅍ'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초성의 'ㅂ', 'ㅃ', 'ㅍ'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지닌 '음운'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에서 'ㅌ'와 'ㄴ'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음운에 해당한다. ㉢, ㉣에서 첫음절의 'ㄱ'과 둘째 음절의 'ㄱ'은 하나의 음운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이다. ㉤ ㉥의 두 'ㄱ'은 우리말에서 각각 'ㄱ'과 'ㄱ'으로 다르게 발음될 뿐 의미를 변별해 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ㄱ'과 'ㄱ'은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는 변이음이다.
03. <보기 1>에 의하면, 영어권에서는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운으로 인식하지만, 국어에서는 올림소리와 안올림소리를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한다.

평가 기준	
정답을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불명확하게 서술했으나 뜻은 통하는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4. (다)에 의하면, 최소 대립쌍은 음운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음운과 최소 대립쌍은 상반된 기능을 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음운이란 의미 구별에 사용되는 최소의 문법 단위를 말한다. ㉡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한다. ㉢ 음운은 최소 대립쌍을 만들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 음운에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다.
05. <보기 1>의 '소리'는 '음운'을 가리킨다. 이 글은 음운이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으며, 의미를 변별할 수 있게 하는 두 음운, 즉 최소 대립쌍을 만들어 봄으로써 이 같은 음운의 변별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ㄱ, ㄷ, ㄹ은 최소 대립

쌍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음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ㄴ은 이 같은 최소 대립쌍을 보여 주고 있지 않으므로 ‘음운’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발[足]’과 ‘절[寺]’은 ‘ㅂ’과 ‘ㅈ’, ‘ㅌ’와 ‘ㄷ’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다. 따라서 소리의 ‘길이’라는 비분절 음운에 의해 의미가 분화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말[馬]’과 ‘말[言]’은 소리의 길이라는 비분절 음운에 의해 의미가 분화된다. 즉 ‘말[馬]’은 짧은소리, ‘말[言]’은 긴소리로 발음되면서 의미가 구별된다. ② ‘몸’과 ‘뽕’은 단어를 구성하는 단 한 가지 요소, 즉 음절의 첫소리인 ‘ㅁ’과 ‘ㅂ’에 의해 의미 차이를 생성하고 있으므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한다. ④ ‘밤’과 ‘뽕’은 단어를 구성하는 단 하나의 요소 중 모음, 즉 ‘ㅏ’와 ‘ㅓ’에 의해 의미 차이를 생성하는 최소 대립쌍이다. ⑤ ‘물’과 ‘밀’은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는 분절 음운, 즉 ‘ㄱ’과 ‘ㄴ’에 의해 의미 차이가 생성되는 최소 대립쌍이다.

07. (라)에서 자음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나뉜다고 하였다.

08. 이 글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 등을 기준으로 자음을 분류하면서 그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음의 개념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어떻게 자음이 분류된다는 것은 나타나 있으나, 이것이 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은 아니다. ④ (마)에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 그리고 ‘울림소리-안울림소리’라는 자음의 대립 관계가 나타나 있으나, 이것이 이 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은 아니다. ⑤ (마)에 발음될 때의 발음 기관의 움직임 같은 자음의 음성적 특성이 나타나 있으나, 이것이 이 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은 아니다.

09. (바)의 자음 체계표를 보면, ㉠(목청 사이에서)에서 나오는 소리는 ‘ㅎ’으로, 마찰음에 해당한다. 그리고 (마)의 2문단을 보면, 마찰음은 공기가 나오는 조음 기관의 ‘공간을 좁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라고 하였다. 그런데 ㉡에서는 공기가 나오는 공간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마찰을 통해 소리를 낸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나는 소리는 파열음과 비음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에서 나는 소리는 파열음과 마찰음, 유음, 비음에 해당한다. 그런데 혀끝이 윗잇몸에 완전히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것은 파열음이며, 혀끝이 윗잇몸에 완전히 닿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소리는 마찰음이다. 따라서 혀의 움직임에 따라 서로 다른 소리가 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에서 나는 소리는 파찰음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에서 나는 소리는 파열음과 비음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0. 각 빈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참조할 때, ㉠에는 조음 위치, ㉡에는 조음 방법, ㉢에는 소리의 세기, ㉣에는 음운의 분류 기준으로 목청의 떨림 여부가 들어가야 한다.

11. (바)의 자음 체계표를 보면, 마찰음 중에서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구분이 없는 안울림소리는 ‘ㅎ’이다.

12. ㉠에는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의 분류 기준인 혀의 앞뒤 위치가, ㉡에는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의 분류 기준인 입술 모양이, ㉢에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의 분류 기준인 혀의 높이가 들어가야 한다.

13. ㉠은 혀의 앞쪽에서 발음되므로 전설 모음이고, 입술 모양이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되므로 원순 모음이며, 입이 조금만 벌어져서 발음되므로 고모음이다. 이에 해당하는 모음은 ‘ㄱ’이다. ㉡은 혀의 뒤쪽에서 발음되므로 후설 모음이며, 입술 모양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발음되므로 평순 모음이며, 혀의 위치가 낮은 상태에서 발음되므로 저모음이다. 이에 해당하는 모음은 ‘ㅏ’이다.

14. 이 글에 따르면, 반모음은 혼자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모음에 붙어서 쓰인다는 점에서 온전한 모음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음운으로 취급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반모음의 기능으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반모음이 발음되는 양상으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자음은 모음과 달리 단독으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온전한 모음은 아니지만, 음성의 성질은 모음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15. (사)의 1문단을 보면, 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일정한 단모음(單母音)과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二重母音)으로 나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를 모두 언급하여 서술한 경우	5점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 중 하나만을 언급하여 서술한 경우	3점
3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소단원 적중 문제

pp. 070~072

01. ① 02. ⑤ 03. ④ 04. ‘ㄹ’의 두 실제 소리인 [r]과 [l]은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의 음운에 속하는 변이음이다.
05. 영어에서는 ‘ㅂ’과 ‘ㅃ’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06. ① 07. ① 08. ③ 09. ④ 10.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어감이 더 어둡게 느껴진다. 11. ④ 12. ③

01. 음운은 음성의 공통적인 요소만을 뽑아서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소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음운이 아니라 음성이다.

오답 풀이 ② (라)에서 분절 음운의 구체적인 목록과 체계 및 비분절 음운의 종류는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③, ④ (나)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와 ㉣는 비분절 음운(소리의 장단)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

다. 따라서 소리마디의 경계가 분명히 그어지지 않는 음운적 특징을 지닌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의 ‘ㅁ[p]’과 ⑥의 ‘ㅁ[b]’은 변이음으로, 실제 발음에서 서로 다르게 실현되는 음성에 해당하며,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식된다. ④ ⑥은 ‘눈:(雪)-눈(眼)’과 같이 비분절 음운에 의해 의미 차이를 드러낸다.

03. ‘송아지’의 두 번째 음절인 ‘아’는 하나의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음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송아지’는 ‘ㅅ, ㅊ, ㅇ, ㅈ, ㅅ, ㅣ’라는 총 6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이다.

04. (나)에서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의 음운에 속하는 소리를 변이음이라 하였다. ‘설악[서락]’과 ‘대관령[대팔령]’에서 유음 ‘ㄹ’은 실제 소리가 [r]과 [l]로 발음되는데, 이는 의미 차이에 기여하지 못하고 하나의 음운인 ‘ㄹ’에 해당하므로 변이음이다.

평가 기준	
정답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정답 내용을 불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언어마다 분절 음운의 목록과 체계, 종류가 다르다. 우리말에서는 ‘ㅁ’과 ‘ㅂ’의 발음 차이가 의미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지만, 외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제시된 답에서 외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의 경우에도 ‘ㅁ’과 ‘ㅂ’의 발음 차이가 의미를 구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 외국인이 ‘ㅁ’과 ‘ㅂ’의 발음을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평가 기준	
알맞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06. 구강음에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유음이 속하고, 비강음에는 비음이 속한다고 하였다.

07. ㉠은 ‘예사소리’와 ‘된소리’의 관계로, 소리의 세기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ㅅ’과 ‘ㅆ’은 모두 마찰음으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며 나는 소리이다.

오답 풀이 ㉡ ㉢는 비강음과 구강음의 관계로, ‘ㄹ’은 공기의 유출 통로로 ‘입’과 ‘코’를 함께 사용하여 소리를 내며, ‘ㄹ’은 ‘입’만으로 소리를 낸다. ㉢ ㉣에서 ‘ㄹ’은 올림소리이고, ‘ㄹ’은 안올림소리이므로 적절하다. ㉣ ㉤는 차례로 여린입천장소리, 잇몸소리, 입술소리, 센입천장소리에 해당하므로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 ㉥는 차례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에 해당하므로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08. ㉠에는 입술소리, 잇몸소리, 여린입천장소리가 있다. 따라서 조음 위치는 ㉢, ㉣, ㉤이다. ㉡에는 잇몸소리와 목청소리가 있다. 따라서 조음 위치는 ㉢, ㉣이다. ㉢에는 센입천장소리가 있다. 따라서 조음 위치는 ㉢이다.

09. ㉢은 유성음화(올림소리되기)에 해당한다. 유성음화는 모음이나 올림소리 받침 ‘ㄴ, ㄹ, ㄷ, ㄱ’과 모음 사이에 있는 무성음(안올림소리) ‘ㄱ, ㄷ, ㅂ, ㅅ’이 올림소리로 발음 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 ㉡, ㉢, ㉤는 모두 올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예이다. 그런데 ‘ㅅ’은 이와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도 올림소리되기 일어나지 않는다.

10. 이 글에서 국어의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미를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감을 분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문제에 제시된 예의 경우 소리의 세기가 강해지면서 어감이 점점 더 어둡게 느껴진다.

평가 기준	
정답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정답 내용을 불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1. ‘ㅣ’를 발음하면서 입을 서서히 벌리면 ‘ㄱ-ㄲ’의 소리를 차례로 낼 수 있으나 ‘ㅌ’는 후설 모음이므로 혀의 위치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12. ‘ㄱ’과 ‘ㄲ’은 모두 전설 모음이므로 ㉢은 부적절한 설명이다. ‘ㅡ’와 ‘ㅣ’ 역시 개구도(발음할 때 입을 벌리는 정도)가 비슷하므로 이와 같은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오답 풀이 ㉡ 외래어 표기법상 [e] 또는 [ɛ]로 발음될 때 ‘ㄱ’로 표기하고, [æ]로 발음될 때 ‘ㄲ’로 표기한다. 따라서 ‘ㄱ’과 ‘ㄲ’이 잘 구별되지 않으면, 외래어 표기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 음운의 변동

핵심 다지기

pp. 074~080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서다’의 어간 ‘서’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동음 탈락으로 ‘-어’가 탈락하였다. 09. ㉤ 10. ㉠ 11. ㉢ 12. 두 개의 단어가 한 단어로 합쳐져 파생어가 되면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음절 모음이 각각 ‘ㅍ’, ‘ㅣ’인 경우에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났다.

01. <보기>의 ㉠은 ‘ㄱ’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화됨으로써 음운 교체가 이루어진 예이며, ㉡는 받침의 ‘ㅎ’이 탈락한 예이다. 그리고 ㉢은 ‘ㄱ’과 ‘ㅎ’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운인 ‘ㄱ’으로 축약된 예이며, ㉣는 합성어에서 ‘ㄴ’이 첨가된 예이다.

02. ‘맛있다’는 ‘맛+있다’로 구성된 말로, ‘맛’의 끝소리 ‘ㅅ’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인 ‘있다’와 만나고 있으므로 음절의 끝소리가 7개의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는 ‘[맛있다]→[마디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맛있다'의 경우 사람들이 [마신타]로 연음하여 발음을 많이 하므로 현실 발음을 인정하여 [마신타]도 인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은 <보기>의 첫 번째 규정의 예이며, ②는 <보기>의 두 번째 규정의 예이다. ④는 <보기>의 다섯 번째 규정의 예이며, ⑤는 <보기>의 세 번째 규정의 예이다.

03. 받침 'ㄷ, ㅅ, ㅈ, ㅊ, ㅌ'은 모두 'ㄷ'으로 교체되어 소리가 난다.

04. ㉠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 받침 'ㅅ'이 'ㄷ'으로 발음되고, 받침 'ㄷ' 뒤에 연결되는 자음 'ㄱ'이 된소리되기에 의해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① ㉡는 파열음 'ㄱ'이 비음 'ㄴ'에 동화됨으로써 비음 'ㅇ'으로 교체되어 발음되고 있는 예이다. ② ㉢는 비음 'ㄴ'이 유음 'ㄹ'에 동화됨으로써 유음 'ㄹ'로 교체되어 발음되고 있는 예이다. ③ ㉣는 후설 모음 'ㅏ'가 뒤에 오는 전설 모음 'ㅣ'에 동화됨으로써 전설 모음 'ㅓ'로 교체되어 발음되고 있는 예이다. ④ ㉤는 센입천장에 가까운 곳에서 발음되는 'ㅣ' 모음에 동화됨으로써 음절 끝소리 'ㅌ'이 센입천장소리 'ㄷ'으로 교체되어 발음되고 있는 예이다.

05. '밤물'은 [밤물]로 발음되므로 <보기>의 ㉡에 해당하며, '값'은 '값'([값])→[값]([비음화])의 과정을 거치며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중력'은 [중력]으로 발음되므로 ㉣에 해당하며, '국력'은 [국력]→[궁력]의 과정을 거치며 발음되므로 ㉤에 해당한다.

06. <보기>의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의하면,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ㅍ]으로 발음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옳지'는 [옳찌]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③은 표준 발음법 제11항에 따라, ②는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④는 표준 발음법 제11항의 예외 규정에 따라 각각 적절한 발음으로 볼 수 있다.

07. ㉠은 [막따]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음운 탈락에 해당하며, ㉡는 [단찌]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는 [실라]로 발음되므로 유음화에 해당하며, ㉣는 [다터→다쳐]의 과정을 통해 발음되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는 '담그-+-아→담가'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므로 음운 탈락(一 탈락)에 해당한다. 따라서 ㉠, ㉣가 음운 탈락, 나머지는 음운 교체에 해당한다.

보충 자료

된소리되기

'ㄱ, ㄷ, ㅌ, ㅅ, ㅈ'과 같은 예사소리가 'ㄲ, ㄸ, ㅊ, ㅆ'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08. 문장 속에서 '서'는 동사 '서다'의 어간 '서-'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서 동음 탈락에 의해 '-어'가 탈락된 것이다.

평가 기준	
음운 환경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 현상을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음운 환경을 언급하지 않고 음운 변동 현상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9. '첫인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철인사 → 처딘사]로 발음된다. 따라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10. '홀이불'과 '막일'은 모두 파생어에 해당하며, 각각 [흔니불], [망닐]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두 단어 모두 합성어이다. ③ '밭이랑'은 합성어이며, 파생어 '밭'은 [마:니]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가 아니라 받침 'ㄴ'이 연음된 것이다. ④ '나뭇잎'은 합성어이며, 파생어 '군입'은 [군:닙]으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에 해당한다. ⑤ '낮일'은 합성어이며, 파생어 '빋나가다'는 [빈나가다]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아니라 비음화(교체)에 해당한다.

11. '하얗고'는 'ㅎ + ㅏ'에 의해 자음 축약이 이루어지는 예이므로 [하:야코]로 발음해야 한다.

12. (차)에서 첨가란 일정한 환경에서 없던 음운이 추가되는 음운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보기>의 단어들은 단어가 합쳐져서 파생어가 될 때 나타난 첨가 현상의 예이다.

평가 기준	
음운적 환경과 첨가 현상의 결과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음운적 환경이 모호하게 서술된 경우	-1점

소단원 적정 문제

pp. 085~087

01. ⑤ 02. ④ 03. ③ 04. ㅍ, ㅋ → [ㄱ] / ㅌ, ㅅ, ㅆ, ㅈ, ㅊ, ㅌ → [ㄷ] / ㅍ → [ㅍ] 05. ② 06. ④ 07. ③ 08. ② 09. ④ 10. ⑤ 11. 자음과 모음 사이 12. ③ 13. ㉠ 자음군 단순화, ㉡ 'ㄹ' 탈락

01. 음운 탈락의 예외 경우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에는 비음화에 의한 교체 현상이, ㉡에는 유음화에 의한 교체 현상이 나타나 있다. '받는다'는 [반는다]로 발음되므로 비음화에 의한 교체 현상이, '속는다' 역시 [송는다]로 발음되므로 비음화에 의한 교체 현상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나머지 선지는 각각 [밤물], [갈탈] / [섬니], [철리] / [뽕노], [질리] / [임:진난], [광:할루]로 발음된다. 따라서 ㉠, ㉡의 추가적인 예로 적절하다.

03. '연못'은 '연못'의 끝소리인 'ㅅ'이 다음에 오는 모음과 만나면서 연음되어 [연모시]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꽃'은 [꼇]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② '낫과'는 [낫파]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④ '솔뚜껑'은 [솔뚜경]으로 발음되

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⑤ ‘덜기’는 [덜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다.

04. ㉠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을 제외한 자음을 말한다. 음절의 끝소리에서 ‘ㄱ’, ‘ㄷ’은 [ㄱ]으로 발음되며, ‘ㅌ’, ‘ㅍ’, ‘ㅊ’, ‘ㅌ’은 [ㄷ]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ㅍ’은 [ㅂ]으로 발음되며, ‘ㅎ’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발음되지 않는다. 단, ‘히읇’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히읇]으로 발음된다.

05. ㉠에서 받침 ‘ㅌ, ㅍ, ㅊ’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ㄱ, ㄷ, ㅂ’ 중 하나인 ‘ㄷ’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06. ‘ㄴ’ 탈락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모음 ‘ㄴ’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으로, 체언이라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당기시오 → [당기시요]’에서는 앞의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오’가 ‘요’로 바뀌었으므로 ‘ㅣ’ 모음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08. 표준어 규정 제2장 9항에 의하면, ‘아지랑이’는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나기 전의 발음을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신출내기’는 ‘뽕내기’, ‘시골내기’ 등과 함께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③ ‘미장이’와 같이 ‘-장이’(장인, 기술자)의 뜻을 가진 경우는 ‘-장이’가 붙은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하되, 그 외의 뜻을 가진 경우는 ‘-쟁이’가 붙은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④, ⑤ ‘담쟁이냉쿨’, ‘동댕이치다’를 표준어로 인정한다고 하였다.

09.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연결되는 환경에서만 일어난다.

10. ‘없다’는 [업:따]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없다’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따르-+-아 → 따라’로 쓰이며, 이때 ‘ㄴ’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표기에 반영되므로 ‘따라야’가 아닌 ‘따라’로 표기해야 한다. ② ‘가-+-았-+-다 → 갔다’로 쓰이며, 이때 동음, 즉 ‘ㅌ’가 탈락한다. 이는 표기에 반영된다. ③ ‘날-+-는 → 나는’으로 쓰이며, 이때 ‘ㄹ’이 탈락한다. 이는 표기에 반영된다. ④ ‘좋-+-은 → [조:은]’으로 발음되며, 이때 ‘ㅎ’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11. ‘굳이 → [구지]’의 예에서 구개음화 현상은 자음 ‘ㄷ’과 모음 ‘ㅣ’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처럼 구개음화 현상은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음 동화와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음 동화와 구별되는 점이다.

12. 자음군 단순화는 ‘음운 교체’에 해당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음운 탈락’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ㅎ’은 발음할 때 음운 탈락이 일어나지만, 탈락된 발음이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② ‘ㄹ’ 탈락과 ‘ㄴ’ 탈락은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할 수 있다. ④ ‘ㄴ’ 탈락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모음 ‘ㄴ’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므로, 주로 용언의 활용 과정에서 일어난다. ⑤ 자음군 단순화는 발음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음운 변동에 해당한다. 그런데 ‘넌찍하다’는 ‘넌직하다’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발음된 것이지만 그대로 표기할 수 있어 자음군 단순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외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21항 참조)

13. ㉠은 음절 말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의 예이고, ㉡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말 자음 ‘ㄹ’이 몇몇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의 예이다.

중단원 실전 문제

pp. 088~093

01. ③ 02. ① 03. ② 04. ② 05. ② 06. ④ 07. ④
08. ④ 09. ⑤ 10. 발음하는 동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일정하면 단모음이고, 달라지면 이중 모음이다. 11. ④ 12. 소리의 세기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는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에 의해 의미가 변별된다. 즉 미국인에게는 ‘ㅂ’과 ‘ㅃ’의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같은 소리로 들린다. 13. ④ 14. ④ 15. ② 16. ④ 17. ⑤ 18. ③
19. ③ 20. ③ 21. 조음 위치(여린입천장, 잇몸, 입술)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뀐다. 22. ⑤ 23. ②

01. 혀의 위치는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누기도 하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누기도 한다.

02. 자음과 모음은 숨을 내쉬는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에 장애가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발음되므로, 말을 하는 것은 숨을 내쉬는 것과 관련이 있다.

03. ‘ㅁ’은 순음, ‘ㅌ’은 치조음, ‘ㅊ’은 경구개음, ‘ㅇ’은 연구개음, ‘ㅎ’은 후음이다. 따라서 ㉠~㉣에서 조음 되는 자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다.

04. 이중 모음은 주로 반모음 뒤에 단모음이 결합되어 만들어진다. **오답 풀이** ㉠은 (다)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 표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 ㉤은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05.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운소’라고 한다. 그러나 (다)에서는 이에 따른 모음의 명칭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06. <보기>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음은 전설 모음이며,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음은 원순 모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음은 중모음이다.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모음을 표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서 찾으면 ‘ㅟ’이다.

07. <보기>에 의하면, ㉔의 ‘말’은 첫음절에서 긴소리로 발음되지만 ‘우리말’처럼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된다. ‘군밤’의 ‘밤’ 역시 첫음절에 올 때는 긴소리로 발음되지만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게 발음된다. 따라서 ㉔와 ‘군밤’의 ‘밤’은 소리의 길이가 동일하다.

오답 풀이 ㉔ ㉔는 첫음절에 있으므로 긴소리로, ㉔는 둘째 음절 이하에 있으므로 짧은소리로 발음된다. ㉔ ㉔는 긴소리로 발음되고, ㉔ 역시 긴소리로 발음된다. ㉔ ㉔는 짧은소리로 발음되고 ‘눈[眼]’ 역시 짧은소리로 발음된다. ㉔ ㉔는 짧은소리로 발음되면서 ‘밤[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㉔는 긴소리로 발음되면서 ‘밤[栗]’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㉔와 ㉔는 소리의 길이(비분절 음운)를 통해 의미를 분화시킨다.

고난도 해결 포인트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선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국어 시험 문제는 항상 제시된 <보기>나 자료가 문제 해결의 힌트임을 잊지 않도록 한다. 이 문제의 경우는 두 가지 내용이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첫째, 소리의 길이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 둘째, 첫음절에서 긴소리로 발음되는 말이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짧은소리로 발음된다는 점이다.

08. ‘울림소리되기’란 울림소리인 유음과 비음, 그리고 모음 사이에 있는 안울림소리가 울림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안울림소리인 ‘ㅎ’과 울림소리인 모음 사이에서는 ‘울림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09. 이중 모음 ‘니’는 앞에 오는 모음 ‘ㅡ’가 반모음인지, 뒤에 오는 모음 ‘ㅣ’가 반모음인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실제 용례에서 발음의 변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오답 풀이 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ㅏ’가 결합하여 형성된 이중 모음이다. 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ㅓ’가 결합하여 형성된 이중 모음이다. ㉔ 반모음 ‘ㅗ’와 단모음 ‘ㅣ’가 결합하여 형성된 이중 모음이다. ㉔ 반모음 ‘ㅜ’와 단모음 ‘ㅓ’가 결합하여 형성된 이중 모음이다.

10. 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일정한 단모음과 발음하는 동안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평가 기준	
일맞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1점

11. 표준 발음법 제4항에 단모음 중 ‘ㅏ’와 ‘ㅓ’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 우리말에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분명히 구별하여 발음한다. 그러나 영어권에서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소리로 들리고, 따라서 분명히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말에서는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영어권에서는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갖는다.

평가 기준	
우리말과 영어권의 언어를 비교하며 그 차이를 상세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영어권의 언어 중심으로 그 이유를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3. ‘말’과 ‘풀’의 경우 차이가 나는 요소가 ‘ㅁ, ㅍ’뿐 아니라 ‘ㅌ, ㅍ’도 있으므로 이 둘은 최소 대립쌍으로 볼 수 없다.

14.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음운 현상을 축약이라고 한다.

15. ㉔, ㉔, ㉔, ㉔, ㉔는 교체 현상을, ㉔는 첨가 현상을 보여 주고 있는 예이며, ㉔는 축약과 교체 현상(구개음화)을 함께 보여 주고 있는 예이다. 탈락 현상을 보여 주는 예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㉔ ㉔는 음절의 끝소리에서 ‘ㅎ’이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㉔ ㉔는 모음 동화 중 ‘ㅣ’ 모음 역행 동화 현상을, ㉔는 자음 동화 중 유음화 현상을, ㉔는 자음 동화 중 비음화 현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㉔ ㉔와 ㉔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서 ‘ㅣ’ 모음 앞에 있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잇몸(ㅌ)’에서 ‘센입천장(ㄷ)’으로 바뀌는 현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㉔ ㉔는 두 음운 ‘ㄷ’과 ‘ㅎ’이 합쳐져서 하나가 될 때, ㉔는 두 어근 ‘눈’과 ‘요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 주는 예이다.

고난도 해결 포인트 <보기>에 제시된 용례에 나타난 음운 변동 양상을 분석하면서 선택지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 유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부담이 적잖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먼저 선택지를 보면서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문제를 많이 접해 본다면 용례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16. ‘갈이’, ‘해돋이’, ‘피붙이’, ‘팔이라서’는 모두 구개음화의 예에 해당하지만, ‘장미꽃이[장미꼬치]’는 ‘ㅈ’이 그대로 ‘ㅈ’으로 소리 나므로 구개음화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떡다’는 단일어이며, ‘신여성’은 파생어이다. ‘떡다[떡따]’는 된소리되기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신여성[신녀성]’은 파생어로 <보기>의 ㉔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㉔ ‘헛일’, ‘한여름’은 파생어로, 음운 환경이 ‘ㄴ’ 첨가 현상과 관련된 ㉔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㉔ ‘산길’, ‘춡붙’은 합성어로, 음운 환경이 된소리되기에 의한 첨가 현상과 관련된 ㉔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㉔ ‘빗물’, ‘꽃날’은 합성어로, 음운 환경이 ‘ㄴ’ 첨가 현상과 관련된 ㉔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㉔ ‘집일’, ‘춡일’은 합성어로, 음운 환경이 ‘ㄴ’ 첨가 현상과 관련된 ㉔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8. ‘숨+이불 → 숨이불[숨:니불]’, ‘꽃+잎 → 꽃잎[꼇닙]’, ‘교육+열 → 교육열[교육녔]’로 발음되며, 모두 ‘ㄴ’ 첨가 현상에 해당된다.

19.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른 ‘교체’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음운 환경은 ㉠의 끝소리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을 제외한 자음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ㄷ’과 ‘ㅂ’은 받침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끝소리 자음으로 적절치 않다.

20. ‘내리다’는 ‘나리다’가 ‘ㄴ’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내리다’로 바뀌어 발음되는 예이다. 일반적으로 ‘ㄴ’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한 발음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리다’와 같이 완전히 굳어진 어형들은 예외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며, 굳어진 발음대로 표기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형대로 읽고 표기해야 한다. ② ㉣는 언중에 의해 오래 사용되면서 완전히 어형이 굳어져 있으므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며, 발음 나는 대로 읽고 표기해야 한다. ④ ㉦, ㉧는 모음 동화 현상으로, ‘차비[채비]’를 보면 ‘ㅌ’(후설 모음)가 ‘ㄴ’(전설 모음)로 바뀌어 발음되면서 혀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 ㉩는 모음 동화 현상으로, ‘손잡이[손재비]’를 보면 ‘ㅌ’와 ‘ㄴ’, 즉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21. 비음화에 의해 ‘ㄱ’이 ‘ㅇ’으로, ‘ㄷ’이 ‘ㄴ’으로, ‘ㅂ’이 ‘ㅁ’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이때, ‘ㄱ’과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이며, ‘ㄷ’과 ‘ㄴ’은 잇몸소리이다. 그리고 ‘ㅂ’과 ‘ㅁ’은 입술소리이다.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다. 한편, 비음화가 일어나기 전의 ‘ㄱ’, ‘ㄷ’, ‘ㅂ’은 파열음인데 비음화가 일어난 후의 ‘ㅇ’, ‘ㄴ’, ‘ㅁ’은 비음이다. 따라서 조음 방법은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평가 기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변화 양상 두 가지를 모두 상세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변화 양상 중 한 가지만 맞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22. ‘똥’은 ㉣의 [불입]에서 ‘ㅈ’ 뒤에 오는 ‘ㄴ’은 ‘ㄹ’로 발음한다고 했으므로 [똥ㄹ]이 된다.

23. ‘어미’를 [에미]로 발음하는 것은 ‘ㄴ’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난 경우인데, 이는 표준 발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단어와 품사

(1) 단어의 품사와 특성

핵심 다지기

pp. 097~115

01. ④ 02. ② 03. (1) 6개, (2) 이다. 04. ③ 05. ⑤
06. ⑤ 07. ⑤ 08. 대명사와 서수사는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없으나, 양수사는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09. ⑤
10. ② 11. ① 12. 주동사, 능동사 13. ④ 14. ① 15. ④
16. ③ 17. ⑤ 18. ① 19. ① 20. ㉡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며, ㉣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21. ② 22. ② 23. ㄱ은 앞에 오는 체언 ‘선생님’이 문장 속에서 주어가 되게 하는 주격 조사이며, ㄴ은 앞에 오는 체언 ‘인간’이 문장 속에서 보어가 되게 하는 보격 조사이다. 24. 다른 조사는 형태가 고정된 불변어이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는 용언처럼 문장 속에서 활용하는 가변어이다. 25. ⑤ 26. ⑤
27. ④ 28. ② 29. ④ 30. ④ 31. ‘어이!’는 항상 부르는 말로만 쓰이므로 감탄사로 분류하고, ‘학생’은 부르는 말로만 쓰이지는 않으므로 명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01. ㄹ의 ‘에게’는 조사이므로 문장 속에서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불변어이며, 다른 성분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품사는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새’는 관형사이며, 그 기능상 수식언에 해당한다. 문장 속에서 주로 체언을 수식한다. ② ‘철쭉꽃’은 체언으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③ ‘걷는다’는 대상의 움직임, 즉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며, 문장 속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⑤ ‘아!’는 감탄사이며, 기능상 독립적 성분이다. 주로 말하는 사람의 놀람,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낸다.

02. 체언은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으며,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체언은 단어의 형태가 고정된 불변어이다. ④ (나)의 ‘체언’에는 명사(名詞), 대명사(代名詞), 수사(數詞)의 세 가지가 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⑤ (가)의 3문단 ‘기능 기준에 따라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는 체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1) 용언과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불변어이다. 제시된 문장에서 불변어는 ‘자연, 을, 사람, 이, 진짜, 시인’의 6개이다. (2) 불변어인 조사 중 서술격 조사 ‘이다’는 용언처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변어에 해당한다.

04. ‘것’은 의존 명사이며 반드시 그 앞에 꾸미는 말, 즉 관형어와 함께 있어야만 쓰일 수 있다. 관형어에는 ‘관형사’ 외에도 ‘용언의 관형사형’도 있다. ㄴ의 ‘것’을 수식하는 말은 ‘보는’이라는 관형어인데, 이는 관형사가 아닌 용언의 관형사형이다.

오답 풀이 ① ㄱ의 ‘수지’는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므로 고유 명사이다. 반면, ㄴ의 ‘들판’은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이름’

이므로 보통 명사이다. ② (다)에서 '반드시 그 앞에 꾸미는 말, 즉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하였으므로 ㄴ의 '것'은 의존 명사이며, 항상 다른 성분, 즉 관형어와 함께 쓰인다. ④ ㄷ의 '꽃'은 자립 명사이므로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라)의 마지막 문단에서 '재귀 대명사라고도 하는 재귀칭에는 '저, 자기, 당신' 등이 있는데, 주로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ㄹ의 '자기'는 3인칭 주어로 쓰인 '진수'를 다시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이는 재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05.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등을 가리킨다. 즉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 등을 가리키지 아니할 때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ㄴ은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은 부정칭이 아니라 미지칭 대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㉓는 문장 속에서 청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㉔는 문장 속에서 청자를 배제하고 있다. ② ㉕는 문장 속에서 1인칭 낮춤말이지만, ㉖는 문장 속에서 '중'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로, 3인칭 낮춤말에 해당한다. ③ ㉗는 문장 속에서 2인칭 높임말이며, ㉘는 문장 속에서 3인칭 높임말이다. ④ 미지칭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쓰는 인칭 대명사로, 주로 의문문에 쓰인다. 따라서 ㉙는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06. (바)에 의하면, 용언 가운데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동사라고 하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형용사라고 한다고 하였다.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시제에 따라서 연결되는 어미가 다르다.

오답 풀이 ① (바)의 2문단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바)의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말을 용언이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바)의 '용언 가운데 주어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동사라고 하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형용사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 ㄴ의 '밝다'는 주어인 '날'의 '작용'(주체의 의지에 의한 움직임이 아닌 자연적인 현상, 혹은 상태의 변화)에 해당하며, ㄷ의 '크다' 역시 '(키가) 자라다'의 의미로, 주체의 의지에 의한 움직임(동작)이 아닌 '작용'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ㄱ의 '밝다'와 ㄷ의 '크다'는 모두 의미 차원에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에 해당한다. ② ㄴ의 '밝다'와 ㄷ의 '크다'는 모두 의미 차원에서 주어의 작용을 나타내므로 동사에 해당한다. ③ ㄹ의 '달다'는 주어의 움직임(동작)을 나타내므로 동사이며, ㅁ의 '달다'는 주어의 성질을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④ ㄱ의 '밝다'는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며, ㅁ의 '달다'는 주어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

용사이다.

08. 인칭 대명사 '너희'는 지시 관형사 '저'의 꾸밈을 받을 수 없으며, 서수사인 '첫째' 역시 지시 관형사 '저'의 꾸밈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양수사인 '둘'은 '저'라는 지시 관형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다.

평점 기준	
대명사와 서수사의 특성과 양수사의 특성을 비교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대명사와 서수사의 특성과 양수사의 특성 중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9. 동작의 진행형인 '-고 있다.'의 결합이 가능한 품사는 형용사가 아닌 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의 결합이 가능한 품사는 동사이다. ②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결합이 가능한 것은 형용사이며,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는'의 결합이 가능하다. ③ 의도나 목적의 어미 '-려', '-려'의 결합이 가능한 것은 동사이다. ④ 명령형 어미 '-어라', 청유형 어미 '-자'의 결합이 가능한 것은 동사이다.

10. ㉑에는 사동사가 들어가야 하며, ㉒에는 피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앉히다, 살리다, 입히다, 읽히다'는 사동사이며, '묻히다, 밀리다, 쫓기다, 들리다'는 피동사이다.

11. 문장 맥락에서 '소에게 사료를 먹이다.'의 경우는 '소를 먹이다.'로 쓰였으므로 사동사이지만, 이는 '소를 기르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여기서 '먹이다'는 사동 접미사를 붙인 사동사가 아니라 본래부터 '가축 따위를 기르다.'라는 의미를 지닌 타동사이다.

오답 풀이 ②~⑤의 서술어는 모두 사동 접미사가 쓰인 사동사이다.

12. 제시된 지문을 보면, 주동사와 사동사가 짝을 이루고 있고, 능동사와 피동사가 짝을 이루고 있다. 전자는 어떤 동작을 스스로 하느냐(주동사), 남에게 하게 하느냐(사동사)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자는 어떤 움직임이 제 힘으로 이루어지느냐(능동사), 남의 동작이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느냐(피동사)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빈칸 첫 번째는 사동사의 짝인 주동사가, 두 번째는 능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13. 명사형 전성 어미는 '-기', '-(으)ㅁ'이다. '-가'는 명사형 전성 어미에 붙은 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동사 '떠나다'의 어간은 '떠나-'이다. ② 형용사 '향기롭다'의 어간은 '향기롭-'이며, 형용사 '싫다'의 어간은 '싫-'이다. ③ '흙냄새가 향기롭다.'와 '고향을 떠나기가 싫다.'를 연결하는 연결 어미는 어간 '향기롭-'에 붙은 '-어서'이다. ⑤ 용언 '싫었겠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과 추측 선어말 어미 '-겠-'이 함께 결합되어 있다.

14. '씻고'는 '씻-+-고'의 형태로 활용되므로 규칙 활용에 해당하며, '지어'는 '짓-+-어'가 활용되면서 어간 '짓-'이 '지-'

로 바뀐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이르러’는 ‘이르-+-어’가 활용되면서 어미 ‘-어’가 ‘-러’로 바뀐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며, ‘파래’는 ‘파랑-+-아’가 활용되면서 어간 ‘파랑-’과 어미 ‘-아’가 함께 바뀌어 ‘파래’로 활용된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15. ㄷ에서 ‘한’은 의존 명사 ‘개’ 앞에서 사과의 순서가 아닌 수량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 ㄱ에서 ‘현’은 ‘책’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관형사이다. ② ㄱ에서 지시 관형사 ‘저’는 성상 관형사 ‘현’ 앞에 위치하고 있다. ③ ㄴ에서 지시 관형사 ‘이’는 화자와 대상(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움을 나타내고, 지시 관형사 ‘그’는 청자와 대상(사람) 간의 거리가 가까움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시 관형사 ‘저’는 화자와 대상(사람), 청자와 대상(사람) 간의 거리가 멀음을 나타낸다. ⑤ ㄹ에서 수 관형사 ‘모든’과 자립 명사 ‘사건’ 사이에는 ‘나쁜’이라는 말이 끼어 있다.

16. <보기 1>에서 ㉠은 품사가 관형사이며, ㉡은 ‘다르다’의 관형사형으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①와 ④는 각각 ‘가구’와 ‘세상’을 꾸며주는 수식 기능만을 지닌 관형사이다. 반면, ②와 ③은 각각 ‘금액’ 적다와 ‘얼굴이’ 예쁘다라는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금액’, ‘얼굴’과 같은 비교 항목이 나타나 있으며, ‘적다’, ‘예쁘다’와 같은 서술어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②와 ③의 품사는 형용사이다.

17. (파)를 보면 성분 부사는 그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 등을 꾸미는 성상 부사, ‘이리, 그리, 저리’와 같이 특정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 부사, ‘못, 아니/안’과 같이 부정의 뜻을 가진 부정 부사로 나뉘며, 성상 부사 가운데 사물의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부사들을 의성 부사, 의태 부사라고 하였다. 이는 성분 부사는 문장의 한 성분을 꾸미는 부사이며, 어떻게 꾸미느냐, 즉 꾸미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분 부사는 꾸밈을 받는 말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리, 그리, 저리”와 같이 특정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 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성상 부사 가운데 ‘아삭 아삭, 사뽀사뽀’와 같이 사물의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내는 부사들을 의성 부사, 의태 부사라고 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바로, 못, 간절히”는 문장의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므로 성분 부사라고 하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성분 부사는 ~ ‘이리, 그리, 저리’와 같이 특정 내용을 가리키는 지시 부사, ‘못, 아니/안’과 같이 부정의 뜻을 가진 부정 부사로 나눌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파)를 보면 성상 부사는 ‘어떻게’라는 방식으로 용언 등을 꾸미는 부사를 말한다고 하였다. ①는 성상 부사가 아니라 지시 부사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 ㉡는 서술어를, ㉢는 부사어를 각각 수식하고 있다. ③ ㉣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말하는 이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이다. ④ ㉤는 앞뒤

문장을 서로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⑤ ㉥와 ㉦는 모두 문장 부사에 속한다.

19. ㉠은 용언 등을 ‘어떻게’의 방식으로 꾸미는 부사이다. 즉 ② ‘새가 훨훨 날아간다.’, ③ ‘그는 매우 부지런하다.’, ④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⑤ ‘버스가 갑자기 멈추다.’ 등에서 ‘훨훨’, ‘매우’, ‘천천히’, ‘갑자기’가 성상 부사에 해당한다. ①의 ‘저리’는 지시 부사이다.

20. 접속 부사는 앞의 체언이나 문장의 뜻을 뒤의 체언이나 문장에 이어 주면서 뒤의 말을 꾸미는 부사이다.

평가 기준	
두 문장에 나타난 접속 부사의 차이를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두 문장 중 하나의 문장에 나타난 접속 부사의 기능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21. 이 글에는 조사의 개념, 종류, 기능(역할), 분류 기준과 종류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조사의 형성 방법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다.

22. ㉡는 앞에 오는 체언 ‘학교’를 문장 속에서 부사어가 되게 하는 격 조사(부사격 조사)이며, ㉢는 ‘커피’와 ‘샌드위치’라는 두 단어를 연결해 주는 접속 조사이다. 그리고 ㉣는 ‘이’라는 주격 조사 대신 ‘균일’의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조사이다.

23. 보격 조사는 서술어가 ‘되다’, 혹은 ‘아니다’가 올 때 이루어진다.

24. <보기>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문장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양상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평가 기준	
서술격 조사와 다른 조사의 차이를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서술격 조사의 기능과 다른 조사의 기능 중 한 가지만 맞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25. ‘너조차 그런 터무니 없는~’에서 ‘조차’는 주격 조사 ‘가’ 대신 앞말에 특별한 뜻, 즉 ‘첨가’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조사이다.

오답 풀이 ① ‘보다’는 ‘비교’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이다. ② ‘이시여’는 호격 조사이다. ③ ‘께서’는 ‘높임’의 뜻을 지닌 주격 조사이다. ④ ‘과’는 ‘공동’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이다.

26. ㄱ의 ‘랑’은 ‘너’와 ‘나’를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기능하고 있으며, ㄴ의 ‘랑’은 뒤의 ‘놀아 주다’를 수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사격 조사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ㄱ ‘랑’은 ‘너’에게 부사어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ㄴ ‘랑’은 ‘나’에게 부사어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ㄱ의 ‘랑’은 ‘와’ 대신에 쓰는 말로, 주로 구어체에서 쓰인다고 하였다. 문장 속에서 두 단어를 동등하게 이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ㄱ과 ㄴ의 ‘랑’은 주로 구어에서 사용하는 말로, 같은 구어에서 ‘하고’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 ㉔의 조사 '요'는 할머니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청자인 상대방에 대한 높임을 표시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상대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28. ㉔는 제 뜻을 다시 강조하거나 고집할 때 쓰는 말로, 상대방을 의식하며 화자가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의지 감탄사이다.
- 오답 풀이** ① ㉔는 뜻밖에 놀라운 일 또는 딱한 일을 보거나 들었을 때 하는 말로,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감정 감탄사이다. ③, ④ ㉔와 ㉔는 대답과 부름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⑤ 입버릇이 반영된 감탄사로 '아, 뭐, 그, 저, 응' 등이다.
29. 감탄사는 다른 성분과 연관성을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인다.
- 오답 풀이** ①은 ㄴ을 통해, ②는 ㄷ을 통해, ③은 ㄱ을 통해, ⑤는 ㄹ을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다.
30. '그렇지!'는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의지 감탄사이다.
- 오답 풀이** ① '명사+호격 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감탄사로 볼 수 없다. ② '부사+보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감탄사로 볼 수 없다. ③ '용언의 어간+감탄형 어미'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감탄사로 볼 수 없다. ⑤ 문장의 첫머리에 놓인 표제어이므로 감탄사로 볼 수 없다.
31. '어이'는 다른 성분에 비하여 독립성이 있는 감탄사에 속한다. '학생'은 부르는 말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므로, 감탄사가 아니라 명사이다.

평가 기준	
품사 분류를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	3점

소단원 적중 문제

pp. 121~125

01. ③ 02. ① 03. ① 04. 명사: 이념, 진리, 정의 / 대명사: 우리 / 수사: 첫째, 둘째 05. ④ 06. 같은 형태의 '열'이라도 조사가 붙어 있는 ㄱ은 수사이고, 명사 '길'을 수식하는 ㄴ은 조사가 붙을 수 없으므로 수 관형사이다. 07. ② 08. ① 09. ③ 10. ① 11. ㉔는 움직임이 주어진 '진수'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자동사이고, ㉔는 움직임이 주어 이외의 목적어인 '책'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타동사이다. 12. ⑤ 13. ③ 14. ④ 15. ③ 16. ③ 17. ④ 18. 주격 조사로서, 앞말 '학교'가 문장 속에서 주어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 준다. 19. 문장 속에서 문장 부사는 자리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으나, 성분 부사는 자리를 옮길 수 없다. 20. ①

01. (가)에서 '체인'의 개념을 설명하고, 종류를 대략 설명하고, (나)~(라)에서 체인의 종류인 명사, 대명사, 수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나)/(다)/(라)]'의 문단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02. ㉔ 미지칭 대명사는 모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사용하며, 주로 의문문에 쓰인다. ㄱ의 '누구'는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㉔ 부정칭 대명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 등을 가리키지 아니할 때 주로 사용된다. ㄴ의 '아무'는 어떤 특정한 말을 가리키지 않고 있으므로 부정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㉔ 재귀칭 대명사는 앞에 한 번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대명사로, 주로 3인칭 주어로 쓰인 명사나 명사구를 다시 가리키는 데에 쓰인다. ㄷ의 '자기'는 앞에 나온 '혜지'를 다시 가리키고 있으므로 재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03. ㉔로 보아, 대명사는 조사가 없어도 품사의 성격에는 변화가 없다.

오답 풀이 ② ㉔에서 수사 '셋'은 문장 속에서 '저'라는 지시 관형사의 꾸밈을 받고 있다. ③ ㉔의 '셋'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며, ㉔의 '첫째', '둘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이다. ㉔ ㉔에서 '하나'는 목적격 조사 '를'을 붙이지 않을 경우 '먹었다'를 수식해 주는 부사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를 통해 수사는 조사가 없으면 부사적 성격을 띠게 됨으로써 품사의 성격에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㉔ ㉔의 '-째'는 수사에 붙은 접미사이다.

04. '이념, 진리, 정의'는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우리'는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며, '첫째, 둘째'는 사물의 순서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다.

05. '실력뿐이다'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06. ㄱ의 '열'은 수사이며, '이'라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반면, '길'을 수식하는 수 관형사 '열'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07. 제시된 지문의 2문단을 보면, 동사의 종류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지문에는 형용사의 종류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㉔은 (가)에서, ③은 (라)에서, ④는 (다)에서, ⑤는 (라), (마)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08. ㉔에는 사동사가 들어가야 하며, ㉔에는 피동사가 들어가야 한다. '먹이다, 살리다, 앉히다, 입히다, 읽히다'는 사동사이며, '잡히다, 묻히다, 밀리다, 쫓기다, 들리다'는 피동사이다.

09. ㉔는 앞 문장을 뒤 문장에 종속시키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그리고 ㉔는 '먹다'라는 본용언과 '버리다'라는 보조 용언을 연결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오답 풀이 ㉔ ㉔와 ㉔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㉔ ㉔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며, ㉔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㉔ ㉔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므로 앞 문장이 뒤 문장에 종속된다. 반면, ㉔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므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 ㉔

④는 본용언인 ‘먹다’와 보조 용언인 ‘버리다’를 연결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10. ④의 ‘-기’는 동사 ‘처리하다’의 서술 기능을 명사형으로 전성시켜 주는 기능을 하므로 (㉠)에 해당한다. ⑥의 ‘-는’은 동사 ‘공부하다’의 서술 기능을 관형사형으로 전성시켜 주는 기능을 하므로 (㉡)에 해당한다. ③의 ‘-게’는 형용사 ‘포근하다’의 서술 기능을 부사형으로 전성시켜 주는 기능을 하므로 (㉢)에 해당한다.

11. ⑥를 보면, ‘뛰다, 걷다, 가다, 놀다, 끄꿍대다’처럼 움직임이 그 주어에만 관련되는 자동사와 ‘끌다, 누르다, 건지다, 태우다’처럼 움직임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에 미치는 타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의 ③은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고 있으나, ⑥는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도 미치고 있다. 따라서 ③은 자동사이며, ⑥는 타동사이다.

평가 기준	
③과 ⑥에 나타난 동사의 종류와 그 이유를 밝혀 서술한 경우	5점
③과 ⑥에 나타난 동사의 종류 중 한 가지만 그 이유를 밝혀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2. ④와 ⑥를 비교해 보면 청유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의 결합 여부는 동사나 형용사나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13. ⑥는 체언으로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다.

14. ‘싶다’는 앞의 용언 ‘가다’가 가리키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역할, 즉 본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보조 용언이다.

15. (다)는 보조사와 접속 조사의 개념과 그 예를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조사의 개념과 그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② (나)는 격 조사의 개념과 그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④ (라)는 부사의 종류를 문장 속의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⑤ (마)는 성분 부사의 종류를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16. ⑥는 부사격 조사, ③은 호격 조사로, 이들은 ㉡에 해당한다. ④는 ‘뵈’와 ‘먹’을, ㉠은 ‘과일’과 ‘커피’를 동등하게 접속하는 접속 조사로, 이들은 ㉢에 해당한다. ③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⑥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이들은 ㉣에 해당한다.

17. ④의 ‘만올’은 ‘만(보조사)+올(격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오답 풀이 ① ③의 ‘는’은 용언의 어미 ‘-지’에 붙은 보조사이다. ② ⑥의 ‘도’는 부사 ‘너무’에 붙은 보조사이다. ③ ④의 ‘가’는 문장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에 붙은 격 조사이다. ⑤ ⑥의 ‘마저도’는 ‘마저(보조사)+도(보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18. 앞에 오는 체언이 ‘단체’일 때 주격 조사는 ‘에서’를 사용한다.

평가 기준	
내용을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을 불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9. 제시된 용례를 보면, 문장 부사 ‘다행히’는 자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나, 성분 부사 ‘잘’은 자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다.

평가 기준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의 차이를 모두 밝혀 서술한 경우	5점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 중 한 가지만 그 특성을 밝혀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20. ‘서’는 ‘혼자, 둘이, 셋이’ 따위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그 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2) 단어의 짜임과 새말 형성

핵심 다지기

pp. 127~135

01. ⑤ 02. ② 03. ③ 04. ④ 05. ① 06. 새-/파랗다 07. ② 08. ③ 09. ② 10. ③ 11. ④ 12. ⑤ 13. ② 14. ‘높이’는 형용사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명사 또는 부사로 품사가 바뀔으로써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15. ⑤ 16. ④ 17. ① 18. ①, ③ 19. 첫째, 우리말의 단어 형성법에 맞는 새말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차용어는 되도록 우리말로 만들어 써야 한다.

01. (다)에 따르면, ‘의존 형태소는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02. 띄어 쓰는 단위로 분석한 어절 가운데 조사를 따로 분석하고, 분석된 각각을 단어라고 하였다. 따라서 단어로 분석하면 ‘내/백골/이/한/방/에/누웠다’이다. 여기서 형태소로 분석한 부분과 일치하는 것은 ‘내, 이, 한, 방, 에’이다.

03. <보기>의 문장에서 단어는 ‘나’, ‘의’, ‘삶’, ‘은’, ‘내’, ‘가’, ‘만든다’로 7개이다.

오답 풀이 ① 문장 종결 표지가 하나이므로 문장의 개수는 1개이다. ②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므로 4개이다. ④ 음절은 완성된 발음의 최소 단위이며, 낱글자의 개수와 일치하므로 9개이다. ⑤ 형식 형태소는 어미, 조사, 접사이다. ‘의(격 조사)’, ‘삶’의 ‘-ㅁ(명사 파생 접미사)’, ‘은(보조사)’, ‘가(격 조사)’, ‘만든다’의 ‘-ㄴ-(현재형 어미)’, ‘-다(종결 어미)’ 등 모두 6개이다.

04. (마)에 제시된 예를 통해,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는 것은 접두사가 아니라 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마)에서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였다. ② (바)에서 합성어인 ‘놀이터’의 직접 구성 성분이 ‘놀이’와 ‘터’이므로 ‘놀

이터'라는 단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였다. ③ (마)에서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 하고,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을 접사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두 형태소인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어근 앞에 붙을 때는 접두사라고 하고, 어근 뒤에 붙을 때는 접미사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접사는 어근의 앞에 위치하기도 하고 뒤에 위치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05. '손수건'은 '손+수건'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오답 풀이 체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분류되는 형태소들은 자립 형태소이고, 용언의 어간과 어미, 조사, 접사로 분류되는 형태소들은 의존 형태소이다. 또 체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의 어근으로 분류되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라 할 수 있다. 체언이나 용언에 연결되어 문법적 의미를 표시하는 조사나 어미, 그리고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접사는 형식 형태소이다. 따라서 제시된 문장에서 '진주, 나, 손, 수건'은 자립 형태소이고, '는, 에게, 을, 주-, -었-, -다'는 의존 형태소이다. 그리고 '진주, 나, 손, 수건, 주-'는 실질 형태소이고, '는, 에게, 을, -었-, -다'는 형식 형태소이다.

06. (바)를 보면, 한 번만 나누어 나온 구성 요소를 직접 구성 성분이라고 하였다. 이는 합성어의 경우 '어근+어근', 파생어의 경우 '어근+접사'의 형태로 직접 구성 성분을 나눌 수 있다. '새-(파생 접사)+파랗다(어근)'로 분석된다.

보충자료

- 굴절 접사: 굴곡 어미. 조사와 어미를 이르는 말.
- 파생 접사: 접두사, 접미사 따위의 접사를 굴곡 접사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07. (사)에서 합성어는 '어근+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합성어를 이루는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다(용언의 경우 어근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자립 형태소는 아니므로). 따라서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08. '덧버선'은 접두사 '덧-'과 어근 '버선'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는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09. ⑥ '저녁'은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오답 풀이 ㉠ '부슬비'와 ㉡ '함박눈'은 합성어, ㉢ '대낮'과 ㉣ '한밤'은 파생어이다.

10. '눅푸르다'는 '눅다'와 '푸르다'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그런데 두 단어가 결합할 때 앞 용언의 어간에 연결 어미가 생략된 채 뒤에 오는 용언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어긋난다. 따라서 이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① '날아가다'는 '용언의 어간(어근)+연결 어미+용언'의 형태로 합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끓은이'는 '끓-(용언의 어간, 어근)+-(관형사형 전성 어미)+이(어근)'로 결합되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과 일치한다. 따라서 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힘들다'는 '힘(주어)+들다(서술어)'의 형태로 결합되어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확인되는 배열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앞서다'는 '앞(부사어)+서다(서술어)'의 형태로 결합되어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확인되는 배열법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11. (아)에서 접두사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어근과 파생어의 의미에 차이를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할 때 어근의 의미가 제한된다. 그러나 품사가 전성되는 문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어근은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만들고, 접사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만든다. ③ 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를 말한다. 이들은 모두 어근이 의미의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⑤ 접미사는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기도 하지만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12. '눅추다'는 형용사 어근 '눅'에 접미사 '-추-'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이때 품사는 형용사에서 동사로 변화하였다.

오답 풀이 ① '관형사+명사'의 형태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의태 부사+명사'의 형태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용언의 어간+명사'의 형태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주어+서술어'의 형태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13. 합성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것은 합성어를 직접 구성 성분으로 나누었을 때 뒤쪽의 어근이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접미사는 어근과 함께 파생어를 이루면서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합성어와 파생어는 모두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라고 하였다. ④ (가)에서 접사는 그 위치에 따라 어근 앞에 붙는 것을 접두사라고 하고, 어근 뒤에 붙는 것을 접미사라고 한다고 하였다. ⑤ (다)에서 어근과 어근의 연결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단어 형성에서만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고 하였다. 즉, 비통사적 합성어는 문장에서 국어 단어의 일반적인 배열법을 벗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14. 접미사는 어근의 의미를 제한함으로써 어근과 파생어의 의미 차이를 만드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품사를 바꾸는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평가 기준	
접미사가 지닌 두 가지 기능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상세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접미사가 지닌 두 가지 기능 중 한 가지 기능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5. 이 글은 새말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으며, 새말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은 2, 3문단에서, ②는 1문단에서, ③은 3문단에서, ④는 4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16. 기존의 단어인 '나'와 '홀로'를 결합시키고 접미사 '-족'을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7. '새벗'은 '관형사+명사'로, '해마루'는 '명사+명사'로 합성된 말로, 우리말의 단어 형성법에 맞게 지어진 새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뇌섹남'은 '뇌가 섹시한 남자'를 줄여서 쓴 말이다. ③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축약어이다. 이는 '강퇴'나 '맞저'와 같은 방법으로 지어진 말이다. ④ '핵꿀잼'에서 '핵'은 한자어, '꿀, 재미'는 고유어인 합성어이다. ⑤ '리플', '네티즌' 등은 외국말을 그대로 빌려 쓴 차용어로, 제시된 지문에서 이러한 말들은 되도록 우리말로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18. '볼매남'은 '볼수록 매력 있는 남자'의 각 어절의 앞글자만을 따서 축약하여 만든 말이다.

19. (자)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새말을 만들 때는 우리말의 단어 형성법에 맞도록 해야 하고, 차용어는 되도록 우리말로 만들어 쓰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소단원 적중 문제

pp. 139~143

01. ① 02. ③ 03. ③ 04.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므로, 각각 '쉬다'와 '배우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 '휴학(休學)'은 '휴(休)'와 '학(學)'으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 05. ⑤ 06. ⑤ 07. ④ 08. ① 09. 합성어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며,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10. ③ 11. ③ 12. 합성어는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과 어근끼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성분이 어근과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단어이다. 13. ① 14. ① 15. ④ 16. ④ 17. ① 18. ⑤ 19. ④ 20. ⑤ 21. 기존의 단어인 '나'와 '홀로'를 결합하고 접미사 '-족'을 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01. <보기>의 형태소 분석 내용을 보면, 관형사형 어미 '-ㄴ'이 하나의 형태소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형태소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는 음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찾-'과 '-아-', '-오-'와 '-ㄴ', '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의미를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작은 언어 단위를 형태소(形態素)라고 하였다. ④ 조사 '이'와 '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표에서 용언의 어간 '찾-'에 어미 '-아'가 붙어 하나의 단어가 형성되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단어는 조사를 제외하고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의 단위이고,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이다. 따라서 단어와 형태소는 모두 의미(실질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를 가진 말의 단위이며, 그중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말의 단위 중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은 단어, ②는 형식 형태소, ④는 실질 형태소, ⑤는 형태소에 관한 설명이다.

03. (나)를 보면, '체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분류되는 형태소들은 자립 형태소이고'라고 하였으며, '체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의 어근으로 분류되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라 할 수 있고'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식언인 부사 '매우'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체언은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라고 하였다. ② (나)에서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용언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라고 하였다. ⑤ (나)에서 용언의 어미(선어말 어미 포함)는 의존 형태소이자 형식 형태소라고 하였다.

04. 한자어의 형태소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한자어는 음절 하나하나가 모두 뜻을 지닌 뜻글자라는 사실이다. 제시된 지문에서 형태소란 의미를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하였으므로, '휴학(休學)'이라는 한자어는 자립 형태소이자 실질 형태소인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형태소의 개념과 한자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을 상세하게 서술한 경우	5점
형태소의 개념과 한자어의 특징 중 한 가지 특징만을 참조하여 간략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독립언은 다른 성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감탄사가 이에 속한다.
06. (가)에 따르면 어근은 단어를 이루는 형태소 가운데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어근에 붙여 그 뜻을 제한하는 주변 부분은 접사라고 한다.

07. '익히다'는 동사 '익다'의 사동사이다. 따라서 접미사 '-히'는 품사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접두사 '덧-'은 어근 '버선'의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접미사 '-뜨리-'는 어근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어근의 뜻과 차이를 만든다. ③ 접미사 '-이-'는 주동사를 사동사로 만들으로써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⑤ 접미사 '-거리-'는 의태 부사 '출렁'에 붙여 부사를 동사로 전성시킴으로써 문법적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08. '새해'는 '새(관형사) + 해(명사)'의 형태로 결합된 합성어로,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연결 형태와 일치하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② '산들(부사)+바람(명사)'으로 결합된 합성어로,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연결 형태인 '부사 + 용언'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정(주어)+들다(서술어)'의 형태로 결합됨으로써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연결 형태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늦-(용언의 어간)+잠(명사)'의 형태로 결합되면서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 전성 어미)+명사'의 형태로 결합되지 않음으로써,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스미-(용언의 어간)+어(연결 어미)+들다(용언)'의 형태로 결합됨으로써 어근과 어근의 결합이 문장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09. 제시된 예와 같이 합성어는 '어근+어근'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에 해당한다. 반면, 파생어는 '어근+접사'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이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합성어와 파생어의 결합 방식을 모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합성어와 파생어의 결합 방식 중 한 가지만을 맞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0. <보기>에서 용언의 활용은 '어간+어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므로 '깨끗하다'라는 용언이 활용하려면 '깨끗하-(어간)+-다(어미)'의 형태로 활용된다.

오답 풀이 ① '사랑하다'는 '사랑(어근)+-하-(파생 접사)+-다(굴절 접사, 혹은 어미)'의 형태로 분석된다. 활용할 때는 '사랑하-(어간)+-다(어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② '사랑하다'의 어근 '사랑'은 품사가 분명하므로 규칙적 어근이며, '깨끗하다'의 어근 '깨끗'은 품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불규칙적 어근이다. ④ '씻기다'는 '씻다'의 피동사로, '-기-'는 '씻다'를 피동형으로 만드는 파생 접사이다. ⑤ '사랑하다'는 '사랑(어근)+-하-(파생 접사)+-다(굴절 접사, 혹은 어미)'의 형태로 분석된다.

11. '돌아가다'는 '죽다'의 의미와 '돌아서 가다'의 의미인 경우 모두 한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 합성어로 처리하고 있다.

12. 합성어는 '어근+어근'의 형태로, 파생어는 '어근+접사 혹은 접사+어근'의 형태로 결합하여 형성된다.

평가 기준	
합성어와 파생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서술한 경우	5점
합성어와 파생어 중 한 가지만 결합 조건을 명확히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3. '뛰놀다'는 '뛰다'와 '놀다'가 대등하게 본래의 뜻을 유지하며 결합된 합성어이다. '나가다'는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나다'가 '가다'에 종속되며 결합된 합성어이다. '밤낮'은 '밤'과 '낮'의 본래의 의미를 잃고 '늘'이라는 새로운 의미로 쓰이게 된 합성어이다.

14. 지배적 접사에 의해 품사가 바뀐 단어는 '놀이(놀-(동사)+이(접사))', '덮개(덮-(동사)+-애(접사))', '학생답다(학생(명사)+-답다(접사))', '많이(많-(형용사)+이(접사))'를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접두사는 모두 한정적 접사이며, 접미사는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가 있다. ② '벌이'는 '벌-(동사)+-이(접사)'의 형태로 결합된 말로,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또 '교통로'는 '교통(명사)+-로(접사)'의 형태로 결합된 말로, 명사에서 부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④ '지우개'는 '지우-(동사)+-개(접사)'의 형태로 결합된 말로, 동사에서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⑤ '출렁거리다'는 '출렁출렁(부사)+-거리다(접사)'의 형태로 결합된 말로, 부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또 '마주'는 '맞-(동사)+-우(접사)'의 형태로 결합된 말로, 동사에서 부사로 품사가 바뀌었다.

15. '치솟다'는 접두사 '치-'가 어근 '솟다'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16. 접사 중에서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접미사이다.

17. '군밤'은 '굽다'라는 어근과 '밤'이라는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이고, '군말, 군불, 군식구, 군더더기'는 접두사 '군-'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18. (다)를 보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나 사물을 들여올 때에는 외국말을 그대로 빌려 쓰는 차용어가 활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는 (라)에서, ②는 (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19. '외상값'은 외상이라는 거래 방식의 결과 발생한 물건의 값을 의미한다. 한편 '나잇값'은 '나이'의 크기에 어울리는 행동이나 말을 뜻한다.

20. <보기>에 의하면, '댓글'은 차용어인 '리플'의 순화어라고 하였으며, '누리꾼'은 '네티즌'의 순화어라고 하였으므로 차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쓰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많은 새말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현재 국어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보기>를 보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새말들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새말을 만들어 써야 한다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③ <보기>의 '댓글'은 '대답하다'의 '대'와 '글'이 결합한 말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용언의 일부 음절+명사'의 형태로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이는 '용언의 어간+관형사형 어미+명사'의 형태로 합성되는 통사적 합성법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보기>에 나타난 새말들 중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의 활용 빈도가 높아져 우리말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21. '나홀로족'은 기존의 단어를 결합하고 접미사를 붙여 만드는 방식으로 새말을 만든 예이다.

(3) 단어의 의미 관계와 어휘 사용

핵심 다지기

pp. 145~149

01. ③ 02. ① 03. 다의어는 의미적 유연성이 있으나, 동음이의어는 단어의 형태는 일치하면서도 의미적 유연성은 없다. 04. ①
05. ② 06. ③ 07. ① 08. ④ 09. ① 10. 상대적

01. '손⁰¹'과 '손⁰²'는 의미적 유연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손⁰²-1, 2, 3'은 '손⁰¹'에서 확장된 의미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손⁰¹'과 '손⁰²'는 의미적 유연성이 전혀 없는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다. ② '손⁰¹-1, 2, 3'은 다의어 관계로 의미적 유연성이 존재한다. ④ <보기>에 제시된 '손⁰¹'과 '손⁰²'는 각각 세 가지씩의 의미를 지닌 다의어이다. ⑤ 사전에서 첫 번째 의미가 중심적 의미이고, 두 번째 이하는 중심적 의미가 확장된 주변적 의미이다. 따라서 <보기>의 '손⁰¹-1'은 중심적 의미이며, '손⁰¹-2, 3'은 주변적 의미이다.

02. 중심적 의미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미이다. '쓰다'의 중심적 의미는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

게 하다.'이다. ①에서 방명록에 이름을 쓰는 것은 중심적 의미에 해당한다.

03. 다의어는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되어 형성된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적 유연성이 존재한다. 반면, 동음이의어는 어휘의 형태만 동일할 뿐, 의미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의미적 유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평가 기준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차이를 의미적 유연성의 측면에서 제대로 서술한 경우	5점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중에서 한 가지만 제대로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4. ㄱ은 신체의 일부인 '머리'(사전적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어떤 때가 시작될 무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② ㄴ에서 '4층'은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고 있으므로 반사적 의미에 해당한다. ③ ㄷ은 오늘날 '계집'이라는 어휘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는 데서 빚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회적 의미에 해당한다. ④ ㄹ의 '시원하시겠네요!'는 음성적 변조를 통해 '비꼼'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말하는 이의 감정이나 심리가 반영된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정서적 의미에 해당한다. ⑤ ㄹ에서 '절대로'라는 말을 강조하여 화자가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제적 의미에 해당한다.

05. 제시된 '다리'는 첫 번째 용례가 중심적 의미, 두 번째와 세 번째 용례가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용례에 나타난 '다리'는 다의어이다.

06. '서생원'은 '쥐'라는 금기어에 대한 완곡어로 만들어진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외래어의 유입에 따라 유의 관계가 형성된 예이다. ② 한자어의 사용과 높임법의 발달에 따라 유의 관계가 형성된 예이다. ④ 동일한 의미를 지닌 고유어로서 유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예이다. ⑤ 감각어의 발달에 따라 유의 관계가 형성된 예이다.

07. 이 글은 단어들의 의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글로, 단어들의 의미 유형에 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② (아)를 보면, 상하 관계를 형성하는 단어들은 상위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위어일수록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③ 둘 이상의 단어가 의미상 서로 짝을 이루어 대립하는 경우를 반의 관계(反義關係)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한쪽이 의미상 다른 쪽을 포함하거나 다른 쪽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를 상하 관계(上下關係)라고 한다고 하였다. ④ 오직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들은 모두 공통될 때 반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⑤ 의미를 중심으로 한 단어들의 관계로 (사)에서는 반의 관계와 (아)에서는 상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8. '소년'은 [+인간][+남성][-성인][+젊음][-결혼]으로 성분 분석을 할 수 있으며, '소녀'는 [+인간][-남성][-성인][+젊음][-결혼]으로 성분 분석을 할 수 있다. 결국 '소년 : 소녀'의 의미 관계는 '성(性)'이라는 단 하나의 의미 요소(자질)만 다르므로 반의 관계가 성립된다.
09. ㉠과 ㉡는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로, ㉠이 하위어라면 ㉡는 상위어이다. '자두'와 '과일' 역시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단어들로, 전자가 하위어, 후자가 상위어에 속한다.
오답 풀이 ㉡는 유의 관계에 있으며, ㉢은 반의 관계에 있다. ㉣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있으며, ㉤는 동위(同位) 관계에 있다.
10. 제시된 예를 보면, '포유류'는 '동물'의 하위어이면서 '인간'의 상위어이다. 이를 통해 상하 관계에서 상위어와 하위어는 상대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소단원 적중 문제

pp. 153~155

01. ⑤ 02. ⑤ 03. ⑤ 04. ③ 05. ④ 06. ④ 07. ①
 08. ④ 09. ㉠은 상하 관계에 있고, ㉡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있다. 10. ① 11. ① 12. ④ 13. ① 14. ④

01. (바)를 보면, 주제적 의미는 화자가 특별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라고 하였다. 청자의 뜻이 더 강조되어 반영된 의미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은 (다)에서, ②와 ③은 (나)에서, ④는 (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먹다'의 중심 의미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 보내다.'이다. ⑤의 '먹었다'는 도시락에 있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중심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03. ㉠~㉣의 예를 볼 때, 중심적 의미는 하나이고 주변적 의미는 둘이므로 두 의미의 관계는 일대다(多)의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중심적 의미이며, ㉡와 ㉢은 ㉠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이다. ② ㉡, ㉣, ㉤에 나타난 '발'은 유사한 의미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다의어이다. ③ '장지문에 발[簾]이 걸려 있다.'의 '발'은 ㉡에서 확장된 의미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의미이므로 ㉡의 '발'과는 다의어가 아닌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④ ㉣와 ㉤는 비유에 의한 관용적 표현이다. 즉 ㉣는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관용구이며, ㉤는 '오가지 않거나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를 지닌 관용구이다. 따라서 ㉡의 사전적 의미는 ㉣, ㉤에서 비유에 의해 함축성을 지니면서 그 의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04. ①, ②, ④, ⑤는 함축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③은 사전적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05. 엄마는 혜은이의 목소리, 즉 어조를 통해 혜은이의 말 속에 담긴 심미 상태를 찾아내고 있으므로 엄마가 파악한 의미는 정서적 의미이다.

06. ㉠과 ㉡은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 (나)의 '반의 관계에 있는 ~ 모두 공통된다.'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상위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하위어는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상위어는 하위어보다 단어를 이루는 의미 요소가 적다. 예를 들면, '남자-총각'의 상하 관계에서 상위어인 '남자'를 이루는 의미 요소는 '[+사람], [+남성]'이지만, 하위어인 '총각'을 이루는 의미 요소는 '[+사람], [+남성], [+성인], [+미혼]'이다.

07. '(마음을) 담다'의 유의어는 '나타내다'가 맞지만 이에 대한 반의어는 '감추다'이다.

08. '벗다'는 '(인형을) 안다'의 반의어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벗다'의 반의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 ㉢, ㉤는 문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벗다'의 반의어이다.

09. ㉠은 상위어가 하위어를 포함하는 상하 관계이다. 반면, ㉡는 '전체'와 '전체를 이루는 부분'의 관계이다.

평가 기준	
상하 관계와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모두 맞게 서술한 경우	5점
상하 관계와 전체와 부분의 관계 한 가지만 맞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출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0. '총각'과 '처녀'는 '미혼'이고 '성인'이라는 의미 요소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성별'에서만 대립을 이룬다.

오답 풀이 ② '형'과 '여동생'은 '나이' 혹은 '서열'뿐 아니라 '성별'에서도 의미 대립이 생겨 반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③ '길이'의 요소에 따라 반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길다'와 '짧다'이다. '늙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젊다'이다. ④ '손녀'와 '할아버지'는 '나이'뿐 아니라 '성별'도 다르므로 서로 대립하는 의미 요소가 둘 이상이라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아줌마'와 '총각'은 '성별'과 '기혼 여부'라는 의미 요소에서 대립되므로 '나이'에서 대립된다고 한 진술도 틀리고, 대립 요소가 하나가 아니므로 반의 관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11.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라는 뜻이고, '적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가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12. "그녀는 가난한 집 딸이었다."에서 '집'은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의 뜻으로, '집'의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13. ①의 '가다'는 '치우치다, 기울다'의 의미이고, 반의어는 '똑바르다, 균형이 맞다' 등이다. '편벽되다'는 '한쪽으로 치우쳐 공평하지 못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14. '등을 밀다'와 '김 후보를 밀다'의 '밀다'는 의미상 연관성이 있으므로 다의어로 볼 수 있다.

01. ⑤ 02. ⑤ 03. ③ 04. ㉠의 ㉠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고, ㉡은 명사에 붙어 문법적 의미를 더하는 조사이다. 그리고 ㉢의 ㉠은 조사와 연결되는 명사이고, ㉡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05. ⑤ 06. ⑤ 07. ⑤ 08. ③ 09. ④ 10. ㉡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사용 ㉢ 용언의 어간에 붙은 연결 어미의 사용 11. ② 12. ③ 13. ① 14. 유의어는 서로 자유롭게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01. (라)를 보면,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는 관형사와 부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②는 (라)에서, ③은 (나)에서, ④는 (바)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02. ㉠의 '에게'는 조사이므로 문장 속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오답 풀이 ① '몹시'는 부사이므로 불변어이다. ② 명사는 기능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체언에 속한다. ③ 용언은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지닌 품사이다. ④ 감탄사는 다른 문장 성분에 얹매이지 않는 독립언이다.

03. '파릇한, 마른'은 각각 '파릇하다, 마르다'라는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마른'은 동사, '파릇한'은 형용사이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용언으로 분류된다.

오답 풀이 ① 명사는 그 기능상 체언에 속한다. ② 동사는 그 기능상 용언에 속한다. ④ 감탄사는 그 기능상 독립언에 속한다. ⑤ 조사는 그 기능상 관계언에 속한다.

고난도 해결 포인트 우선 제시된 지문 중에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후 선택지에 적용하여 적절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이때 <보기>에 제시된 밑줄 친 어휘를 기능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체언에 속하는지 용언에 속하는지 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04. '만큼'은 그 쓰임에 따라 의존 명사가 되거나, 조사가 된다. ㉠은 관형어 '주는'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이며, ㉡은 체언인 '당신'에 붙어 문법적 의미를 더하고 있으므로 조사이다. '~적'의 형태를 지닌 말 역시 그 쓰임에 따라 명사가 되거나, 관형사가 된다. ㉢은 뒤에 조사 '으로'가 붙어 있으므로 명사이며, ㉣은 명사 '교감'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이다.

평가 기준	
㉠과 ㉡ 모두 동일한 형태를 지닌 두 어휘의 품사 차이를 제대로 설명한 경우	5점
㉠과 ㉡ 중 한 가지만 동일한 형태를 지닌 두 어휘의 품사 차이를 제대로 설명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아서라', '천만에' 등 말하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의지 감탄사도 있다.

오답 풀이 ② 감탄사는 동일한 형태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거시기, 빌어먹을, 왜'는 각각 대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06. 어근의 의미를 제한하기도 하면서 문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접두사가 아닌 접미사이다.

07. '더욱이'는 부사 '더욱'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이때 품사는 변화하지 않으며 의미만 변화한다. '더욱'은 '정도나 수준 따위가 한층 심하거나 높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더욱이'는 '그러한 데다가 더'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부사+부사'의 형태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② '관형사+명사'의 형태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③ '용언의 어간+명사'의 형태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용언의 어간+용언'의 형태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08. '㉠'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서술성이 없다. '㉡' 역시 서술성이 없다. 따라서 두 단어는 ㉢에 해당한다. '㉠'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서술성이 있다. '㉡' 역시 선어말 어미 '-았-'이 쓰였으며, 서술성이 있다. 따라서 두 단어는 ㉣에 해당한다.

고난도 해결 포인트 제시된 지문에 나타난 '파생 접사'와 '전성 어미'를 구별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문장 속에서 파생 접사가 붙은 어휘와 전성 어미가 붙은 말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맥락을 통해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술성이 있으면 전성 어미가 붙은 어휘이며, 서술성이 없으면 파생 접사가 붙은 어휘이다.

09. '{밑-(어근)+담-(어근)}+-(이(접미사), {절름-(어근)+발(어근)}+-(이(접미사))'이다.

10. '큰집'은 '크-(용언의 어간)+ㄴ(관형사형 전성 어미)+집(체언)'의 형태로 합성되었으며, '덮밥'은 '덮-(용언의 어간)+밥(체언)'의 형태로 합성되었다. 이 두 용례를 비교할 때 통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합성어가 만들어졌는지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사용 여부에 달려 있다. 또 '돌아가다'는 '돌-(용언의 어간)+-아-(연결 어미)+가다(용언)'의 형태로 합성되었으며, '여닫다'는 '열-(용언의 어간, 'ㄹ' 탈락)+닫다(용언)'의 형태로 합성되었다. 이 두 용례를 비교할 때 통사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합성어가 만들어졌는지는 용언의 어간에 붙은 연결 어미의 사용 여부에 달려 있다.

평가 기준	
③와 ④를 모두 맞게 쓴 경우	5점
③와 ④ 중 하나만 맞게 쓴 경우	3점

11. 제시된 문장에 나타난 ‘길’은 중심적 의미로서,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말한다. 그런데 ②에 나타난 ‘길’은 ‘어떤 일에 익숙하게 된 습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된 문장에 나타난 ‘길’의 중심적 의미와 아무런 유연성이 없다. 따라서 두 어휘는 다의적 관계가 아니라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다.

오답 풀이 ① ‘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된 문장에 나타난 ‘길’의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담고 있다. ③ ‘길’은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된 문장에 나타난 ‘길’의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담고 있다. ④ ‘길’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된 문장에 나타난 ‘길’의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담고 있다. ⑤ ‘길’은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된 문장에 나타난 ‘길’의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담고 있다.

12. <보기>의 ‘밥-진지-메-수랴’는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이다. 그런데 ‘가다-오다-이동하다’는 유의 관계에 있지 않다.

오답 풀이 나머지 선지는 모두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끼리 짝을 이루고 있다.

13. 제시된 세 단어는 말의 형태는 동일하나 의미는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그러나 ①에 나타난 ‘쓰다’는 유의어이다. (‘붓글씨를’) 쓰다’는 ‘쓰다’의 중심적 의미로서, ‘붓, 펜, 연필과 같이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 따위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시를’) 쓰다’는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된 주변적 의미로서, ‘머릿속의 생각을 종이 혹은 이와 유사한 대상 따위에 글로 나타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밤[夜]-밤[栗]’의 관계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이다. ③ ‘연기, 안개, 구름 따위가 한곳에 모여 나타나다-나이가 적다’의 관계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이다. ④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금속 원소’의 관계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이다. ⑤ ‘스며들거나 스며 나오다-배 속에 아이나 새끼를 가지다’의 관계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어이다.

14. 제시된 예에서 ㉠에는 ‘근원’, ‘근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에는 ‘근본’, ‘근간’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에는 ‘근본’, ‘근원’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원’, ‘근본’, ‘근간’은 유의어이지만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기>의 빈칸에는 ‘유의어는 서로 자유롭게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	
‘대체’라는 말을 써서 분명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다소 불분명하나 의미는 통하게 쓴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고난도 해결 포인트 제시된 지문에서 설명한 단어의 유의 관계를 보다 심화시켜 이해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에 제시된 글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리해서 써야 한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도 맥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3. 문장과 문법 요소

(1) 문장의 성분

핵심 다지기

pp. 163~166

01. ⑤ 02. ② 03. ④ 04.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05. ⑤ 06. ③ 07. ④ 08. ③ 09.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한다.

01. 독립어는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이다.

02. ‘사업가가’만 보어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어이다. 보어와 주어는 모두 ‘이/가’를 격 조사로 사용하므로 혼동하기 쉽다.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므로 주어와 보어를 구분하려면 서술어가 ‘되다/아니다’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03. ㄴ에서 ‘서예도’는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 ‘도’가 붙은 목적어이므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목적어가 ㄱ에는 문장의 앞에, ㄴ에는 문장의 뒷 부분에 위치하므로 목적어의 위치는 고정적이지 않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② ㄱ에는 목적격 조사 ‘을’이, ㄴ에는 ‘를’이 사용되었고 이는 앞말의 받침 유무와 관계된 것이므로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앞말과 관계있다는 탐구 내용은 적절하다. ③ ㄱ은 ‘보았다’, ㄴ은 ‘좋아하다’의 동작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⑤ ㄴ에는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탐구이다. 목적어는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만 필요하다.

04. <보기>의 밑줄 친 서술어는 ‘먹는다’(동작), ‘귀엽다’(상태), ‘포유류이다’(성질) 등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ㄱ~ㄴ을 바탕으로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서술어의 기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에 대한 언급 없이 주어를 설명한다는 기능만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모든'은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인 경우이다.
06. ㉠ '너그러워지는데'와 ㉡ '둥그란'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체언인 '마음'을 꾸미고, ㉢ '위로의'는 체언+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선물'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오답 풀이 ㉣ '조금'과 ㉤ '활짝'은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는 부사어이다.
07. 관형어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 없으나, '빨리도', '예쁘게만' 등과 같이 부사어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관형어는 '예뻐던 친구', '꿈꿨던 일'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거 등 시간 표현이 가능하나 부사어는 불가능하다. ② 관형어는 단독으로 문장을 형성할 수 없으나, "어서!", "빨리!" 등과 같이 부사어는 단독으로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 ③ 관형어는 문장 수식 기능이 없으나, 부사어 중 문장 부사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 ⑤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뿐이지만, 부사격 조사는 의미에 따라 '에, 에서, 에게, 로, 보다' 등으로 다양하다.
08. '철수야'는 명사인 '철수'에 호격 조사 '야'가 붙은 형태인 독립어이다.
09. '고로'와 '그러나'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접속 부사어이다.

평가 기준	
문장과 문장을 이어 주는 접속 부사어의 기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접속 부사어만 밝히고 기능 서술은 하지 못한 경우	1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소단원 적중 문제

pp. 169~171

01. ② 02. ② 03. ⑤ 04. ① 05. ① 06. ② 07. ④ 08. 문장 안에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이다.
 09. ④ 10. ③ 11. ② 12. ② 13. ② 14. '주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기 때문이다. 15. ③

01. 서술어로 쓰일 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타동사이다.
02. '친구와'는 부사어로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다.
03. '청춘'은 제시어로 독립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주어(철수가), 보어(선생님이), 서술어(되었다)'의 주성분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② 목적어는 목적격 조사 '을/를' 대신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사가 붙기도 한다. ③ '우리'는 '형'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④ '설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 문장 부사어는 '설마, 확실히, 과연, 부디' 등과 같이 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주가 된다.

04. ㉣의 '흰'은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가 아니라 용언 '희다'의 어간 '희-'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은 것이다.
05. '어머니께서 김밥을 싸 주셨다'에서 '께서'는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는 주격 조사로서 서술어의 자릿수와는 관계가 없다.
06. '그 책을 여기 놓아라'에서 '여기'는 부사격 조사 '에'가 생략된 부사어이지만, '여기 아주 고요하고 아름답지?'의 '여기'는 주격 조사가 생략된 주어이므로 문장 성분이 다르다.
07. ㉠은 용언인 '옷어 주는'을 수식하는 부사어이다. 그러나 ㉣의 '오랜'은 뒤에 오는 체언인 '친구'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므로 문장 성분이 서로 다르다.
08. ㉣, ㉤은 용언의 관형사형으로 체언인 '마음'을 꾸미고, ㉢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체언인 '선물'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평가 기준	
문장 성분을 밝히고 문법적 기능을 올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문장 성분만 밝힌 경우	2점

09. ①, ②, ③, ⑤의 경우는 부사어를 목적어로 바꾸어도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④는 '나에게'를 '나를'로 바꾸면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이 된다.
10. 체언 '친구'에게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경우이다.
11. ②의 '진희가'는 둘 다 주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ㄱ의 '노랑게'는 '물들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 ㄴ의 '노란'은 '은행잎'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③ ㄱ의 '등산만'은 보조사가 붙은 목적어, ㄴ의 '등산만'은 보조사가 붙은 주어이다. ④ ㄱ의 '가수가'는 보어, ㄴ의 '가수가'는 주어이다. ⑤ ㄱ의 '저런'은 독립어, ㄴ의 '저런'은 뒤에 오는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다.
12. '것'은 수식하는 말, 즉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오래된'이 생략될 수 없는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ㄱ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주어(형이)'와 '서술어(잔다)'의 두 개다. ③ ㄷ의 '부르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이다. ④ ㄹ에서 '요리사가'는 '보어'이다. '주어'는 '정우가'이다. ⑤ ㄴ에 사용된 문장 성분은 '주어(토끼가), 거북이보다(부사어), 늦게(부사어), 도착했다(서술어)'이다.
13. ②의 '꼭'만 용언을 수식하고, 나머지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14. '주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세 가지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이 성분 중의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	
서술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모두 구체적으로 밝혀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등	-1점

15. 밑줄 친 문장 성분 중 (가)는 관형어, (나)는 부사어이다. 관형어는 ‘소녀의’에서처럼 체언에 관형격 조사를 취해 관형어로 실현될 수가 있다. 부사어도 ‘양자로’에서처럼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실현될 수가 있으므로 ③의 탐구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나, 부사어는 부사어, 관형어, 용언 등을 수식한다. ② 관형어는 바로 뒤의 성분을 수식하나, 부사어는 ‘아무쪼록’에서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④ ‘아주 현’에서처럼 부사어 ‘아주’가 관형어 ‘새’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⑤ 부사어 중에는 ‘양자로’에서처럼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가 있다.

(2) 문장의 짜임

핵심 다지기

pp. 173~179

01. ④ 02. ④ 03. ③ 04. 명사절은 ‘자식들이 행복하기’이며 문장 속에서 목적어 기능을 한다. 05. ⑤ 06. ① 07. ③ 08. ③ 09. 모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절로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한다. 10. ② 11. ③ 12. ⑤ 13. ④ 자기 방, ⑥ 주겠느냐고 14. ⑤ 15.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앞 절과 뒤 절이 원인의 의미 관계를 갖는 ‘-(어)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6. ⑤ 17. ①

01. 홀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02. ㄷ의 안긴문장인 ‘기린의 목이 더 길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이다.
오답 풀이 ① ㄱ은 서술절을 안고 있는 겹문장으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기린은(주어)+[목이(주어)+길다(서술어)](서술어) ② ㄴ은 앞 절과 뒤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③ ㄴ의 앞 절에서 ‘길고’의 주어는 ‘목이’이고, 뒤 절에서 ‘길다’의 주어는 ‘다리’이다. ⑤ ㄷ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안은문장이다.
03. ③의 ‘책을 읽기’는 명사절로 부사격 조사 ‘에’가 붙어 부사어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색깔이 희기’는 명사절로 주어의 기능을 한다. ② ‘그가 돌아오기’는 명사절로 목적어 기능을 한다. ④ ‘꽃이 피는’은 ‘남쪽’을 꾸미는 관형절로 관형어 기능을 한다. ⑤ ‘장미꽃이 아름답다’는 뒤에 오는 의존 명사 ‘것’을 꾸미는 관형절로 관형어 기능을 한다.
04. ‘자식들이 행복하기’는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명사절로 안긴문장으로 목적격 조사 ‘을’이 붙어 목적어 기능을 한다.

평가 기준	
명사절을 찾고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명사절을 찾지만 하고 문장 안에서의 기능은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05. ‘-(으)ㄴ’은 명사절을 만드는 어미이다.

06. ①의 ‘보기 좋은’은 뒤에 오는 ‘떡’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오답 풀이 ② 부사절 ‘소리도 없이’를 안고 있다. ③ ‘영수는 아프다’와 ‘영수는 병원에 갔다’라는 홀문장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④ 명사절 ‘농사가 잘되기’를 안고 있다. ⑤ 인용절 ‘철수의 말이 옳다’를 안고 있다.

07. ③은 관형절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사절이다.

08. ㉠의 ‘고운 무지개’는 ‘무지개가 곱다’라는 문장이 관형절로 안긴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발이 시리도록’은 뒤에 오는 서술어 ‘차가웠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② ‘귀를 잡은’은 뒤에 오는 체언 ‘고양이’를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④ ‘남의 도움 없이’는 뒤에 부사화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절로 사용되었다. ⑤ ‘내가 산책하던’은 관형사형 어미 ‘-던’이 붙어 만들어진 관형절은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09. ㄱ에는 ‘네가 좋아하는’, ㄴ에는 ‘지금 듣는’, ㄷ에는 ‘영수가 귀국한다는’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이들은 모두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며,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 관형절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평가 기준	
관형절의 공통점을 형식과 기능 면에서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관형절의 공통점을 형식이나 기능 중 하나만 찾고 그 이유를 서술한 경우	3점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인 ‘코가 길다’는 서술절이다. 서술절은 절임을 알려 주는 표지가 따로 없으므로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절을 이룬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③은 두 개의 홀문장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므로 ‘땅이 질다’는 안긴문장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서술절로 안겨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다.
12. <보기>에는 ‘나에게 빨리 가라’가 인용절로 안겨 있다. 이와 같은 인용절을 가진 문장은 ⑤로, ‘저 집에 누가 사느냐’가 인용절이다.
13. 동생이 형이 한 말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므로 동생의 입장에서 지시 표현이나 인용 표현을 바꾸어 써야 한다.
14. ‘-거나’는 대조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15. ‘발이 너무 시리다.’가 ‘나는 냇물을 건너지 못했다.’가 원인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 ‘-(어)서’로 이어진문장이다.

평가 기준	
문장의 유형,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 종속적 연결 어미 등을 언급하여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문장의 유형만 언급하고 이유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16. ⑤는 앞 절과 뒤 절이 대조 관계를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 어미 '나'로 이어져 있으므로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오답 풀이 앞 절과 뒤 절이 ①은 원인, ②는 의도, ③은 양보, ④는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17. ㄱ은 앞 절과 뒤 절이 '의도'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연결되었으므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소단원 적중 문제

pp. 183~185

01. ③ 02. ② 03. ③ 04. ⑤ 05. ④ 06. ⑤ 07. ③: 명사절인 '집에 가기가'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⑥: 부사절 '땀이 나게'가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08. ⑤ 09. ⑤ 10. 'ㄹ면'이라는 '조건'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종속적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다. 11. ② 12. ② 13. ① 14. ④ 15. ② 16. ③: '꽃이 피어서는' 뒤에 이어지는 절 '마음이 흥겹다'와 원인 관계를 갖는 종속절로 기능한다. ⑥: '꽃이 피어서'는 부사절로 안겨 서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01. 인용절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02. ②의 '소리도 없이'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오답 풀이 ① '그가 정당했음'이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집에 가기가' 명사절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하기'가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⑤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음'이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03. '이 강은 물이 매우 깊을 것이다'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붙어 관형절로 기능하지만,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추측의 의미를 더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공을 차던'에서 'ㄹ'은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② '밥을 먹는'에서 'ㄹ'은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④ '내가 본'에서 'ㄹ'은 과거 시제를 표현한다. ⑤ '영희가 할'에서 'ㄹ'은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04. ⑥의 안긴문장 '말도 없이'는 부사절로서 서술어 '가 버렸다'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05. ④의 '유정이는 학교까지 걸어갈'은 뒤에 이어지는 체언 '생각'을 수식하는 관형절이다.
06. ⑤는 '철수가 책임지고 준비한 행사이다.'가 '행사가 무사히 끝났다.'에 관형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안긴문장의 주어는 '철수가'이므로 관형절로 안기는 과정에서 생략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꽃이 어제 피었다'가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인 '꽃이'가 생략되었다. ② '동생이 공원에 가다'가 관형절로 안

기면서 주어인 '동생이'가 생략되었다. ③ '누나가 간호사가 되었다'가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인 '누나가'가 생략되었다. ④ '현수와 진수가 산에 가다'가 관형절로 안기면서 주어인 '현수와 진수가'가 생략되었다.

07. ④: '지금은 이른 시간이다'와 '집에 가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겹문장이다. '집에 가다'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으로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 명사절이 되면서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⑥: '철수는 뛰었다.'와 '발에 땀이 나다'라는 문장이 합쳐진 겹문장이다. '발에 땀이 나다'는 부사형 전성 어미 '-게'가 붙어 부사절이 되면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평가 기준

④와 ⑥ 모두 절의 종류와 기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④와 ⑥ 중 하나만 절의 종류와 기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8. ⑤는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갖는 대등적 연결 어미 'ㄹ'로 연결된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나머지는 모두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09. '양보' (㉠)의 의미 관계를 갖는 종속적 연결 어미는 'ㄹ'이다.
오답 풀이 ① 'ㄹ'은 원인, ② 'ㄹ'은 조건, ③ 'ㄹ'은 의도, ④ 'ㄹ'은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10. 'ㄹ면'은 '어떤 가상의 일이 사실로 실현되기 위해서는'이라는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평가 기준

절과 절을 이어 주는 요소를 찾고, 의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5점
절과 절을 이어 주는 요소만 찾고 의미 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1. 문장의 호흡이 짧아지면서 사건의 흐름과 인물의 감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12. '산타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선물하였다.'가 관형절로 안긴 문장이다. 이는 '관형어+주어+목적어+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므로 이 문장 안에 다시 종속절이 들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3. 전체 문장에는 ④의 '새가'가 생략되었으므로 ①이 적절한 설명이다.
14. ㄱ은 '관형어+주어+서술어[서술절(주어+부사어+서술어)]'로 이루어져 있고, ㄴ은 '주어+부사어+보어+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ㄱ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15. '해가 뜨기'는 명사절로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16. 현재 문법에서는 부사절의 위치가 전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의 사이에 들어 있으면 안은문장으로 처리하고 있다.
- 꽃이 피어서 마음이 흥겹다. →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
 - 마음이 꽃이 피어서 흥겹다. →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

평가 기준	
㉔와 ㉕ 모두 '꽃이 피어서'의 문법적 역할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㉔와 ㉕ 중 하나만 '꽃이 피어서'의 문법적 역할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3) 문법 요소

핵심 다지기

pp. 187~203

01. ④ 02. ⑤ 03. ② 04. 문장의 끝을 높인다. 05. ③
06. ② 07. ④ 08.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09. ④ 10. ⑤ 11. ③ 12. '있으십니다'를 '있습시다'로 고쳐야 한다. '있으십니다'는 '매장'을 높이는 표현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 13. ② 14. ② 15. ⑤ 16. 부사격 조사 '께', '드리다' 17. ③ 18. ⑤ 19. ③ 20. ②
21. ② 22. ① 23. ② 24. ③ 25. ⑤ 26. ④ 27. ⑤
28. 파생적 사동문: ㄱ, ㄴ, ㄷ, ㄹ / 통사적 사동문: ㄷ 29. ④
30. ④ 31. ⑤ 32. ㄱ. 영화가 어제 자기는 오늘 여기에서 과제를 할 거라고 말했다. ㄴ. 어제는 누나가 영수의 방을 보더니 "내일 손님이 올 것이니 깨끗하게 치워라."라고 말했다.

01.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문장은 청유문이다.
02. 상황에 따라 청유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도 ⑤의 종결 표현 방식은 의문문이다.
03. 일정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하는 것은 ㉔이다. ㉔은 여름 여행을 갈 시기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하는 것은 ㉕이다. 상황상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㉔ 감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문문이므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명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㉕ 동생에게 떡볶이를 사 올 수 있느냐는 질문이므로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한다.
04. 말할 때 무엇인가를 묻는 의문의 뜻을 나타낼 때는 문장의 끝을 올린다.

평가 기준	
문장의 끝을 올려서 발음한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가 한 공간에 없더라도 편지나 메시지 등 다양한 장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06. 격식체는 격식을 맞추어 말해야 하는 자리, 즉 공적인 자리에서 주로 사용한다. 사적인 장소에서 사용되는 것은 비격식체이다.

07. 할머니가 아빠에게 격식체인 '하계체'를 사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밥을 먹으러 같이 가자'고 청유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애비도 어서 오라'고 명령법으로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동생은 누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가족이고 남매라는 친밀감이 있으므로 '해체'를 사용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 ② 누나는 사적인 공간인 집이므로 엄마에게 해요체를 써서 높이고 있다. ③ 어머니는 '진지', '드시다' 등의 높임 어휘를 쓰고 종결 표현으로 '해요체'를 써서 상대이자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⑤ 아빠는 '가셨습니까'와 같이 '하십시오체'의 의문법으로 말하고 있다.

08. 격식을 갖춘 상황이며 청자를 보통으로 높인다고 하였으므로 격식체 중 상대를 보통으로 높이는 '하오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청유법으로 써야 한다고 했으므로 '~하시다'를 어미로 쓰면 된다.

평가 기준	
격식체 중 '하오체'를 청유법으로 고쳐 쓴 경우	5점
격식체 중 '하오체'를 사용했으나 청유법으로 고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9. '께'는 부사격 조사 '에/에게' 대신 사용하여 객체를 높이는 조사이다. 주격 조사 '이/가' 대신 높임을 표현하는 조사는 '께서'이다.

10. '저'는 자신을 낮춰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다.

11. 할머니의 신체의 일부인 '귀'를 높이는 표현 '밝으십니다'를 사용한 것은 간접 높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직접 높임이 사용되었다. ② '선생님, 진지, 잡수시다' 등의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는 직접 높임이 사용되었다. ④ 주격 조사 '께서', '주무시는' 등의 높임 표현으로 주체를 높이는 직접 높임이 사용되었다. ⑤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직접 높이고 있다.

12. 높여야 할 대상은 '고객'인데 '매장'을 높이는 표현이 되었으므로 높임법이 잘못된 표현이다.

평가 기준	
높임법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고, 그 이유도 바르게 서술한 경우	5점
높임법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쳤으나 그 이유 서술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3점

13. 목적이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㉔),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에서는 부사격 조사 '께' (㉔),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등의 특수한 어휘를 사용(㉕)해서 높임을 표현한다.

오답 풀이 ㉔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주체 높임법이다. ㉕ 화자가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대 높임법에 해당한다.

14.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객체가 있는지 먼저 찾고, 이를 높이는 특수한 어휘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②에는 목적어인 ‘어머니’를 높이는 표현인 ‘모시고’가 사용되었다.
15.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말을 하는 시점보다 앞서 있으므로 과거 시제이다.
16.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서술어 ‘주다’ 대신 ‘드리다’를 사용하여 ‘아저씨’를 높이고 있다.
17. 관형사형 어미 ‘-(으)ㄴ’의 경우 동사 어간에 붙을 때만 과거 시제이고, 형용사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붙으면 현재 시제가 된다.
18. ⑤의 ‘먹는’은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한 현재 시제이다.
19.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선어말 어미는 쓰지 않고 관형사형의 경우 어미 ‘-(으)ㄴ’을 사용한다.
20. 선어말 어미 ‘-더-’와 동사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과거 시제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21. ②는 선어말 어미 ‘-겠-’ 외에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어가 있어 미래 시제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과 ③은 추측, ④와 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겠’이다.
22.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23.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24. ‘간드리지다’는 ‘목소리나 뻤시 따위가 마음을 녹일 듯이 예쁘고 애교가 있으며, 멋들어지게 보드랍고 가늘다.’의 뜻을 지닌 형용사이다. ‘-어지다’가 붙어 피동의 형태로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단어의 모습 그대로 형용사로 사용된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능동사 ‘물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어 ‘물리다’라는 피동사가 되었다. ② 능동사 ‘굽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굽히다’라는 피동사가 되었다. ④ 능동사 ‘바꾸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바뀌다’라는 피동사가 되었다. ⑤ 능동사 ‘사용하다’에 피동 접미사 ‘-되다’가 붙어 ‘사용되다’라는 피동사가 되었다.
25. ⑤의 ‘형성되었다’는 체언 ‘형성’에 ‘접미사 ‘-되다’가 붙어 피동사로 파생된 경우이므로 파생적 피동문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깨+어지다’, ‘어두우+어지다’, ‘풀+어지다’는 모두 용언의 어간에 ‘-어지다’가 붙어 피동이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문이다.
④ ‘떨게 되었다’는 동사의 어간 ‘떨-’에 ‘-게 되다’가 붙어 피동이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문이다.

26.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 주동사가 형용사나 자동사일 때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되고, 주동사가 타동사일 때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27.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한 짧은 부정문이나 부정 용언 ‘못하다’를 사용한 긴 부정문은 모두 언어 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법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28. 사동 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지면 파생적 사동,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진 사동문은 통사적 사동문이다.
[파생적 사동]
ㄱ: ‘태우다’는 ‘타+이+우+다’로 사동 접미사 ‘-이-’와 ‘-우-’ 두 개가 붙어 사동사로 만들어졌다.
ㄴ: ‘읽히셨다’는 ‘읽+히+시+었+다’로 사동 접미사 ‘-히-’가 붙어 사동사로 만들어졌다. ‘-시-’는 높임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ㄷ: ‘숨졌다’는 ‘숨+기+었+다’로 사동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사로 만들어졌다.
ㄹ: ‘교육시켰다’는 사동 접미사 ‘-시키다’가 붙어 사동사로 만들어졌다.
[통사적 사동]
ㄷ: ‘부르게 했다’와 같이 ‘-게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사동문이다.
29. 인용 조사는 직접 인용절 다음에 ‘라고’를, 간접 인용절 다음에 ‘고’를 쓴다.
30.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인용하지만, 간접 인용은 내용만 끝어다가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 인용 표현을 자신의 말로 바꾸다 보면 지시 표현이나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문장 종결 표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부정 표현은 간접 인용으로 바꾼다고 해도 달라질 점이 없으므로 유의할 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 누나가 어제 나에게 “내일은 내 옷을 못 입으니 너희 동네 세탁소에 가져다줘!”라고 말했다.
→ 누나가 어제 나에게 오늘은 자기 옷을 입지 못하니 우리 동네 세탁소에 가져다주라고 했다.
⇒ 짧은 부정 표현을 긴 부정 표현으로 바꾸어도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

31. ⑤의 “오늘은 밥을 남기지 마라!”는 시간상으로 ‘어제’ 말한 것이므로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오늘은’은 ‘어제는(어제께는)’으로 바뀌 주어야 한다.
32. 시간 표현, 지시 표현, 인용 조사 표현에 유의하여 바뀌어야 한다.

01. ③ 02. ① 03. ② 04. • 고친 문장: “할머니께서 혼자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고친 이유: 주체 높임법으로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고, 용언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였다. 또한 남의 말을 높여 이를 때 사용하는 표현인 ‘말씀’으로 바꾸었다. 05. ① 06. ③ 07. ③ 08. ⑤ 09. ⑤ 10. ③는 철수가 조카에게 과자를 직접 먹여 주는 행위를 뜻하고, ⑥는 직접 먹여 주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먹이고 지시하거나 과자를 준비해 주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11. ⑤

01. ㉠은 아저씨가 어디 계신지 알려 달라는 질문이므로 설명의 문문이다.

02. ㄱ은 간접 높임이 사용된 표현이다. 아버님의 ‘말씀’을 높임으로써 ‘아버님’을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ㄴ의 ‘앉았어요’는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인 것이지 ‘누나’를 높인 표현이 아니다. ③ ㄷ의 ‘뵙다’는 문장의 객체, 즉 목적어인 ‘할아버지’를 높인 표현이다. ④ ㄹ의 ‘먹었습니다’는 상대인 청자를 높인 상대 높임법 중 격식체이다. ⑤ ㄹ의 ‘진지’, ‘잡수시다’는 주체인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상대를 높인 표현은 문장 종결 표현인 ‘~대요’에 드러나 있다.

03. ②의 ‘여쭙다’는 객체 높임을 표현하는 어휘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주격 조사 ‘께서’, ‘잡수신다’ 등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다. ③ 주격 조사 ‘께서’, ‘피곤하신지’, ‘주무신다’ 등은 모두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표현이다. ④ ‘보신’, ‘모르신다’ 등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⑤ ‘께서’, ‘만드신’, ‘주셨다’ 등은 주체인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04. 주체를 높이려면 주격 조사 ‘께서’, 선어말 어미 ‘-시-’ 등을 활용한다.

평가 기준	
‘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가 들어가게 고치고, 고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알맞게 고쳤으나 고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5.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①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탐구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동사 어간에 붙을 때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 사용될 때는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예 • 그 사람은 있는 지 오래되었어.
(동사 ‘있다’에 붙음. ⇒ 과거)
• 아기가 큰 옷을 입는다.
(형용사 ‘크다’에 붙음. ⇒ 현재 옷이 큼.)

③ ‘-르’는 관형사절로 안길 때 미래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특정한 시제의 의미가 없이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인 관형사형 어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은 문맥상 ‘학교에 갈 때’와 ‘눈이 내렸다’가 동일 시각임을 알 수 있고, ‘내렸다’에 이미 과거 시제로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앞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르’는 시제의 의미가 없이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의 서술어 ‘했다’에 사용된 시제 ‘-았-’은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표현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⑤ ‘-았었-/었었-’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06. 선어말 어미 ‘-겠-’이 ㉢은 미래, ㉣은 가능성이나 능력, ㉤은 의지, ㉥은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07. 염소가 밭의 채소를 먹는 행동이 진행 중이므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③이다.

08.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을 파생적 피동문이라 한다.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에 파생 접미사 ‘-이-, -히-, -리-, -기-’가 붙거나, 서술성을 가진 일부 체언에 ‘-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⑤의 서술어 ‘만나다’는 피동 접미사가 붙을 수 없다. ‘만나지다’, ‘만나게 되었다.’와 같이 ‘-어지다’나 ‘-게 되다’를 붙여서만 피동 표현이 만들어지므로 통사적 피동문으로만 바꿀 수 있다.

09. ㄹ에는 부사어가 ‘소년에게’와 ‘천천히’가 사용되었는데, 이들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사동문에서는 부사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⑤의 탐구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ㄱ은 접미사 ‘-시키다’를 붙인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이므로 파생적 사동문에 해당한다. ② ㄴ에서 형용사 ‘높다’는 사동 접미사 ‘-이-’를 붙여 ‘높이다’라는 사동사를 만들었다. ③ ㄷ의 ‘재우다’는 ‘자다’에 사동 접미사 ‘-이-’와 ‘-우-’ 2개가 붙어 사동사가 된 경우이다. ④ ㄹ의 ‘먹이다’는 ‘음식을 먹게 하다’의 의미에서 확장되어 ‘가축 따위를 기르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10. 파생적 사동문은 통사적 사동문과 비교하면 좀 더 직접적인 의미를 가진다.

평가 기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개념과 연결하여 ㉡와 ㉢을 행위의 의미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와 ㉢을 행위의 의미만을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1. 간접 인용 표현에서 자신의 말로 바꾸어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은 형식은 유지하지 않고 내용만 끌어다 쓴다는 것을 뜻한다. 즉, 화자의 상황에 맞게 지시 표현이나 높임 표현, 시간 표현, 문장 종결 표현 등을 적절히 바꾼다는 것일 뿐 내용을 다르게 바꿀 수는 없다.

01. ④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③ 07. ④
와 ⑥는 모두 두 홀문장이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
장이다. ③처럼 연결 어미 ‘-고’로 연결될 때는 앞 절과 뒤 절이 나
열의 의미 관계를 맺고, ⑥처럼 연결 어미 ‘-지만’으로 연결될 때는
앞 절과 뒤 절이 대조의 의미 관계를 맺는다. 08. ② 09. ⑤
10. ⑤ 11. ③ 12. ② 13. ③ 14. ③ 15. ③ 16. ④
17. ⑤

01. ③은 주어, ⑥는 관형어, ⑦은 부사어, ④는 부사어, ⑤는 서
술어이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들어가
므로 ③과 ⑤가 해당되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들어가므로 ⑥, ⑦, ④가 해당된다.
02. ㄱ의 서술어 ‘달린다’는 주어만 있어도 되는 한 자리 서술어
이다.
03. ㄱ에는 ‘나무가 거의 없다’가 서술절로 안겨 있으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ㄱ은 ‘관형어, 주어, 서술절(주어, 부사어, 서술
어)’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지만, ㄴ은 ‘주어, 부사어,
보어, 서술어’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ㄴ에는 명사절
‘바람이 불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붙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③ 부사어가 ㄴ에는 ‘벌써’, ㄷ에는 ‘어제’, ‘크게’ 등이
있지만, ㄱ과 ㄴ에는 없다. ⑤ ㄴ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고, ㄴ은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04. ㄴ의 부사어 중 ‘정말’은 문장 부사어, ‘분야에서’는 성분 부
사어이다.
05. ㄷ의 안긴문장 ‘동생과 달리’는 부사절로 서술어 ‘좋아한다’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
06. <보기>에서 설명하는 절은 ‘서술절’이다. ③에서 ‘웃음이 많
으시다’가 서술절로 안겨 주어인 ‘큰어머니께서는’의 서술어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두 개의 홀문장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
장이다. ② ‘내가 보던’이 관형절로 안겨 있다. ④ ‘그림이 아
름답게’가 부사절로 안겨 있다. ⑤ ‘그가 돌아오기’가 명사절
로 안겨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07. <보기>에는 두 개의 홀문장이 나열, 대조의 의미 관계를 갖
는 대등적 연결 어미로 이어지고 있다.

평가 기준	
문장 유형의 개념과 연결 어미에 따른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 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문장 유형의 개념만 서술하거나 연결 어미에 따른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만 서술한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8. ㄴ ‘장날에는 모두 같이 물건을 팔러 갔다.’
부사어 부사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위의 문장은 ‘주어’가 생략된 홀문장이다. 여기에서 ‘같이’는
‘함께’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이를 ‘모여’로 바꾸면

‘장날에는 모두 모여 물건을 팔러 갔다.’

부사어 부사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로 되면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종속적으
로 연결된 이어진문장, 즉 겹문장이 된다.

오답 풀이 ① ㄱ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겹문장이다. ③
ㄷ에는 ‘꽃이 피는’, ‘봄이 돌아오면’, ‘님이 오실’ 등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나타난다. ④ ㄴ에서 ‘영희가 요리했
음’이라는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⑤ ㄴ은 서술
절을 안고 있는 두 절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09.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인용절 뒤에 오는 조
사는 ‘고’를 사용한다. 따라서 ⑤는 ‘그는 별이 정말 아름답다
고 말했다.’라고 바꿔야 한다.

10. <보기>의 밑줄 친 부분 ‘동생도 모르게’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⑤의 ‘신이 다 닳도록’도 서술어 ‘돌아다닌다’를
수식하는 부사절이다.

오답 풀이 ① 관형절 ‘내가 읽던’을 가진 문장이다. ② 주어 기
능을 하는 명사절 ‘이 문제는 해결하기’를 가진 문장이다. ③
인용절 ‘저녁을 먹겠다’를 가진 문장이다. ④ 목적어 기능
을 하는 명사절 ‘아랫물이 맑기’를 가진 문장이다.

11. ③은 ‘노래를 잘 부르는 영희가 좋다’라는 서술절을 안은 문
장이다. 그런데 이 서술절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이라는 관
형절이 안겨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관형절이 서술절에 안겨 있지 않고 주어를
수식하고 있다. ② 부사절을 안고 있다. ④ 종속적으로 연결
된 이어진문장이다.

12. ②의 ㉠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려는 상황이므로 ‘입자’
는 ‘아이’, 즉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는 말이다. ⑥는 자신은
잠을 더 자고 싶으니 조용히 하라는 의도로 한 말이다. 따라
서 ‘잠시다’는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회의 시간이므로 발표를 하자는 것은 화자
와 청자 모두 행하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② 역시 전사회에
같이 가자는 말로 미루어 볼 때 화자와 청자 모두가 행하기
를 바라는 상황이다. ③ ㉠에서 ‘이 닦고 자자’는 청자와 화
자 모두 행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⑥는 청자만 행하기를 바
라는 행동을 나타낸다. ④ ㉠과 ㉡ 모두 청자만이 행하기를
바란다. ⑤ ㉠에서 ‘이야기하자’는 청자와 화자 모두 행하기
를 바라는 것이고, ⑥는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는 행동을 나
타낸다.

13. 할머니의 ‘머리’를 높이는 것은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
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법에 해
당한다.

오답 풀이 ① ‘계시다’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②
⑥는 말을 듣는 상대인 아들에게 한 말이다. -게, -구면은
격식체 중에서 상대를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의 표현에

해당한다. ④ ‘드리다’는 객체를 높이는 어휘이다. ⑤ 객체 높임법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여 객체를 높인다.

14. ③의 ㉓는 이모의 ‘병’을 ‘있으시다’로 높임으로써 이모를 높이는 간접 높임에 해당하고, ⑥는 ‘드시다’라는 높임 어휘를 사용하여 주체인 이모를 높인 직접 높임에 해당한다.
15. ‘-아 있다’는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동작 완료상이다.
16. ㄷ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이므로 서술어의 동작 대상, 즉 목적어는 ‘세상’이 된다.
17. ㉠은 단순한 부정, ㉡, ㉢은 상황이 적절하지 못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을 때의 부정이다. ㉣의 ‘안’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 부정을 나타내고, ㉤은 능력이 부족할 때에 사용된 것이다.

4. 담화

(1) 담화의 개념과 특징

핵심 다지기

pp. 219~222

01. ① 02. ④ 03. 환경 보호의 중요성, 환경 오염의 위험성 등
04. ② 05. ⑤ 06. 지시 표현: ㉠, ㉢ / 대용 표현: ㉡, ㉤, ㉣ 07. 동일 어휘의 반복, 대용 표현, 접속 표현 사용

01. 담화는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구조체이므로,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발화가 모여야 한다.
02. (나)를 보면 담화 내의 발화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유기적으로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3. 제시된 발화들은 모두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발화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특정 대상과 청자와의 멀고 가까운 거리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은 지시 표현이다.
05. 각 발화는 국제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성과를 내는 것에 대한 감탄과 그 이유를 분석한 내용으로, 발화 상황들 사이에 시간적 순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우리나라’, ‘성과’ 등의 어휘가 반복되고 있다. ② ‘또한’이라는 접속 표현이 사용되었다. ③ ‘이런’, ‘이는’ 등의 대용 표현이 사용되었다. ④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내는 이유’를 주제로 각 발화가 연결되고 있다.
06. 가리키는 내용이 앞에서 언급되었다면 대용 표현이고, 언급

된 적이 없으면 지시 표현이다.

07. ‘산책로’라는 어휘의 반복, ‘그곳’이라는 대용 표현의 사용, ‘그러나’라는 접속 표현의 사용으로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평가 기준	
동일 어휘의 반복, 대용 표현, 접속 표현 등의 세 가지 요소 모두 찾은 경우	5점
세 가지 요소 중 두 개를 찾은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등	-1점

소단원 적중 문제

pp. 225~227

01. ② 02. ④ 03.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발표하는 상황(사람들이 자신의 운동 방법을 이야기하는 상황)
04. ⑤ 05. ③ 06. ① 07. ② 08. ③ 09. ② 10. ②

01.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화들이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일정한 상황 속에서 발화가 이루어져야 통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2. <보기>에 제시된 사람들은 역경을 이기고 일궈 낸 성공의 대가로 부와 명성 및 사람들의 존경을 얻었다.
03. <보기>에 나타난 발화를 통해 각 사람은 운동법을 알 수 있으므로 담화의 상황을 운동 방법, 또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보면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연결하여 적절한 담화가 될 수 있다.
04. ㉠의 앞부분은 경험보다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며 이 최고의 진리라 믿고 살아간다는 내용이며, 뒷부분은 직접 체험한 것 즉 경험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자각한다는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앞뒤가 상반된 내용의 흐름이므로 ㉢에는 ‘그러나’와 같은 역접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대용 표현과 지시 표현은 모두 ‘이’와 ‘그’ 계통의 대명사 모두 사용한다.
06. ㉢는 뒤에 오는 담화 내용(요즘 유행하는 노래에 다 같이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을 가리키는 대용 표현이다.
07. 1연에서는 서른다섯 될 때까지 애기똥풀을 모르고 살았던 화자와 그런 화자를 해마다 쳐다보았을 애기똥풀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으므로 ㉠에는 역접 관계를 드러내는 접속어를 넣는 것이 자연스럽다.
08. 동일한 어휘 또는 표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응집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09. <보기>의 주제는 ‘지계의 순박함’인데, ㉢에 ‘보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10. 예를 들어, ‘딸기’, ‘떡’, ‘뽕’을 넣었을 때 대화로 바꾸면,

아이: 아빠, 나 ㉠ 이거(딸기) 먹어도 돼?
 아빠: 안 돼. ㉢ 그건(딸기) 할머니 드릴 거야. ㉡ 그거(딸기) 말고, ㉣ 이거(떡) 먹어.
 아이: 싫어. ㉤ 그건(떡) 맛있단 말이야. 차라리 ㉠ 저걸(뽕) 먹을래.
 아빠: 그래 그럼 ㉢ 그거(뽕) 먹어. ㉣ 그건(뽕) 누나 간식인데. 누나는 ㉠ 이거(떡) 주지 뭐.

처럼 바꿀 수 있다.

(2) 담화의 맥락과 효과적인 국어생활

핵심 다지기

pp. 229~232

01. ④ 02. ⑤ 03. 담화의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을 살핀다. 04. ⑤ 05. ⑤ 06.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아, 발화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1. (나)에 따르면, 담화에서 앞 발화에서 언급된 경우 바로 이어진 뒤 발화에서 생략되어도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철수는 순희가 어떤 영화를 보는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순희가 볼 영화가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을 모두 서술한 경우	5점
둘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04. 지시 표현, 높임 표현, 생략 표현 등이 나타내는 의미나 화자의 심리적 태도는 담화 맥락과 상황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05. ⑤의 “괜찮습니다.”에 담긴 화자의 의도는 겸손히 사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제안을 거부한다는 의미라기보다 한 번쯤 거절하는 우리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된 발화로 볼 수 있다.

06. 청자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발화 의도를 추측해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알맞은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맞춤법이 어긋난 경우	3점

소단원 적중 문제

pp. 236~237

01. ③ 02. 저는 철수를 못 봤는데요. 03. ④ 04. ② 05. ④
 06. ①

01. 담화에서는 언어적 맥락과 상황 맥락 모두가 중요하며,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가)에서 찾을 수 없고 사실과도 다르다.

02. 담화의 언어적 맥락의 보았을 때 주어 ‘저는’과 목적어 ‘철수’가 생략되어 있다.

03. <보기>의 시는 임이 가지 못하도록 실제로 매일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담긴 시이다. 따라서 ‘내 마음에’ 비가 내린다는 은유적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리오소서’의 주체는 ‘비이므로’ ‘비가’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리오소서’ 앞에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더하는 부사 ‘부디’를 넣을 수도 있다. ③ 앞에 쓰인 ‘나리오소서’로 볼 때 용언 ‘오소서’ 앞에 어근 ‘나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가 비가 계속 오기를 바라는 것은 ‘임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04. ②는 특별한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진술에 해당한다. 나머지의 예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담화의 맥락 이해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다.

05. ㉠의 경우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더라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천천히 해.” 등과 같이 상황 맥락을 고려한 대답을 하였다면 의사소통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06. <보기>의 상황은 ‘인간관계’에 대한 관념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지 않다.

중단원 실전 문제

pp. 238~241

01. ⑤ 02. ⑤ 03. ④ 04. ⑤ 05. ① 06. 대용 표현은 화자 또는 청자의 말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가리킬 때 쓰인다는 점에서 지시 표현과 구별된다. 07. ② 08. ⑤ 09. ③ 10. ㉠은 인사를 대신하여 표현한 발화이고, ㉣은 몸은 괜찮은지(또는 병원 생활이 불편하지는 않은지)를 묻는 표현이다. 11. ⑤ 12. ①
 13. ⑤

01. 담화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맥락은 물론 비언어적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언어적 맥락이 주 요소가 되고 비언어적 맥락이 부차적 요소가 된다는 말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남편이 집으로 퇴근해 들어오며 방의 바닥이 차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볼 때 아내에게 보일러를 켜서 방의 온도를 올리라는 요청의 의도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3. ④는 부모가 어린 동생의 아이스크림을 빼앗은 형을 질책하는 의미가 있는 발화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는 실제 청자의 연령을 묻는 발화이다.

04. 이 글에서 담화 내의 내용 표현에 사용되는 대명사는 지시 표현에 사용되는 대명사 가운데 주로 '이'와 '그' 계통의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잘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05. ㉠의 밑줄 친 '첫째, 둘째, 셋째'는 발화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접속 표현으로, 발화의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를 나타낸다.

06. (라)에서 화자와 청자로부터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표현과 어떠한 구별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알맞은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07.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으므로 '그런데'가 적절하다.

08. 발화 ㉠에는 자신도 학교에 늦게 되어 지각할 것 같아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상황 맥락에 맞는 적절한 발화이다.

09. <보기>의 대화에서 두 사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차린 게 많은데도 이를 두고 겸손이나 겸양의 의미로 차린 게 없다고 말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외국인이 이해하지 못해서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화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같은 내용의 발화라 할지라도 발화 상황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평가 기준	
알맞은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1. 담화의 통일성은 내용적 측면에 해당하고, 담화의 응집성은 형식적 측면에 해당한다.

12. "배고파 죽겠어."는 1인칭 주어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3인칭 주어의 상태를 추측하는 표현이다.

13. 한 담화 안에서 앞의 발화 내용을 통해 뒤의 발화에서 생략된 성분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이 아닌 언어적 맥락에 의한 것이다.



III.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1. 매체 언어의 특성

(1) 정보의 구성과 유통 방식

핵심 다지기

pp. 247~251

01. ① 02. ② 03. ⑤ 04. (가)에 비해 (나)는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 (가)에 비해 (나)는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소통의 대상을 쉽게 확대할 수 있다. 05. ① 06. ④ 07. 뉴스는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배치하기 때문에, '선물' 뉴스는 구성 순서 중 세 번째로 중요한 뉴스거리이다.

08. ⑤

01. (가)는 문자를 중심으로 스메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스메시 동작에 대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나) 역시 문자를 통해 스메시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으며, 댓글을 쓰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프로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가)는 인쇄 매체인 책이므로 음성이나 동영상 상용할 수가 없다.

02. (가)는 두 번째 문단에서, (나)는 '스메시를 하는 방법은 ~'에서 스메시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스메시의 개념은 (가)에만 언급되어 있다. ③ 스메시의 공격 조건은 (가)에만 언급되어 있다. ④ 스메시의 장단점은 (가)에만 언급되어 있다. ⑤ 스메시를 해야 하는 상황은 (가)에만 언급되어 있다.

03. (가)는 인쇄 매체로 아날로그 매체에 속하고, (나)는 인터넷 매체로 디지털 매체에 속한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반인들도 쉽게 정보의 제공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쉽다. 따라서 접근성이 아날로그 매체보다 약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매체인 (나)가 인쇄 매체인 (가)보다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②, ④ (나)는 (가)에 비해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의 범위가 넓고 접근만 한다면 누구나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어서 그만큼 신뢰성이 약하다. ③ 인터넷 매체인 (나)는 디지털 매체의 형태로 보존되므로, 대량 복제와 배포가 상대적으로 쉽다.

04. (가), (나) 모두 매체를 통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만, 그 소통 양상에 차이가 있다. (나)

매체에만 있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등의 기능을 보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빨리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통의 대상을 쉽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평가 기준	
인쇄 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소통 양상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한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지만, 맞춤법이 어긋난 경우	-1점

05. 이 신문 기사에서는 ‘선플 달기 운동’의 사례와 경과, 그리고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을 뿐, ‘선플 달기 운동’을 시작한 계기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기사 본문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선플 달기 운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학교 폭력 역시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언어 습관의 개선, 학교 폭력의 감소 등은 ‘선플 달기 운동’의 긍정적 효과로 볼 수 있다. ④ 기사 본문의 마지막 문단에서 봉사 활동 시간과 상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기사 본문의 첫 번째 문단에서 ‘선플 달기 운동’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6. 인터뷰 내용이 모두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뉴스의 제목인 ‘아름다운 댓글, ‘선플’로 사랑’과 고등학생의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글과 아름다운 행동으로’를 보면 맥락상 선플 운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뉴스의 시각과 일치하는 입장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아나운서는 뉴스 첫머리에서 선플과 관련된 개괄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② 기자는 선플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③ 기자의 말을 통해서 교육부 조사 결과가 통계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⑤ 뉴스 화면을 보면 아랫부분에 주요 내용을 자막을 통해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 방송 뉴스는 특성상 각 뉴스거리가 차례대로 제시되기 때문에 수용자는 선택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이 큰 정보일수록 뉴스의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성 순서에 반영된다.

평가 기준	
편성 순서와 중요도의 상관성과 ㉠의 경우를 모두 설명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지만, 한 문장 이상인 경우	3점

08. 신문은 인쇄 후 독자들에게 배포되므로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즉각적인 상호 소통은 불가능하다.

오답 풀이 ① 텔레비전은 동영상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문과 비교하면 정보의 실재감이 높다. ② 신문은 인쇄된 다양한 기사가 지면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 중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③ 텔레비전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해서 신문보다 시간적 제약성이 있다. ④ 텔레비전은 즉각적인 방송 송출이 가능하므로 신문보다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빠르다.

(2) 표현의 창의성과 심미적 가치

핵심 다지기

pp. 253~255

01. ④ 02. ③ 03. ③ 04. ④

01. (가)는 증강 현실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실제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성격을 갖긴 하지만 인간의 습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증강 현실을 통해 호랑이를 등장시킨 건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삶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⑤ 호랑이가 도심에 출현하는 것은 일상에 있을 법한 상황이 아니며, 현대인의 현실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02. (나)의 인쇄 매체인 공익 광고는, 전하려는 메시지가 ‘종이’와 관련되었고 ‘폐지를 재활용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하지만 문자 없이 사진만으로 찢긴 느낌을 준다면, 정확하게 ‘폐지 재활용’을 연상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문자를 지우더라도 전하려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인쇄 매체로 전달된 광고이다. ② (나)는 공익 광고로, 공익 광고는 공중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④ 찢어진 종이가 시작되는 부분이 자동차의 배기관 부분이고, 광고 문구 역시 CO₂ 배출에 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03. 딸을 구하기 위해 별에 구멍을 뚫어 별을 메마르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장면 ㉠)을 통해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엿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장면 ㉠과 ㉡에서 생명의 별로 변하는 모습이 제시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② 전체 맥락상 인간이 자연을 정복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아버지는 딸을 위해 별에 구멍을 뚫고 있으므로,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 ⑤ 제시된 장면에서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04. 이 작품은 인물의 대사 없이 배경 음악과 인물의 행동만으로 서사가 진행되므로, ㉠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작품 후반부의 따뜻한 색감은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대사가 없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배경 음악은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별에 구멍을 뚫는 아버지의 행동에서 작품의 주제 중 하나인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엿볼 수 있다. ⑤ 대사가 없는 가운데 인물의 표정은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01. ② 02. ② 03. 댓글 04. ⑤ 05. ② 06. ③ 07. 방송 뉴스는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문자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 기사와 비교하면 제시되는 정보에 대한 실재감이 높은 편이며, 정보 전달의 속도도 신문 매체보다 빠르다.
08. ⑤ 09. ② 10. ④ 11. ⑤ 12. ① 13. ⑤

01. (가)와 (나) 모두 배드민턴 기술 중 스매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동영상 자료는 (나)에만 나타나 있다. ③ 사진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 것은 (가)이다. ④ 하이퍼링크는 (나)에만 나타나 있다. ⑤ 통계 자료는 (가)와 (나) 모두에 나타나 있지 않다.

02. 정보 제공자의 범위는 인쇄 매체인 (가)보다 인터넷 매체인 (나)가 더 개방적이고 넓다.

오답 풀이 ① 인쇄 매체인 (가)보다 인터넷 매체인 (나)가 대량 복제와 배포가 용이하다. ③ (나)는 누구나 정보 제공자가 될 수 있어, 정보 제공자의 범위가 폐쇄적인 (가)에 비해 정보 제공자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④ 정보 제공의 속도는 인터넷 매체가 가장 빠르다. ⑤ (가)는 인쇄 매체이고, (나)는 디지털 정보 매체이다.

03. (나)의 게시물 밑에 '댓글' 기능은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04. (가)를 보면 '선플 달기 운동' 후 비속어를 일상어처럼 쓰던 학생들의 언어 습관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아나운서의 언급에서 알 수 있다. ② (나)의 선플 자원 봉사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와 (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기자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5. 신문의 경우 방송과 달리 전체 내용을 미리 개관하거나 독자가 원하는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표제와 부제는 신문 기사에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요소이다. ③ 통계 수치를 기사문으로만 표현하는 것보다 (가)처럼 그래프를 이용한다면 정보 전달의 효과가 높아진다. ④ 신문 기사와 같은 인쇄 매체 자료에서는 필요에 따라 글자의 크기와 모양, 색 등을 다르게 하여 정보의 중요도를 표현할 수 있다. (가)에서도 표제와 부제, 본문의 글자 크기와 모양이 차이를 찾을 수 있다. ⑤ 기사의 경우 전체 신문에 실린 면이 몇 번째 면인지, 또 기사가 차지하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변별된다. 1면에 실린 기사일수록, 차지하는 면적이 클수록 중요한 기사라고 볼 수 있다.

06. 텔레비전 뉴스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한 꼭지의 뉴스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의 분량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선플 봉사단 발대식'과 같은 현장 화면을 이용하여 정보의 실재감을 높이고 있다. ② (나)와 같은 텔레비전 뉴스는 동영상과 아나운서의 음성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핵심 정보는 자막에서 문자로 한 번 더 강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인터넷과 비교하여 텔레비전 뉴스는 정보 제공자가 방송국에 소속되어 있는 뉴스 제작자로 한정되어 있고, 인터넷보다는 그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⑤ 텔레비전의 뉴스가 여러 주제의 뉴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나)의 뉴스가 전체 뉴스에서 나오는 순서나 차지하는 분량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

07. 신문 기사는 문자를 중심으로 그림이나 사진 등 보충하여 정보를 구성한다. 반면, 방송 뉴스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음성, 문자,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복합적인 매체 언어를 활용하여 실재감이 높다. 또한, 신문 기사는 인쇄 매체이고, 방송 뉴스는 전파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의 속도는 방송 뉴스가 우위에 있다.

평가 기준	
실재감이 방송 뉴스가 더 높고, 정보 전달의 속도도 방송 뉴스가 빠르다고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	3점

08. (가), (나) 모두 광고에 속하지만, 특정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도시에 호랑이가 출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가)에서는 이를 증강 현실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② (가)는 상황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반응을 살피는 방식으로 촬영된 것이다. ③ 문자 언어가 쓰인 여백 부분이 마치 찢어진 종이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왼쪽 사진의 차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재치 있게 보여 주고 있다. ④ (나)는 사진의 이미지와 문자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9. 광고의 내용이 일상에서 벌어지기 힘든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사람들의 일상이 권태로운지 알 수 없으며, 광고에서 연출한 상황이 실제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광고를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없다. ④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기 위해 호랑이를 등장시킨 것은 아니다. ⑤ 도시에 호랑이가 출몰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던 미래는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나)는 찢어진 종이와 배기가스의 유사성을, <보기>는 화분과 종이를 포개놓은 형상의 유사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둘 다 포스터 광고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이다. ② (나)는 폐지 재활용을, <보기>는 폐지를 포함한 자원의 재활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③ (나)에는 화물차에 실린

목재와 찢어진 종이를, <보기>는 신문지와 나무를 소재로 하고 있다. ⑤ (나)는 종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배기가스를 내뿜는 것과 같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보기>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자연 사랑의 밑거름이 된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11. 땅 위에 얹어진 어항 속 물고기는 별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점에서 인물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지 인물들의 좌절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메마른 땅이었던 별에 새싹이 돋아나 그것이 온 별을 덮은 모습은 다시 살아나는 별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별에 구멍을 파는 아버지의 굳은 얼굴은 딸에 대한 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어항이 비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상징인 물이 없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거친 행동은 각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④ 황폐한 별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전반부는 차갑고 어두운 색감이 사용되고 있고, 별에 생명력이 생겨난 후반부에는 따뜻하고 밝은 색감의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다.

12.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온 문자를 받고 반가움을 느낀 것은 상황 맥락에서 오는 감정이지,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가 구현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13. ㉠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한다면 매체 자료에 구성되는 자료와 의미들의 상징이나 패러디 등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매체 자료에 담긴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는 매체 언어가 수용자들의 정서를 자극하여 감동을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매체 언어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수용자들에게 전달 효과를 높이는 행위로 매체 언어의 심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1) 매체로 만나는 너와 나

핵심 다지기

pp. 265~270

01. ① 02. ② 03. ④ 04. ③ 05. 한 번 더 상대의 입장이 되어 소통한다. /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06. ④ 07. ④ 08. ⑤ 09. ④

01. (가)~(다)는 모두 친교적 매체 자료로서 매체를 매개로 한 소통을 통해 친밀한 감정과 정서를 공유할 목적을 갖는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는 대화 당사자가 지정한 대상과 소통을 한다. ③ (가)는 (나), (다)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④ (가)는 (나), (다)에 비해 메시지가 전달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⑤ (가)는 디지털 매체 기기가 아니더라도 생산할 수 있다.

02. (다)는 누리 소통망(SNS)으로,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신속하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03. 온라인 친목 카페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고양이 친목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고양이의 좋아하는 면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다른 고양이의 모습도 보면서 카페 구성원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고,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입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인터넷 친목 카페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정보나 정서를 공유하는 목적의 온라인 장소이다. 또 온라인의 특성상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인터넷 친목 카페의 목적이라 볼 수는 없으며, 본문의 고양이 친목 카페처럼 정해진 규칙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인터넷 친목 카페는 가상 세계에 있는 장소이다. ②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④ 인터넷 친목 카페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 쉽다. ⑤ 제시된 카페를 보면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됨을 유추할 수 있다.

05. (3)의 게시물 화면을 보면, 카페 가입 목적을 상기시킨 후 인터넷 친목 카페에서 활동할 때의 바람직한 자세를 말하고 있다.

평가 기준	
(3)의 사례에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상대의 입장이 되어 소통하자는 것을 서술한 경우	5점
포괄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서술한 경우	3점

06. 누리 소통망은 때로는 공적인 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친교적 표현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누리 소통망은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② 누리 소통망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즉각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정보 전달 속도가 대체로 빠르다. ③, ⑤ 디지털 매체에서 글이나 사진과 같은 파일의 복제와 유통은 비교적 자유롭고, 그렇기에 많은 사람과 내용을 공유할 수 있어 그 파급력이 크다.

07. 여행에 관심을 둔 친목 카페에서 해외 여행지의 위험한 곳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사이버 불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나 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참고될 수 있는 정보 전달 텍스트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집단 괴롭힘으로 특정인의 개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언어폭력, 악성 소문 생산 등의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08. 영상 편지를 받을 수신자에 대한 분석이나 다른 영상 편지의 구성은 참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반응을 조사하는 것은 제작 과정에 넣을 필요가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영상 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 편지의 수신자와 주제를 선정하고, 영상 편지의 대본을 작성한 후, 대본을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한다. 마지막으로 영상과 대본에 어울리는 음악이나 자막 등을 삽입하여 영상을 편집한다.

09. 기존의 영상 제작물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똑같이 흉내 내는 것은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영상 편지는 영상 편지를 보내는 주제나 목적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상대방에게 정서적으로 공감을 얻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③ 친교적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수신자와의 정서적 교감은 가장 중요하다. ⑤ 영상을 도와주는 다양한 매체 효과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내용과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2) 매체로 주고받는 정보

핵심 다지기

pp. 272~277

01. ④ 02. ② 03. ② 04. ⑤ 05. ③ 06. 공정성, 정확성
07. ⑤ 08. ⑤

01. (가)와 같은 신문 기사에 제시된 사실과 더불어 기자의 해석이나 의견을 덧붙일 수는 있지만 제시된 사실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표제는 기사 전체 내용을 축약하여 제시해야 한다. ② 표제로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내용은 부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다. ③ 기사의 전체 내용을 몇 문장으로 요약하여 본문을 읽지 않고도 그 내용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전문이라고 한다. ⑤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인터뷰는 기사의 정보가 갖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된다.

02. (가)는 모기가 사라진 이유에 관한 신문 기사이고, (나)는 승선교의 과학적인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다)는 요리 방법을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그로 모두 독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03. (가)와 (다)는 모두 문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문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나)는 동영상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③ (나)는 동영상, 문자, 이미지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이 가능하지만, (가)는 문자와 이미지 정도만 활용할 수 있다. ④ 인터넷 블로그인 (다)는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손쉽게 해당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⑤ (다)는 시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지만 (나)는 시공간적 제약을 어느 정도 받는다.

04. 정보의 수용은 수용자 자신에게 유용한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② 정보 수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자에게 정보가 유용한 것인지 여부이다. ③ 정보의 유용성은 곧 현실에서 활용 가능한지와 연관된 것이다. ④ 주어진 정보가 거짓인지, 혹은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일은 바른 정보를 수용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05. 버섯의 구분은 탐방객이 아닌 단속반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방송 뉴스에서 아나운서는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② 자막은 뉴스에서 제공되는 핵심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거나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④ 세 번째 화면에서 버섯의 사진을 통해 독버섯과 식용 버섯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⑤ 기자는 버섯을 무단 채취해 섭취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06. 활동 (4)에서 뉴스와 같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자료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요건은 공정성과 정확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7. 맞벌이 가정에서 육아하는 방법은 학생에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므로 학급 신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입시나 진로, 적성과 관련된 정보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이므로, 학급 신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학급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은 학급 신문에 들어갈 유용한 정보이다. ④ 학급 운영의 주체로서 담임 선생님의 학급 운영 방침에 대한 정보는 학급 구성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학급 신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08.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학급 신문에서는 예상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가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창의적인 내용으로만 구성한다면 예상 독자에게 유용하지 못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도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② 신문을 제작하는 목적에 따라 기사의 내용과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신문에서 기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배치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자료의 제공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기사의 유용성은 수용자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므로, 학급 신문의 수용자인 학급 구성원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루었는지는 평가의 주요한 항목이 된다.

(3) 매체로 설득하다

핵심 다지기

pp. 278~285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⑤ 06. ⑤ 07. ①
08. ② 09. ⑤ 10. ②

01. 필자는 예습보다 복습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복습의 단점을 들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어린 시절 자신이 배운 내용이나 자신의 공부 체험을 제시하고 있다. ③ 복습의 장점으로 자신이 배운 것을 더 잘 이해하고, 배운 것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는 것을 들고 있다. ④ 예습이 집단적인 선행 학습으로 확장되는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 ⑤ 마지막 부분에서 질문의 방식으로 통해 독자의 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02. (가)는 시사 평론이고, (나)는 공익 광고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설득하는 데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나) 모두 미적인 아름다움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다. ② (나)는 부분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염두에 둘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③ (가)~(나)가 담고 있는 내용이 수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일 수는 있으나 생산자의 주관적 의견이 들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④ (가)~(나)의 내용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도움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동영상과 자막, 음성 등 다양한 매체 언어를 사용하여 모금을 권장하는 발신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③ 마지막 내레이션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감사 인사를 전하는 어린 이와 어르신의 모습 등을 제시하여 우리가 도울 구체적인 대상을 알려주는 것이다. ⑤ 화면 앞으로 다가와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를 받는 대상으로 시청자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04. 제시된 자막은 '취약 계층 맞춤형 지원', '의료 소외 계층 지원', '긴급 재난 구호'로 이는 모금된 기금으로 사용될 분야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모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②, ⑤ 모금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감사 인사는 내레이션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③ 모금 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표어는 제시되지 않았다.

05. '청양고추 할인 경품 행사'를 통해 어떤 행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떡거리, 즐길 거리'에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06. (나)는 감사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는 축제 명칭과 '가자, 청양으로!'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다)에는 특별히 유머가 느껴지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와 (다)에는 전문가의 평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에 등장하는 배우가 유명인일 수는 있지만 (다)에는 유명인의 이미지가 제시되지 않았다. ④ (다)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07. 마지막 장면(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광고는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광고에서 자원 파괴와 관련된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⑤ 도움이 이 광고의 핵심 내용은 아니다. ④ 자원 재활용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자원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와 연결되겠지만, 이 광고의 내용이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8. 이 광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막은 상황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깊은 인상을 심어주거나 시청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있지 않다.

09. 사건·사고는 부정적인 내용으로, 홍보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④ 학교의 우수한 교육 시설이나, 면학 분위기, 대학 입학 실적,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등은 학교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학교 홍보에 포함되기에 적절하다.

10. 학교 홍보 대상이 교내 구성원이 아니라 학교에 관심을 두고 있는 외부인들이므로, 그들이 볼 수 있는 인쇄된 포스터 광고가 가장 적절한 매체가 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학교 신문이나 학급 인터넷 카페, 교내 방송은 주로 학교 구성원들이 접하는 매체이므로 외부인들에 대한 홍보 매체로는 적절하지 않다. ④ 라디오 광고는 불특정 다수가 청취하기 때문에, 학교 홍보는 될 수 있어도 <보기>의 대상과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매체는 아니다.

(4) 매체로 빛은 예술

핵심 다지기

pp. 286~292

01. ② 02. ④ 03. ⑤ 04. ② 05. ③ 06. ③ 07. ③
08. ②

01. 웹툰은 매체 특성상 독자와의 빠르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지만, 친교에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주로 만화의 이미지와 문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③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에 따라 동영상이나 음성, 음향 효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웹툰은 웹(Web),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만화를 인터넷 공간에 올리

는 방식으로 작품을 배포하며, (가) 작품에 표시된 회차처럼 일정 기간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연재한다. ⑤ 인터넷상에 작품을 올리고, 독자와 소통을 하므로 즉각적으로 독자가 참여하고, 작가는 이를 반영하여 다시 작품을 만드는 쌍방향적 소통의 특징을 갖는다.

02. 인쇄 매체로 접할 때는 문자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로만 시를 감상하게 되지만, (나)와 같은 동영상과 듣기 자료인 경우 시각과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매체를 달리한다고 해서 시적 변용이 더 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② 매체를 달리했다고 해서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시가 지닌 의미가 풍부해지는 것은 다양한 경험이나 이미지의 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매체를 달리했다는 것만으로 시의 의미가 풍부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⑤ 인쇄 매체는 문자로만 되어 있으므로 상상력은 인쇄 매체로 감상하는 것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03. (다)의 작가가 마블링 아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누리 소통망(SNS)에 올리며 수용자와 소통하고는 있지만, 작품을 작가와 수용자가 함께 만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작품 자체가 고흐의 작품을 다른 기법으로 그려낸 것이기 때문에 고흐의 작품과 비슷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② 에브루 기법 자체가 물 위에 기름 성질의 형형색색 물감을 뿌려놓은 것이어서, 그렇게 창작된 작품에서 환상적인 느낌이 들 수 있다. ③, ④ 작가가 작품 및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누리 소통망(SNS)에 올린 것을 보면 작가가 다른 사람들과 작품을 공유하고자 함을 알 수 있으며, 그 과정 역시 심미적으로 느낄 수 있다.

04. (가)는 웹툰, (나)는 시 낭송 영상 자료와 듣기 자료, 그리고 (다)는 마블링 아트 비디오로 이들 세 작품은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매체 자료이므로, 아름다움을 통한 정서적 고양이나 공감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답 풀이 ① 부분적으로 정보가 전달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창작의 목적은 아니다. ③ 작품 속에 작가의 의견이나 주장이 들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창작의 목적은 아니다. ④ 예술 작품의 창작 목적으로 일상생활의 편리함 제공은 어울리지 않는다. ⑤ 예술 작품을 통한 정서적 공감은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친밀한 교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창작의 목적은 아니다.

05. 제시된 장면은 가장 살고 싶은 순간으로 아름이 소소한 일상의 장면들을 떠올리는 것으로, 작품의 제목인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제목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에서 두근두근함을 느끼는, 그래서 그 순간들을 소중하게 느끼는 삶이 될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제시된 장면에 가족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에 대한 내용으로 모든 장면이 수렴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제시된 장면은 특별

한 일이기보다는 일상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들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운명 같은 사람’은 제시된 장면과 연관성이 적다. ⑤ 제시된 장면에서는 긴장된 순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6. 이 작품은 작고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작고 소소한 것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것의 소중함은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제시 장면 중 엄마, 아빠 그리고 손주를 부르는 할머니의 소리라고 말한 부분을 보면 아름이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순간들을 나열함으로써 누군가에게 그 일상이 소중한 것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다. ④ 제시된 영화 첫 장면에서 서하의 물음과 이어지는 아름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다. ⑤ 서하의 물음에 아름이 대답하는 장면 이후부터 아름의 대사에 맞추어 회상 장면을 나열하여 살고 싶어지는 때를 보여주고 있다.

07. 심미적 매체 자료는 다른 사람과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용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랩은 라임과 플로를 통해 리듬감을 만들어 내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를 살리기 위해 각운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활동의 주제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가사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가사를 쓰는 것은 결국 랩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가사를 만들 때 미리 활용할 비트를 염두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⑤ 심미적 매체 자료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정서적인 교감을 중시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8. 스토리보드는 주요 흐름과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므로, 주요 흐름보다 배경이나 소품을 자세히 적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스토리보드는 뮤직비디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지를 보여주는 계획표이므로 뮤직비디오에 어떤 소리나 대사를 삽입할 것인지, 해당 장면을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에 대해 표시해 놓아야 한다. ③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는 뮤직비디오의 전체적 흐름을 스케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01. ⑤ 02. ④ 03. ① 04. ③ 05. ⑤ 06. ⑤ 07. ⑤
08. (다)에서 독버섯과 식용 버섯의 사진을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으로 두 버섯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09. ⑤ 10. ⑤ 11. ④ 12. ② 13. (나)는 공익적 목적으로 생산된 광고임에 비해, <보기>는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된 광고이다.
14. ② 15. ⑤ 16. ⑤

01. (가)는 손 편지로 편지의 수신자인 엄마와, (나)는 누리 소통망(SNS)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불특정 다수와, 그리고 (다)는 고양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회원들과 친밀한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비교적 시공간적 제한이 없으나 (가)는 시공간적 제한이 많다. ② (나)는 누리 소통망(SNS)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와 내용을 공유한다. ③ (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가)는 전자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02. '카페 가입하기'는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제한 없이 공유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편지를 읽을 대상을 '우리 엄마'로 지정하고 있다. ② 해시태그는 게시글의 핵심어나 주제 분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게시글의 성격이나 내용이 어떻게 분류될지 파악할 수 있다. ③ 그림말(이모티콘)은 문자 언어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감정과 느낌을 표현한다. ⑤ ㉠은 자신의 관심사나 특성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03. <보기>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험담이나 비방을 담은 글을 자제하자는 공지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카페에 글을 쓸 때는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자신의 솔직한 느낌을 적되, 그것이 상대를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라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④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일을 일명 '도배'라고 하는데, <보기>의 관리자는 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⑤ 예의를 갖추었다면 카페의 활동은 활발하게 하는 것이 좋다.

04. 누리 소통망(SNS)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므로 오프라인에서의 친교적 기능을 강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공간의 제한이 없어 인간관계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인터넷 공간의 가장 큰 폐해 중 익명성은 누리 소통망(SNS) 사용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글이나 이미지 등을 통한 매체 정보가 급속하게 퍼질 수 있다.

05. 누리 소통망(SNS)에 게시한다는 것은 다수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일대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이나 자막, 영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영상 편집 제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의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③ 윤리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④ 창의적이고 재치 있는 내용 구성은 수용자의 흥미를 끌기에 효과적이다.

06. (가)와 (나)는 선택적으로 정보를 수용할 수 있으나, (다)의 경우에는 정보를 자유롭게 고르고 선택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사진 자료를, (나)는 도표를 활용해 수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인터넷 매체와 방송 매체는 동영상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신문 기사와 방송 뉴스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적 정보를 담고 있다. ④ (가)~(다)는 모두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07. 이상 기온이 지속되면 모기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기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상 기온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도표를 보면 평년보다 올여름 모기 수가 급감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8. (다)의 기자의 설명 '식용 버섯과 구별하기 어려운 독버섯들'과 함께 사진 자료들이기 때문에, 실제 구분이 어려운 버섯의 사진 자료를 제시하여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비교하여 두 버섯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줄을 설명한 경우	5점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비교했다는 단순 사실만 제시한 경우	3점

09. (다)의 뉴스가 무단 채취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실제 산에서 버섯을 무단 채취했던 사람들에게 이 정보는 유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뉴스에서 독버섯의 분포와 생태는 다루고 있지 않다. ②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③ 독버섯의 해독 방법은 (다)에 언급되지 않았다. ④ 버섯을 무단 채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무단 채취를 단속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10. (나)와 (다)는 모두 이성보다 감성을 동원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다)가 설득적 매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② (가)는 예습, 복습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나)는 모금의 중요성을, (다)는 축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통해 상대방

에게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③ (가)에는 특별한 심미적 표현 전략이 사용되지 않았지만 (나)의 경우 수용자의 정서를 자극해야 하므로, 심미적 표현 전략이 어느 정도 사용되었다. ④ (나)는 동영상 매체를 사용하므로 인쇄 매체인 (가)나 라디오 매체인 (다)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매체 언어가 다양하다.

11. (가)에 인용된 의견은 학부모의 것뿐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어린 시절 자신의 공부 체험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② '예습이 중요한가? 복습이 중요한가?'라는 논쟁점에 대해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필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③ 예습과 복습이라는 대조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 논쟁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⑤ 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나)는 '고맙습니다'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는 축제의 일시와 '가자, 청양으로!'라는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다)는 라디오 매체이기 때문에 시각적 이미지나 문자 언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나)와 (다)는 모두 일상적 기대와 다른 상황 설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전달하는 내용을 고려할 때 흥미를 자극하거나 흥을 돋우는 어조가 사용되지 않았다.

13. <보기>는 해당 제품을 뿌리면 유리에 김이 서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광고이다. (나)와 <보기> 모두 광고이지만, (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광고이고 <보기>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이다.

평가 기준	
'공익적', '상업적' 목적이 대조적으로 제시된 경우	5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1점

14. (가)~(다)는 심미적 매체 자료로 모두 수용자의 정서적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생산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다)가 모두 정서적 공감을 목적으로 한 자료이지만 표현한 정서는 각각 모두 다른 것이다. ③ (가), (나)는 비교적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지만, (다)는 그렇지 않다. ④ 심미적 매체 자료의 의미는 소통을 통해서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이지 작가의 의도가 곧 작품의 의미는 아니다. ⑤ (나)의 경우 시각적 이미지만을 사용하고 있다.

15. 고흐의 그림을 매체적으로 변용한 것이므로, 문학 작품을 변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심미적 매체 자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미를 통해 수용자의 정서적 고양이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② 고흐의 그림을 작가가 에브리 기법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③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자신의 누리 소통망(SNS)에 공개한 것으로 볼 때, 그 과정 자체도 작품 일부로 볼 수 있다. ④ 에브리 기법은 터키의 전통적인 기법으로 가립 아이는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16.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인생의 순간순간은 두근거림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 생활 속의 매체

(1) 매체와 사회·문화

핵심 다지기

pp. 305~307

01. ④ 02. ③ 03. ⑤ 04. 일부 국한되었던 향유층이 폭넓게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유통되며 대중문화의 형성과 발전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05. 대량 06.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대중 매체가 등장하면서 콘텐츠가 세분화되었기 때문이다.

01. (가)를 보면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연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기존의 누리 소통망(SNS)이고, 최근에 생긴 사진 위주의 누리 소통망(SNS)은 나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계망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② (나)의 기자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⑤ (가)의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매체 언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은 자칫 익명성 등에 가려 타인에게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① 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가 가치 있고, 진실된 것인지를 판별하고, 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고려한 후 선별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② 매체 문화의 단점은 개선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수용의 대상은 아니다. ④ 익명성에 기대어 감정을 분출하는 것은 자칫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⑤ 자극적인 내용은 대중에게 해로운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03. 공연자와 관객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의 특징이다.

04. (나)와 같은 대중 매체는 특성상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대량으로 전파할 수 있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기존에 일부 국한되었던 향유층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대중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큰 원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향유층 넓어져 대중들에게 유통'되어 '대중문화의 형성과 발전이 활성화'되었음을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05. 대중문화는 새로운 대중 매체에 의해 그 소비 방식이 변하기도 하고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중문화가

대중 매체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된 문화 혹은 다수의 사람이 누리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06. 이 신문 기사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매체 환경의 변화가 대중 매체를 수용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왔고,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연령대별 콘텐츠가 세분화된 것이라 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수동적으로 매체를 수용하던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가 기준	
'새로운 대중 매체의 등장'으로 '콘텐츠가 세분화'되었음을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2) 매체 생활의 성찰

핵심 다지기

pp. 309~312

01. ④ 02. ④ 03. ㉠ 언어, ㉡ 의사소통 04. ④ 05. ④
06. ④ 07. ②

01. [A]에는 간접 광고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간접 광고를 포함하는 것이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으로 연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글쓰이는 무조건적 비판보다 문화적 성취가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대중문화는 상업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 대중을 자극하기 위해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을 포함하기도 한다. 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에서 알 수 있다.

02. 대중문화 자체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해 있으므로, 이를 비판적인 태도로 가려내고 선택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대중문화를 무조건 호의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비판적 태도로 수용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② 대중 매체의 긍정적 기능이 있으므로 대중 매체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③ 대중문화를 많이 접하는 것이 대중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방법이 아니다. ⑤ 전문가의 추천에 맹목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03.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매체 언어도 일종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의사소통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04. 사이버 불링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원인에 대해 분석적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있다.

05. 개인의 지적 재산권은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자유

롭게 공유한다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필요한 내용만 명확하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다. ② 온라인상에서 글을 쓸 때는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③ 글을 쓸 때는 항상 어문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⑤ 개인 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를 함부로 공개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된다.

06. 사이버 불링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교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② 사이버 불링은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로, 그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지만 현실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③ 사이버 불링이 만연하는 이유는 그것이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장난이나 재미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⑤ 타인의 원치 않는 사진을 유포하는 것도 괴롭힘의 일종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07. 인터넷에서 묻고 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전문가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중단원 실전 문제

pp. 315~317

01. ① 02. ⑤ 03. ③ 04. ⑤ 05. ② 06. 대중문화의 상업적 속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안목으로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07. ② 08. ① 09. ②

01. (가)는 누리 소통망(SNS)이 개인의 '인맥'에서 '관심사'로 연계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1인 방송이 유행하는 새로운 매체 문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1인 방송은 국경의 제한 없이 사용된다. ③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는 세대가 이동했다는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④ 누리 소통망과 1인 방송의 매체가 같은지 다른지는 (가)와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며, 분화되었다는 설명도 찾을 수 없다. ⑤ (나)에서 기자는 선정적인 내용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1인 방송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02. 개인 방송 콘텐츠(㉠)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기존의 누리 소통망이 알고 있던 사람들(㉡), 즉 개인의 인맥으로 연계망을 형성한다는 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소통된다는 의미이다. ② 핵심어(㉢)는 주로 해시태그를 통해서 제시되는데, 이를 보면 게시자의 관심사를 알 수 있다. ③ 여행이나 음식(㉣)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1인 방송에서 선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이다.

03. 새로운 대중 매체인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대중문화는 수동적인 향유에서 능동적인 향유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서 부모 세대는 텔레비전을 그저 보기만 하지만 자녀 세대는 적극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② 대중문화가 세대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세대별로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④ 텔레비전이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다. ⑤ 텔레비전 등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만, 방송 매체의 발전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04. 과거의 가요 프로그램(㉠)은 한 방향으로 수동적인 면이 강했지만, 최근의 가수 선발 프로그램(㉡)은 쌍방향 소통을 기반으로 시청자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세대에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이다. ② ㉠과 ㉡이 세대별로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 ㉡으로의 변화를 통해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투표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3문단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방식도~'라는 부분을 통해 ㉡ 역시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소비됨을 알 수 있다. ④ ㉠은 과거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장년층이 향유했던 콘텐츠일 수는 있으나, 그 당시에는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아'라는 표현처럼 장년층과 젊은 층이 함께 향유하던 콘텐츠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대중문화의 문화적 성취는 대중의 선호도가 아닌 그 자체의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대중은 이를 잘 선별하여 바람직한 대중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대중문화는 다수의 사람, 즉 대중이 누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③, ④ 대중문화는 다수의 사람이 향유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에 의한 간접 광고의 과열도 나타나는 것이고,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대중문화는 대중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거나 바람직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콘텐츠도 많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6. (가)의 마지막 문장 '이제는 다른 인식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과 (나)의 마지막 문장 '대중문화 가운데에서도 문화적 성취가 높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을 종합하면, 대중문화의 속성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문화적 성취가 높은 것을 가려내며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상업적 속성에 대한 이해'와 '유익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내용을 모두 언급한 경우	5점

둘 중 한 가지 내용만 언급한 경우	3점
---------------------	----

07. (가)를 보면 상표가 노출되면 광고라고 인식되어 이를 철저하게 막았던 것은 종래의 방송 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간접 광고는 지정된 범위 안에서 합법화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②번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간판의 확대, 티셔츠의 큰 상표 등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상품을 보이면서 광고하는 형태의 간접 광고라 할 수 있는데, 종래의 방송 관행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를 불편해할 수 있다. ⑤ 대중 매체인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는 다수의 사람이 향유하는 대중문화의 하나로, 상업적 속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시청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게 할 수 있다.

08. (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남을 괴롭히는 행위, (나)에서는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유통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온라인 예절은 (가)에서만 언급되어 있다. ③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언급은 (나)에만 나타난다. ④ 매체의 유용성 판별에 대한 언급은 (가)와 (나) 모두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매체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통제 방법을 기술의 발전과 연관 지어 언급하고 있지 않다.

09. 댓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댓글을 쓸 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오답 풀이 ①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필요한 내용만 분명하고 간결하게 쓰는 것이 좋다. ③ 익명성에 기대어 남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므로 삼가야 한다. ④ 매체 사용에 있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일이 필요하다. ⑤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하는 일은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



1. 국어의 역사

(1) 고대 국어

핵심 다지기

pp. 323~325

01. ③ 02. ③ 03. 중국의 한자음에 된소리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한자음에는 된소리 계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04. ⑤
05. ⑤ 06. ④

01. 중국과의 교류가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가 더 많이 사용되게 된 것은 아니다. 또한 (나)를 통해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에 된소리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를 통해 현대 국어의 기초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④, ⑤ 알타이 어족에서 분화되어 발전하던 언어가 신라의 삼국 통일로 신라어를 중심으로 한반도 남동쪽 경주로 국어의 중심지가 이동되었다.

02. 고유 명사 차자 표기에서는 음독(音讀)과 석독(釋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했다.

03. 중국의 한자와 한자음을 받아들였던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중국의 한자음에는 된소리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한자음에 된소리 계열이 거의 없어서, 우리말에 된소리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평가 기준	
'중국 한자음에 된소리가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한자음에는 된소리 계열이 거의 없다'는 점을 비교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중국 한자음에 된소리가 있다'는 점만 서술한 경우	3점

04. ㉠의 표기법은 한자의 소리나 뜻을 빌려 고유 명사를 표기한 것으로, 이러한 표기법은 이후 구결과 이두, 향찰로 발전하였으며 향찰은 통일 신라 이후 사라졌으나, 이두와 구결은 조선 시대까지 그 쓰임이 이어졌다.

오답 풀이 ① '거칠'을 '荒'으로 표기한 것은 '거칠 향'에서 알 수 있듯이 뜻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다. ② '거칠'은 음독했으므로 당시의 소리가 '거칠'과 유사했을 것이고, 이를 석독한 것이 '황'이므로 '荒'은 '거칠'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마)를 통해 '거칠부'와 '황중'을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居柒(있을 거, 일곱 칠)'을 '거칠'로 표기한 것은 뜻을 버리고 소리를 취한 음독에 해당한다.

05. 이두는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었으며, 향찰 또한 어순을 우리말에 맞도록 배열하여 표기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이두의 경우 어순까지 우리말에 맞도록 재배열하였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 표기를 빼도 온전한 한문이 되지 않는다. ② 향찰은 통일 신라 시대까지만 사용되고 사라졌다. ③ 향찰은 여러 가지를 한자 차용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다 보니 읽기 쓰기의 방식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겼다. ④ 향찰도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한자로 표기하였다.

06. 한글은 구결에 사용된 차자 표기처럼 한자를 이용하여 창제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厓, 伊, 爲尼' 등은 한문 표기에서 우리말 '에, 이, 하니' 등 형식 형태소를 추가하여 표기한 것이고, 어순은 한문과 같다. ⑤ 이두는 우리말 어순에 맞도록 재배열하였기 때문에 구결과 차이를 보인다.

소단원 적중 문제

p. 329

01. ④ 02. ④ 03. 음독은 한자의 뜻을 버리고 소리만 이용하는 것이고, 석독은 한자의 소리를 버리고 뜻만 이용하는 것이다.

01. 구결은 이두와 달리 구결 글자를 빼면 그대로 한문이 된다. 이두는 우리말 어순에 따라 한자를 차용했지만 구결은 한문 원문을 두고 조사, 어미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소만을 한자를 차용하여 표기하였다.

오답 풀이 ①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었던 때여서 한자를 빌려 표기하였다. ② (나)를 통해 한자 차용 원리는 소리를 버리고 뜻을 취하는 석독과 뜻을 버리고 소리를 취하는 음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를 통해 한자 차용 표기법은 한자로 표기하기 어려운 우리말 고유 명사의 표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향찰은 신라의 향가를 표기하는 데 사용된 표기법으로, 어순을 우리말에 맞도록 배열하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한자로 표기할 뿐 아니라 명사나 동사 등의 실질 형태소와 단어들까지 한자로 표기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02. ㉠ '今自', ㉡ '大罪得'은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모두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아니다. '今自'의 '自'는 '~로부터'로 해석되는 조사로 형식 형태소이고, '大罪得'의 '得'은 '얻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일 뿐 어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없으므로 실질 형태소를 표기한 것이 아니다. (라)에서도 이두는 형식 형태소를 표기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를 모두 한자를 빌려 표기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今自'을 '지금으로부터'라고 해석한 것은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했음을 보여 준다. ② '大罪得'을 '큰 죄를 얻은 것이라고'로 해석한 것은 '얻다'를 나타내는 '得'을 문맥

에 맞게 해석한 것일 뿐 한자 차용 표기에 ‘얻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말을 완벽하게 표기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③ <보기>는 이두 표기로 구절과 가장 다른 점은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했다는 점이다. ⑤ (라)에서 이두는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어순을 우리말 어순에 따라 형식 형태소를 더하여 표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3. 예를 들어, ‘古(옛 고)’자를 그 뜻과 상관없이 단순히 ‘고’라는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음독이고, ‘水(물 수)’자를 써놓고 ‘물’이라고 읽는다면 그것이 석독이다.

평가 기준	
‘음독’, ‘석독’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음독’, ‘석독’의 개념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2) 중세 국어

핵심 다지기

pp. 331~335

01. ③ 02. ⑤ 03. ⑤ 04. <보기>는 모음 조화에 의한 교체 형태를 나타내며,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엄격하게 지켰다. 05. ⑤ 06. ② 07. ① 08. 고유어만 있던 우리말 어휘 체계에 한자어가 유입되면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원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09. ② 10. ② 11. -사-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는데, 如來(여래)를 높이고 있다.

01. 모음 ‘ㆍ’는 후기 중세 국어 시기부터 변화하였는데,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의 ‘ㆍ’가 주로 ‘ㅡ’로 변하고, 이후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첫째 음절의 ‘ㆍ’가 주로 ‘ㅏ’로 변하면서 소멸되었다.

02. ‘미’는 글자 왼쪽에 점이 없으므로 평성이며, 낮은 소리이다.

03. <모르다>모르다’는 ‘ㆍ’의 1단계 소실 과정만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마물>마물>가물 ② 썩름>썩름>따름 ③ 마르치다>마르치다>가르치다 ④ 썩르다>썩르다>빠르다

04. 중세 국어 시기에는 조사나 어미에는 모음 조화에 의한 교체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보기>와 같이 1인칭 대명사 ‘나’와 2인칭 대명사 ‘너’는 모음 조화에 따라 ‘나느, 나를’과 ‘너는, 너를’ 등으로 나타났고, 동사 ‘막-’과 ‘먹-’은 ‘마가, 마근, 마굴’과 ‘머거, 머근, 머굴’ 등으로 나타났다.

평가 기준	
‘모음 조화’, ‘현대 국어와 달리 엄격하게 지킨’ 점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3점

05. 중세 국어 시기에 같은 의미가 있는 한자어가 유입되면서, 고유어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대립 관계 속에서 고유어는 원래의 의미 영역 가운데 큰 부분을 한자어에 넘겨

주고 자기의 의미 영역을 축소하면서 살아남거나 완전히 소멸되는 길을 가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 시기에는 한자어와 몽골어 등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일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사)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고려 광종 때 시행한 과거 시험에 한자가 포함되면서 한자어의 침투와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나라 차원에서 고유어를 지키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③ 한자어가 유입된 후 시간이 흐르면서 어휘 체계 안에서 차지하는 고유어의 비중은 기존보다 작아지고 한자어의 비중은 높아지는 변화가 지속해서 진행되었다. ④ 13~14세기에 들어온 몽골어는 대부분 한동안 사용되었다가 사라졌지만, 일부는 현대 국어에까지 남은 것도 있다.

06. ‘즈믄’은 ‘천(千)’의 의미에 해당한다. ‘백(百)’과 같은 의미인 고유어는 ‘온’이다.

07. ‘말씀’은 과거에는 일반적인 ‘말’의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는 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오답 풀이 ② ‘문쭙’은 원래 ‘한문, 한자’를 의미했으나, 지금은 일반적인 글자를 뜻하게 되었으므로 의미가 확대된 예에 해당한다. ③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의미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한 경우이다. ④ ‘하다’는 ‘많다’의 뜻으로 쓰였던 단어로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지금 쓰고 있는 ‘하다’는 ‘ㅎ다’에서 온 것으로, 중세 국어의 ‘하다’와는 관계가 없다. ⑤ ‘어엿쁘다’는 ‘불쌍하다’의 의미에서 ‘예쁘다’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한 경우이다.

08. 한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말에 고유어만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한자가 유입되면서 우리말 단어는 고유어와 한자어의 이원 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평가 기준	
고유어와 한자어를 언급하고, 이원 체계를 이루었음을 드러낸 경우	5점
고유어와 한자어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이원 체계’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은 경우	3점

09. ㉠은 실제 발음을 중심으로 각 음절을 표기에 정확히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⑤ 주격 조사 ‘ㅣ’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의 뒤에서는 ‘이’를,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ㅣ’를 사용하였으며,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표기하지 않았다. ①의 ‘불휘’는 체언이 ‘ㅣ’ 모음으로 끝나서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며, ⑤는 ‘누’의 ‘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ㅣ’가 사용되었다.

10. 중세 국어에서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제는 아무런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거나 선어말 어미 ‘-더-’를 써서 표현하였다. ②의 ‘셔쇼라’에는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다.

오답 풀이 ①, ⑤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느-’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다. ③, ④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리-’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미래 시제를 표현

하고 있다.

11. 밑줄 친 부분 ‘오샤’는 ‘오서서’로 해석되며,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평가 기준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된 문장임을 언급하고, 높임의 대상을 정확히 찾아 서술한 경우	5점
높임의 대상을 정확히 찾았지만,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됨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3점

소단원 적중 문제

pp. 340~341

01. ① 02. ① 03.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졌다. 04. ④ 05. ④ 06. ㉔: 서술어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경우 현대 국어와 다르게 사용되었다. ㉕: 현대 국어에는 사용하지 않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01. (나)의 ‘성조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표시하였’다는 내용과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이용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였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방점은 소리의 장단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의 ‘1인칭 대명사 ‘나’와 2인칭 대명사 ‘너’는 모음 조화에 따라 ‘나는, 나를’과 ‘너는, 너를’ 등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볼 때 모음의 형태에 따라 조사의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소리의 높낮이인 성조를 이용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하였다는 내용을 볼 때 적절하다. ④ (나)의 ‘중세 국어의 음운적 특징으로는, 된소리 계열이 생겨난’ 것을 거론한 점으로 볼 때, 중세 국어 이전에는 된소리 계열이 없는 ‘예사소리-거센소리’ 대립 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의 ‘중세 국어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한글로 기록된 문헌 자료가 많이 나온 시기를 기점으로 전기 중세 국어와 후기 중세 국어로 구분한다’는 점을 통해, 한글 창제가 국어사에서 큰 전환기를 마련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02. (나)의 ‘모음 ‘ㄷ’은 후기 중세 국어 때부터 변화되었는데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의 ‘ㄷ’가 주로 ‘ㄸ’로 변하고, 이후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첫째 음절의 ‘ㄷ’가 주로 ‘ㅌ’로 변하면서, 모음 ‘ㄷ’은 완전히 소멸되었다.’로 미루어 볼 때, ‘ㄷ’가 첫째 음절에서 소멸되는 양상과 둘째 음절에서 소멸되는 양상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ㄱ의 ‘ㅌ’과 ㄴ의 ‘ㄴ’은 각각 ‘ㅌ’과 ‘ㄴ’의 다음에 위치하므로 ‘ㄷ’이 사라진 이후에 나타난 어휘이며, 둘째 음절의 ‘ㄷ’가 사라지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16세기 이전의 어휘임을 알 수 있다. ③ ‘ㅌ’과 ‘ㄴ’과 ‘더’의 ‘ㄷ’은 중세 국어만 사용된 음운이라 할 수 있다. ④ ㄴ은 어간 ‘ㄷ’에 어미 ‘-어’가 결합하였고, ㄴ은 어간 ‘ㄷ’에 어미 ‘-아’가, 어간 ‘ㄷ’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볼 때 양성 모음 다음에는 어미 ‘-아’, 음성 모음 다음에는 어미 ‘-어’가

결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가 철저했음을 알 수 있다. ⑤ ㄴ의 ‘ㄷ+어’의 현대 국어가 ‘더’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는 훗날 ‘더’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03. ‘겨스레’, ㅎ, 죽을, ㅎ더라’의 현대어 풀이가 ‘겨울에, 옷을, 하루, 하더라’에 해당하는 데, 이들을 비교하면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드러내고, <조건>에 따라 서술한 경우	5점
모음 조화가 지켜졌음을 드러냈지만,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2점

04. (다)에서 ‘한글 창제 이후 한글 표기법의 원리로 채택된 것은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였다’는 내용으로 볼 때, 중세 국어는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를 표기 원리로 사용한 것이지, 음소적 원리에서 음절적 원리로 표기 양상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이 들어오면서 한 자어가 같이 유입되어 적절한 고유어가 없는 공백을 자연스럽게 메웠을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미 고유어가 존재해도 같은 의미가 있는 한자어가 유입되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립 관계가 형성되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13세기와 14세기에 고려가 원(元)과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한자어와는 구별되는 몽골어가 많이 들어’ 왔다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의 “-(으)시-”에 의한 주체 높임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다)의 ‘사름이’를 ‘사름’으로 표기한 것을 통해 할 수 있다.

05. ‘닐오리라’를 발음하면 [니로리라]가 된다. 그런데 ‘닐오- + -리- + -라’의 형태를 밝히기 위하여 음절 단위로 끊어서 표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중세 국어 시기에는 주격 조사에 ‘가’는 없고 ‘이’만 있어서 앞말의 받침 유무에 상관없이 ‘이’가 쓰였다’는 내용과 함께, ㄱ의 ‘아들들ㅎ+ㅣ’, ㄴ의 ‘하늘ㅎ+ㅣ’, ㄷ의 ‘나+ㅣ’로 보아 주격 조사로는 ‘이(ㅣ)’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ㄱ의 ‘죽다’(죽었다)로 보아 중세 국어에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따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ㄴ의 ‘ㅎㄴ니라’의 경우 ‘ㅎ-+ㄴ-+니라’로 분석되며, 현대어로는 ‘한다’의 의미이므로, 선어말 어미 ‘ㄴ’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닐오리라’의 현대어가 ‘말하겠다’의 의미이며, ‘닐오다’가 ‘말하다’의 의미를 갖는다면, ‘-리-’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과 대응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리-’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라고 추론할 수 있다.

06. ㉔의 현대어는 ‘부모가’이나, 중세 국어는 ‘父母(부모)+ㅣ’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㉕의 ‘드리븃시니’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술-’이 사용된 것으로 현대 국어와 달리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㉓, ㉔ 모두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5점
두 개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3점
내용을 적절하지만, 현대 국어와 비교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1점

(3) 근대 국어

핵심 다지기

pp. 343~345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②

01. ㄱ의 ‘도코’의 현대어 풀이가 ‘종고’이고, ㄴ의 ‘조호료’의 현대어 풀이가 ‘종을까’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ㄱ, ㄴ 모두 ‘종다’가 기본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ㄱ에서의 ‘도코’에는 구개음화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셔블’이 ‘서울’로 변한 것에서 ‘ㅁ’이 ‘ㄴ’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② ‘ㅁ슴’이 ‘ㅁ음’으로 변했으므로 ‘ㅈ’이 소멸하여 그 자리에 (형식적인) ‘ㅇ’이 쓰인 것이므로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ㄱ의 ‘ㅁ술’과 ㄴ의 ‘ㅁ울’을 통해 ‘ㅁ’가 근대 국어에도 여전히 쓰였음을 알 수 있고, ‘ㅁ’가 ‘마울’로 변한 것을 통해 ‘ㅁ’가 ‘ㅌ’나 ‘ㄴ’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02. ‘릭년’>래년(來年)으로 바뀐 것은 ‘ㅇ’의 소실에 따른 결과이다. ‘ㅇ’가 소실되면서 ‘ㄹ’이 ‘ㄴ’로 바뀌었는데, ‘ㄴ’(당시에는 이중 모음)가 새로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ㅇ’의 변화는 둘째 음절에서 ‘ㅇ’가 ‘ㄴ’로 변화하는 것이 먼저 나타났다고 (다)에서 설명하고 있다. ② 16세기 말에 나타난 ‘ㅇ’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③ ‘ㅇ’의 2단계 소실은 첫째 음절에서 나타났으며 18세기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났다. ④ ‘ㅇ’는 양성 모음으로, ‘ㄴ’은 음성 모음으로 대립의 짝을 이루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ㅇ’의 소실로 모음 조화가 깨어지면서 한 단어 안에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03. (아)를 통해 근대 국어 시기의 경우 한 문헌 안에서도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섞여서 표기법의 혼란이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표기법이 체계화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근대 국어 시기에는 서양의 새로운 지식이 중국을 통해 유입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가 유입되었다. ② 현대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삼중 체계인데, 이러한 체계가 확립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의 외래어 유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③ 근대 국어 문법에 나타난 변화는 주격 조사 ‘가’의 등

장이다. 따라서 근대 국어 이전 시기에는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은 근대 국어 시기에 확립되었다.

04. <보기>는 근대 국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띄어쓰기에 대한 언급은 ‘귀절을 세여 쓴’다는 데서 알 수 있는데, 이는 오늘날의 띄어쓰기가 어절 단위인 것과 다르다.

오답 풀이 ② 『독립신문』 창간사의 내용으로 보아 국문으로만 쓴 이유는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고 되어 있다. ③ ‘우리 신문이’, ‘상하귀천이’에서 주격 조사 ‘이’가 쓰이고 있고, ‘보기가’에서 ‘가’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명사형 어미가 쓰인 단어는 ‘흠이라’, ‘흠이라’, ‘보기가’에서 ‘-음/-음’과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는 ‘쓰는거슨’, ‘이러케’에서 이어적기가 ‘흠이라’, ‘흠이라’에서 끊어적기가 나타나고 있다.

05. 이어쓰기가 적용된 표기는 ㉓, ㉔, ㉕이다. ㉓는 ‘말씀+이’, ㉔는 ‘뜯+을’, ㉕는 ‘눔+이’로 분석된다.

소단원 적응 문제

pp. 349~350

01. ① 02. ⑤ 03. ⑤ 04. ‘서울’은 중세 국어에서 ‘ㅁ’이 사용되어 ‘셔블’으로, ‘조호료’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아 ‘도호료’로 나타났을 것이다. 05. ② 06. ② 07. ③ 08. 지베, 집에, 집배

01. (가)에서 현대 국어의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가운데에는 근대 국어 시기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의 공통점이 많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근대 국어가 중세 국어의 특징을 현대 국어에 이어 주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위치에 근대 국어가 자리하고 있어서 차이를 이어 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③ ‘ㅇ’는 16세기 말부터 둘째 음절에서 먼저 변화하여 ‘ㄴ’로, 그리고 근대 국어 시기에 첫째 음절은 ‘ㄴ’로 변화하였다. ④ ‘ㅇ’의 소멸은 모음 조화 현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약화시켰다. ⑤ 구개음화는 ‘ㄹ’ 모음 앞에서 일어났으며 ‘부터’>부쳐’>부쳐’로 반모음 ‘ㄹ’ 앞에서 ‘ㅌ → ㅊ’으로 변화한 다음 ‘ㄹ → ㄱ’로 변화하였다.

02. ‘ㅇ’가 소멸하면서 한 단어에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공존하는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ㅈ’의 소멸로 ‘ㅁ슴’>ㅁ음’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② ‘ㅁ’의 소멸로 ‘더버’>더워’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ㅁ’은 ‘ㄴ’[w]로 변화하였다. ③ ‘ㅇ’의 둘째 음절에서의 변화는 ‘ㄴ’로 변하였으며, 이 변화는 이미 16세기 말(중세 국어 시기)에 나타나고 있었다. ④ 첫째 음절의 ‘ㅇ’는 18세기에 ‘ㄴ’로 변화하였다.

03. '디다'지다[落], 티다>치다[打], 부터>부처[佛]에서 보는 것처럼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한 음절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였고 '굳+이→구지', '갈+이→가치'처럼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도 일어났다.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도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에서 일어났다.

오답 풀이 ① 구개음화는 근대 국어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음운의 변화로 그 이전 시기에는 'ㅣ' 모음 앞에서 'ㄷ, ㅌ'으로 소리 났었다. ② 근대 국어에서는 '디다'지다[落], 티다>치다[打], 부터>부처[佛]처럼 한 음절 안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③, ④ 현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미담+이→[미다지]', '해+돋+이→[해도지]'처럼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고, 소리에서만 나타난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04. 중세 국어의 자음 'ㅂ'은 소멸되어 근대 국어에서 'ㅃ'로 쓰였고, '도호료'는 구개음화가 사용되지 않아 '즈'으로 쓰였다.

평가 기준	
중세 국어에서는 'ㅂ'과 구개음화가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셔불, 도호료'로 표기를 쓴 경우	5점
'셔불, 도호료'라고 표기만 밝히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3점

05.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중세 국어 시기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나)의 1문단에서 주격 조사 '가'는 근대 국어에 나타나서 자음 아래에서는 '이', 모음 아래에서는 '가'가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하였다. ③ (나)의 2문단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널리 사용된 것도 근대 국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였다. ④ (가)의 1문단에서 국어의 어휘 체계가 고유어, 한자어에 더하여 외래어의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 ⑤ (다)의 2문단에서 한 문헌 안에서도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가 섞여서 표기법 혼란이 심해졌다고 하였다.

06. '말씀미'가 거듭적기(중첩) 표기에 해당한다. '말씀미'는 '말씀+이'의 결합으로 이어적기하면 '말똥미', 끊어적기하면 '말씀이'가 된다.

오답 풀이 ① '붉은'은 끊어적기한 표기이다. ③, ④ '눈을, 황홀이' 등은 모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접사가 붙었으나 이어적기하지 않고 끊어적기하고 있다. ⑤ '것+은'을 '거슨'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어적기한 것이다.

07. ㉔에는 이 시기에 나타나는 띄어쓰기가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구절 단위로 띄어쓰기하였다는 내용이며 '쓴즉'은 구절 단위 띄어쓰기를 보여 준다. 어절 단위라면 '쓴 즉'이라고 표기했을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신문'은 신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대 국어 시기에 신문물을 지칭하는 언어가 들어와 사용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쓰는거슨'에서 '거슨'은 '것+은'을 이어적기한 것이다. ④ ㉔는 명사형 어미 '기'와 주격

조사 '가'의 쓰임이 '보기+가'에 나타난다. ⑤ '알어'는 '알(양성 모음)'이므로 양성 모음의 연결 어미가 와야 한다. 그런데 '어(음성 모음)'가 왔으므로 모음 조화 파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08. 이어적기는 뒤에 이어지는 모음 형태소에 앞 음절의 종성을 옮겨 적는 것이고, 끊어적기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와도 각각 그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다. 그리고 거듭적기는 앞 음절의 종성을 뒤에 이어지는 형태소의 첫음절에서만 번 더 적는 것이다.

중단원 실전 문제

pp. 351~355

01. ④ 02. ⑤ 03. ② 04. 우리말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05. 실질 형태소도 한자 차용 표기를 사용한다. 06. ③ 07. ② 08. '·'가 16세기에 둘째 음절에서, 근대 국어 시기에 첫째 음절에서 소실되므로 어형 변화는 차례로 'ㅁ을' > '마을'이 된다. 09. ② 10. ⑤ 11. ⑤ 12. ② 13. ② 14. ④ 15. ⑤ 16. ①

01. 구결은 한문 문장의 문맥을 파악하기 쉽도록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고, 이두는 단어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바꾸고 조사나 어미도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어순에 따라 표기'하였다는 설명은 이두와 관련한 설명이다.

02. (나)를 보면 "왕"이라는 한자어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고, 순우리말로 되어 있던 지명이 한자어 지명으로 바뀌는 등 한자어 어휘가 일상으로 들어와서 쓰임이 확대되는 일"이라고 하였고, <보기>를 고려할 때 적절한 반응이다.

오답 풀이 ① ㄱ에서 '永同'과 '吉同'은 동일한 지명을 표기한 것으로, '영동군'을 본래 '길동군'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② ㄴ은 동일한 사람의 이름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는 것이지, 동일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갖는 경우가 아니다. 그러므로 '居柒夫'와 '荒宗'은 동일 인명에 대한 두 가지 표기이기 때문에 표기가 달라도 똑같이 읽어야 한다. ③ '荒宗'의 '荒'을 '황'이라는 한자음이 아니라 '거칠-'이라는 뜻으로 읽으면, 즉 음독이 아니라 석독을 하면 '居柒夫'의 '居柒'과 같은 방식으로 읽게 되는 것이다. ④ ㄴ에서는 '혹은'을 '或云'이라고 하여 조사를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ㄱ보다 ㄴ이 우리말의 형식적 특징을 살려서 표기하였다.

03. '矣(어조사 의)'는 조사 '의'를 나타낸 한자이나 '乙(새 을)'은 어미 '-르'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향찰은 이두와 같이 우리말의 어순으로 배치하였다. ③, ④ '夜(발 야), 抱(안다 포), 去(가다 거)'는 '밤'이라는 단어, '안-', '가-'의 어간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며, 뜻에 따라 읽는 '석독'의 방법

을 사용해야 한다. ⑤ ‘**ㄴ**(토끼 **모**)’는 부사 ‘몰래’의 ‘**모**’에 해당하므로 실질 형태소이며, 음독의 방법으로 읽어야 한다.

04. (다)에서 고대 국어 시기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 글자가 없던 때였는데, 한자 차용 표기법을 사용한 자료들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말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 주어 귀중한 자료들이라 하였다.

평가 기준	
우리말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서술한 경우	5점
우리말을 표기한 것 등만으로 의미를 서술한 경우	3점

05. 향찰은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하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형식 형태소를 한자로 표기할 뿐만 아니라 명사나 동사 등의 실질 형태소와 단어까지 한자로 표기하였다.

평가 기준	
실질 형태소도 한자 차용 표기를 사용한다고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되 한 문장 이상으로 서술한 경우	3점

06. (가)의 첫 문단에서 ‘**ㅏ**’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 점을 중세 국어의 음운적 특징 중 하나로 들고 있다.
07. (라)에서 ‘평성과 거성은 짧은소리로, 상성은 긴소리로 바뀌어 현대 국어의 장단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현대 국어에서 평성과 거성에 해당하는 어휘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장음으로 발음되는 어휘는 상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 [눈:]과 ③ [굴:]은 장음으로 발음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세 국어 시기에는 상성임을 엿볼 수 있다.
08. ‘**ㅏ**’는 16세기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ㅓ**’로 변하고, 근대 국어 시기에 이르러 첫째 음절에서 주로 ‘**ㅓ**’로 변하였다.

평가 기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의 제시와 선행된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한 경우	5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제시했지만, 선행된 순서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3점

09. 밑줄 친 부분은 우리말과 한자어의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말의 영역이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②가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불교가 유입되면서 쓰이지 않던 한자어가 유입되어 사용되는 경우이다. ③ ‘세수’는 한자어 ‘洗手’를 의미하며, ‘세수’의 의미 영역이 축소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수’의 의미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지, 우리말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 ‘얼골’이라는 우리말의 의미 영역이 축소되는 사례에 속하지만, 이것이 한자어와의 대립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⑤ 우리말의 의미가 바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한자어와의 대립 관계 속에서 변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0. (나)에 따르면 상대 높임법 또한 선어말 어미에 의해 표현되던 체계는 사라지고 현대에 와서는 어말 어미에 의해 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11. 중세 국어에서 동사의 경우 현재 시제는 선어말 어미 ‘**ㄴ**’을 써서 표현하였다. ⑤의 ‘**ㅎ** **ㄴ**나라’에 선어말 어미 ‘**ㄴ**’이 포함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서술어에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으므로 과거 시제로 볼 수 있다. ③ ‘**닐**나라’에 선어말 어미 ‘**ㄴ**’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④ ‘**ㄷ**외더라’에 선어말 어미 ‘**ㄷ**’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12. ‘**내**’가 주격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내**’가 ‘**나**+**ㅣ**’로 분석되므로 ‘**ㅣ**’가 주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3. 근대 국어 시기로 들어오면서 ‘**ㅓ**’, ‘**ㅕ**’이 소멸된 것은 적절하지만, 이것이 ‘모음 조화를 지키지 못하는 양상’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모음 조화가 혼란해지기 시작한 것은 ‘**ㅓ**’의 소멸 때문이었다.

오답 풀이 ① 근대 국어 시기로 들어오면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주격 조사가 ‘**이**’ 이외에 ‘**가**’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③ ‘**ㅓ**’의 경우, 16세기 말 둘째 음절 이하에서 ‘**ㅓ**’로 변하였고,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오면서 첫째 음절에서 ‘**ㅓ**’로 변하였다. ④ 음소적 원리와 음절적 원리로 표기되던 중세 국어 시기와 달리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가 섞여 표기되면서 혼란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⑤ 서양의 새로운 지식과 문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일본어, 서양어가 유입되는 등 새로운 어휘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14. ‘**ㄷ**’, ‘**ㅌ**’이 ‘**ㅣ**’ 모음과 결합하여 ‘**즈**’, ‘**츠**’로 발음되는 현상은 구개음화에 해당한다.

15. ‘**거슨**’으로 볼 때 근대 국어 시기에도 여전히 이어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글은 끊어적기와 이어적기가 혼재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의 ‘**보기가**’를 보면 명사형 어미 ‘**ㄴ**’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② ‘**쓰는거슨**’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보기가**’에서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중세 국어와 달리 띄어쓰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정한 규칙이 있다기보다는 글쓴이의 호흡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을 보인다.

16. ‘**고**ㅓ>**고**와’에서는 ‘**ㅓ**’이 ‘**ㅓ**’로 바뀌어 이중 모음 ‘**ㅓ**’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셔**ㅓ>**셔**을’에서는 ‘**ㅓ**’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

오답 풀이 ② ‘**ㅓ**ㅓ>**ㅓ**ㅓ’와 ‘**ㅓ**ㅓ>**ㅓ**ㅓ’는 모두 ‘**ㅓ**’이 소멸되었다. ③ ‘**셔**ㅓ>**셔**을’과 ‘**ㅓ**ㅓ>**ㅓ**ㅓ’는 모두 이중 모음이 단모음화되고 있다. ④ ‘**ㅓ**ㅓ>**ㅓ**ㅓ>**ㅓ**ㅓ’는 ‘**ㅓ**’의 소멸로 나타난 변화 양상이고, ‘**ㅓ**ㅓ>**ㅓ**ㅓ’는 구개음화 현상이다. ⑤ ㉠은 구개음화 현상으로 ㉡, ㉢에 나타나는 음운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고난도 해결 포인트 제시된 글을 정확히 독해하여 유성 마찰음 ‘ㄹ, ㄴ’의 변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지문의 사례 설명을 잘 분석하여 <보기>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 국어 생활과 문화

(1) 국어 자료의 다양성과 국어 문화

핵심 다지기

pp. 359~367

01. ④ 02. ② 03. ① 독자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전해 준다. / ②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드러낸다. / ③ 읽는 이가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다. 04. ④ 05. ⑤ 06. ⑤ 07. ⑤ 08. ③ 09. ① 해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은 피한다. / ② 명사형 종결 표현을 쓴다. 10. ① 11. ① 12. 아들이 줄임말이나 새로운 문화를 반영한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13. ③ 14. ⑤ 15. ② 16. 교통과 매체의 발달로 인해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문화를,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01.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국어 자료인 편지는 구어적 표현을 많이 쓰며 읽는 이가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언어적 특성을 보인다. ‘문어적 표현’은 일상 대화에서는 쓰이지 않고 글에서만 쓰이는 표현을 말한다. 친교 및 정서 표현의 글인 편지에서는 읽는 이와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므로 구어적 표현이 많이 쓰인다.

오답 풀이 ① (나)에 문학 작품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 낸 국어 자료라고 제시되어 있다. ② (나)에 국어 자료 중 친교 및 정서 표현을 위한 국어 자료의 종류가 드러나 있다. ③ (다)에서 친교 및 정서 표현이 목적인 국어 자료의 일반적 특징이 소개되고 있다. ⑤ (가)에 국어 자료의 생산 목적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다.

02. ‘뽕하’라는 말은 ‘어떤 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다’의 의미로 쓰인다. [A]에서 아버지인 ‘나’는 아들이 고민으로 잠 못 들고 뒤척이는 일에 대해 누구라도 그런 밤이 있다고 위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아버지가 고민으로 잠 못 들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다. 민세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구체적 대상이다. ③ 잠 못 드는 아들에게 그런 밤이 있음을 인정하는 아버지의 말로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④ 아버지인 ‘나’는 아들의 고민을 이해하면서 그 고민이 비인간적이고 비굴하게 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⑤ 아버지인 ‘나’와 아들인 ‘민세’ 사이에 전해진 편지글을 다른 사람이 읽게 된다면 필자인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 어린 충고를 느낄 수 있다.

03. (다)에서 친교 및 정서 표현의 목적을 가진 국어 자료의 언어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5점
한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3점

04. ‘세계 문화유산’의 보존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필자의 견해에 해당한다. 이를 강조하는 것은 설명문보다 논설문에 적합한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②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되는 기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간결하고 명확한 글을 쓸 수 있다. ③ 설명하는 글쓰기에서는 무엇보다 명료한 표현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⑤ 문화유산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설득의 기능을 담고 있는 국어 자료는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실이나 현상, 가치 등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국어 자료이다. 전문적인 내용을 추상적인 근거에 따라 전달하는 글이라는 ⑤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설득의 기능을 담고 있는 국어 자료는 문장이 명료하고 간결해야 한다. ② 설득의 기능을 담고 있는 국어 자료는 논설문으로 짜임새 있게 쓴 체계적인 글이다. ③ 사실이나 현상에 대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글이다. ④ 주장을 담은 글에는 명확한 개념과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오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06. [A]는 정보 전달을 위한 국어 자료의 예시이고 [B]는 설득을 위한 국어 자료의 예시이다. 두 경우 모두 객관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국어 자료에 해당한다. 그런데 과장이나 비유를 통한 꾸밈이 허용된다는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와 [B]는 모두 생산 목적에 따라 분류한 목적 층위의 국어 자료에 해당한다. ② [A]와 [B]는 문장이 간결하다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③ [A]는 정보 전달을 위한 국어 자료의 예시이고, [B]는 글쓴이의 주장을 이해시키고 따르게 하려는 국어 자료의 예시이다. ④ [A]는 정보 전달을 위한 국어 자료이고, [B]는 설득적인 국어 자료이다. [B]가 주장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언어적 특성을 보인다.

07. 사진과 함께 문안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설명이지만,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전달하려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는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A]에는 동음이의어가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A]는 광고물에 해당하므로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②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는 매체 언어도 사용하고 있다. ③ 스마트폰을 줄로 묶어 자린고비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을 광고 사진으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

다. ④ ‘밥 한 번, 스마트폰 한 번’이라는 표현은, 구두식 자
린고비 이야기를 스마트폰 사용과 연상시켜 스마트폰 사용
절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짧은 문구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결하고 압축적인 광
고문의 언어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08. 기사문의 생명은 공정성과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추측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사문을 작
성해서는 안 된다.

오답 풀이 ① 사실의 왜곡이나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②
기사문은 함축적이고 장황한 수식보다 간결하고 명료한 표
현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 전문적인 내용의 기사문의 경우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⑤ 기사문의
내용은 기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재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피동 표현이 많이 쓰인다.

09. 광고문은 특성상 해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말은 피해야 하
고, 정확하게 광고할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명사형 종결 표
현을 쓰는 언어적 특성이 있다.

평가 기준	
두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5점
한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3점

10. (카)를 보면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은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그 구분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11.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일종의 사회 방언이다.

오답 풀이 ② 사회 방언이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
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③ 사회 방언의 언어
차이도 의사소통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
한다. ④ 부추, 정구지, 솔, 졸, 푸추 등은 지역 방언에 속한
다. 지역의 차이로 나타나는 방언은 지역 방언이다. ⑤ 경상
도와 전라도의 언어 사용의 차이는 지역 방언의 차이로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12.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아버지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와 달리 아들 세대는 줄임말이나 새로운 문화
를 반영하는 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조건을 다 만족하여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내용은 적절하거나 문장이 어색한 경우	3점

13. 이 글에서 국어로 번역되는 외국 자료의 양이 많아지고 있다
는 점과 특징은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분야의 자료가 많은
지는 찾을 수 없다.

14. ‘여행 중 빠른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은 위치, 장소, 방향,
출구 등 일부에 국한된다. <보기>는 지역을 방문한 것을 환

영한다는 메시지를 해당 언어 사용자에게 전달하려고 생산
한 국어 자료로, 정보의 나열만으로는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해외에서 생산한 국어 자료로, 해외를
방문한 한국인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이다. ② 우리말 어순에
따라 ‘센다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
이 알맞은 표현이 된다. ③, ④ 국어의 언어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번역한 표현이다.

15. [A]는 국어로 번역된 외국 자료이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는
외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문화에 알
맞게 번역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두 인물은 모두 상대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③ 국어로 번역된 외국 자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하며 우리의 언어문화에 알맞
게 번역하고 있다. ④, ⑤ 국어로 번역된 외국 자료는 원문의
이야기는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며 우리의 언어문화에 맞게
번역하고, 우리의 언어문화에는 없지만, 원문에 있는 새로운
용어 등은 표기법에만 맞춰 그대로 사용한다.

16. (타)에서 교통과 매체의 발달로 인해 세계와 교류가 쉬워져
다른 나라의 사람이 한국 문화를 접하거나 반대로 우리가 다
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기가 쉬워졌고, 그에 따라 해외에서
생산되는 국어 자료나 국어로 번역되는 외국 자료의 양도 많
아지고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교통과 매체의 발달’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요소를 모두 넣어 서술한 경우	5점
‘교통과 매체의 발달’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요소 중 하 나를 넣어 서술한 경우	3점

소단원 적중 문제

pp. 372~373

01. ④ 02. ③ 03. •친교 및 정서를 표현한다. •구어적인
표현이 많이 쓰인다. 04. ③ 05. ② 06. ①

01. (가)는 친교와 정서 표현을 위한 국어 자료, (나)는 정보 전달
자료, (다)는 설득적인 자료의 설명에 해당한다. (나)와 (다)
는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지
만 (가)는 생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구어적 표현
이 많이 쓰이는 국어 자료이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한 것은 (나)의 국어 자료가 더 강하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설득을 위한 국어 자료는 정보를 전달하
는 국어 자료와 마찬가지로, 문장이 간결하고 명료하다는 공
통적인 특징이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국어 자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쓴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직접 드러난 것
과 상상력으로 꾸며 낸 것이 있다.”고 하였다.

02. <예제 2>의 국어 자료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자료이다. 이러한 국어 자료를 생산할 때는 객관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때 인용하는 자료는 최근의 자료부터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를 전달하는 자료의 경우 최근의 자료가 아니고 오래된 자료인 경우 최근의 연구로 오류가 수정되거나 오류로 밝혀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예제 2>의 국어 자료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사례를 연구한 연구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국어 자료의 생산 목적인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해 내고 있다. ② <예제 2>의 국어 자료는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과장된 내용이나 꾸민 부분이 배제되는 것이 좋다. ④ <예제 2>와 같은 국어 자료에 사용되는 언어적 특성은 간결하고 명료하다. ⑤ <예제 2>와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국어 자료를 생산할 때는 무엇보다 정보가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03. (다)의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친교 및 정서 표현 국어 자료의 목적과 언어적 특성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5점
친교 및 정서 표현 국어 자료의 목적이나 언어적 특성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3점

04. 한국 사회에서는 “밥은 먹었어?”와 같은 표현이 단순한 인사말로 자주 쓰인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한국인의 문화적 관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5. ㉠은 세대에 따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회 방언 중 세대에 따른 변이에 해당한다. ㉠은 제주도 지역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역 방언에 속한다. ㉡은 남자들이 쓰는 말과 여자들이 쓰는 말이 개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사회 방언에 속한다. ㉢은 지역에 따라 동일한 사물에 대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지역 방언에 속한다. 따라서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 ㉡ 혹은 ㉢, ㉣이다. 이중의 선택지에 있는 것은 ㉠, ㉡의 짝인 ②번이다.

06. ① ㉢ ‘완소’는 ‘완전 소중함’이라는 구의 줄임말이다. ② ‘볼매’는 ‘볼수록 매력적인’을 줄여 이르는 말로 아버지 세대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세대를 가리지 않고 유행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의 댓글 놀이는 인터넷의 발달과 댓글 쓰기라는 문화가 등장하면서 나타난 놀이이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나타난 신조어이다. ③, ④ ㉣의 ‘무림없이’는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지’라는 의미이고, ㉤의 ‘허투루’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라는 의미로 둘 다 표준어이며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⑤ ㉣ 댓글 놀이는 ‘대(對)+ㅅ+글=댓글’에 ‘놀이’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이자 신조어이다.

(2)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의 성찰

핵심 다지기

pp. 375~383

01. ④ 02. ③ 03. 방언 차이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4. ④ 05. ② 06.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발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07. ③ 08. ① 09. ③ 10. 소리대로만 ‘낱, 낫, 낮, 날’을 모두 ‘낱’으로 표기하자면 의미가 쉽게 파악되지 않아, 그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형태 음소적 원리’이다. 11. ① 12. ② 13. ③ 14. ⑤ 15. ③ 16. ②

01. (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자신을 둘러싼 언어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국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국어 규범에 기초한 정확성을 설명한 부분으로 유추할 때 선호하는 규범을 우선하여 국어 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2. ‘총각무’는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 따라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이고, ‘옥수수’는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이다.

오답 풀이 ‘깡충깡충’, ‘발가승이’, ‘으레’, ‘안절부절못하다’가 표준어 규정에서 인정한 표준어이다.

03. (나)의 ‘방언 차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데, 표준어 규정은 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정하고 그 표준 발음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서술한 경우	5점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한 경우	3점

04. (라)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그리고 그 표준어의 바른 발음이 무엇인지를 ‘표준어 규정’에서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05. ㉠은 표음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기가 발음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 ‘지붕[지붕]’, ㉣ ‘마개[마개]’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은 표의 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음과 상관없이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방법이다. ㉣ ‘앞마당[앞마당→암마당]’, ㉤ ‘협의[혀비/혀비]’, ㉥ ‘해돋이[해도지]’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②가 적절한 답이다.

06. (라)의 첫 문단에서 우리말 발음의 표준을 정하여 놓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르게 발음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과정을 명료하게 서술한 경우	5점
다르게 발음하거나 의사소통의 혼란 때문이라고만 서술한 경우	3점

07. (바)에 따르면 형태 음소적 원리로 맞춤법에 적용하는 것에 더하여 끊어적기를 선택하면 더욱 효율적인 표기법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적기를 선택한다는 진술을 적절하지 않다.

08. '믿음'은 [미듬]으로 소리 난다. [미듬]을 '믿음'으로 적는 것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으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조건을 따른 것이다.

09. '예상했던'은 '예상하-+-었-+-ㄴ'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ㄴ'은 관형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예상했던'은 '대로'를 수식하는 관형어이며, '대'는 의존 명사, '-로'는 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상했던'이 대로인 문제는 '어려웠다'로 띄어 쓴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좋아할'은 '좋아하-+-ㄹ'로 분석되는 관형어이므로 '뿐'은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좋아할뿐이다.'는 '좋아할'이 관형어이다. '로' 띄어 써야 한다. ② '들릴만큼'은 '들-+-리-+-ㄴ'로 분석되는 관형어이다. 그러므로 '만큼'은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들릴'이 관형어이다. '로' 띄어 써야 한다. ④ '부모님'은 체언(명사)에 해당하므로 '만큼'은 조사이다. 따라서 '부모님만큼'으로 붙여 써야 한다. ⑤ '할수있다'고의 '할'은 '하-+-ㄹ'의 관형어이며, '수'는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이 관형어이다. '로' 띄어 써야 한다.

10.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음소적 원리)에 따르면 '날, 낫, 낫, 낫'은 실제 소리를 반영하여 모두 '날' 한 가지로 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각 형태소의 의미가 변별되지 않는다. 형태 음소적 원리에 따라 형태소의 원형을 고정하여 항상 동일한 형태로 표기하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진다.

평가 기준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게 '형태 음소적 원리'의 개념을 알맞게 서술한 경우	5점
'형태 음소적 원리'의 개념을 알맞게 서술하였으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보기>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경우	3점

11.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오답 풀이 ② 로마자 표기 시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외래어 표기 시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적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서 표기가 굳어진 외래어나 베트남어, 타이어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므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외래어 표기 시 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등 일곱 개 자음을 쓴다. 그러나 이 종성 끝소리 규칙에 사용되는 일곱 개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의 'ㅅ'과 끝소리 규칙의 'ㄷ'이 서로 다르다. ⑤ 외래어 표기 시 사용되는 현용 모음 10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이다. 그러나 'ㅑ'나 'ㅕ' 등은 기본 자모들을 두 개 또는 세 개씩 합쳐서 만든 글자이므로 표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표에 없다고 이들이 쓰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12. <보기>는 'ㅑ'의 경우 'ㅎ'과 'ㅑ'으로 모두 적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ㅑ'으로 고정하여 쓴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에서 설명한 제2항과 관련이 있다.

13. (아)에서 외래어를 적을 때 받침 글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일곱 개 자음만을 쓴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의 '케이크'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다.

14. (가)에서 '자음'의 경우 로마자로 'ㄱ-ㅏ-ㅑ'와 같은 대립을 정확히 표기할 수 없는데, 현 규정은 위의 원칙에 따라 'g, k-kk-k'로 적는 방법을 따르기로 하였다. '를' 통해 정확히 표기할 수는 없으나 'ㄱ'이 환경에 따라 'g'나 'k'로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15. '해돋이'의 'ㄷ'이 'ㅣ' 모음 앞에서 'ㅈ'으로 변한 것이 구개음화이다. 이 음운 변화 결과에 따라 '해돋이'는 'haedodi'가 아니라 'haedoji'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종교'가 [조교]로 발음되는 것은 축약 현상으로, 'ㄷ'의 예에 해당한다. ② '백마'는 'ㅁ' 앞의 'ㄱ'이 'ㅇ'으로 소리 나므로 'ㅣ'의 예에 해당한다. ④ '왕십리'는 [왕십리]로 발음된다. 'ㄴ' 앞의 'ㅂ'이 'ㅁ'으로 소리 나므로 'ㅣ'의 예에 해당한다. ⑤ '학여울'은 [학녀울]로 발음된다. 'ㄴ'이 덧나는 경우이므로, 'ㄷ'의 예에 해당한다.

16. ② '목호'와 ⑤ '각호산'이 체언에 속하면서 'ㄱ' 뒤에 'ㅎ'이 따르므로 ⑥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이때에는 'ㅎ'을 밝혀 적어야 하므로 ②의 표기가 옳고, ⑤는 'Gakhosan'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④는 용언으로, 'ㄷ'에 따라 바르게 표기하였다.

소단원 적중 문제

pp. 390~393

01. ⑤ 02. ④ 03. ④ 04. 표준어 규정에는 표준어와 그 표준어의 바른 발음이 일일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05. ② 06. ③ 07. ③ 08. ㄱ: 한 번, ㄴ: 고등학생으로서 09. ③ 10. ④ 11. ③ 12. 외래어 표기법의 원칙에 따른 표기가 관용 발음과 다른 경우에는 관용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13. ① 14. ③ 15. 우리말의 단모음은 10개인데 로마자의 모음은 5개뿐이어서 모음은 하나의 로마자로는 대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01. (다)에서 표준어 규정 총칙을 보면 '모든 우리말 단어를 대상으로' '두루 쓰는' 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를 보면 '어떤 단어를 더 선호하게 되어서 어휘 선택에 변화가 생긴 경우'를 표준어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일반적으로는 정해진 원칙에 따라 한 단어만을 표준어로 정하지만 더러는 둘 이상의 단어가 두루 쓰이고 있어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② (가)에서 '표준어 규정'은 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정하고 그 표준 발음을 규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③ 서울말이 표준어 사정의 기준이 된 것은 단지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이지 서울말이 다른 지역 말보다 우월하기 때문은 아니다. ④ (마)의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그리고 그 표준어의 바른 발음이 무엇인지를 '표준어 규정'에서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02. ㉠은 발음의 변화에 따라 표준어를 규정하는 경우이다. ④의 '노름'은 어간 '놀-'에 명사형 접미사 '-음'이 붙었지만, 원래의 의미와 멀어지면서 발음의 변화에 따라 표준어로 규정한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빋'은 [빈]으로 발음되지만, 단어의 의미를 밝혀 적기 위하여 '빋'으로 규정한 단어이다. ② '웃'은 [웁]으로 발음되지만, 단어의 의미를 밝혀 적기 위하여 '웃'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③ '꽃'은 [꼇]으로 발음되지만, 단어의 의미를 밝혀 적기 위하여 '꽃'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⑤ '나뭇잎'은 [나문닙]으로 발음되지만, '나무'와 '잎'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규정한 경우이다.

03. '닐리리'는 'ㄴ'이라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에 해당하므로 '닐리리'라고 적어야 한다.

04.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그리고 그 표준어의 바른 발음이 무엇인지를 '표준어 규정'에서 일일이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국어 생활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편찬된 '표준국어대사전'을 활용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표준어와 그 표준어의 바른 발음이 일일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술한 경우	5점
표준어의 바른 발음을 찾기 위해서 등으로 서술한 경우	3점

05. '많이'는 '-이'가 붙어 부사로 된 것으로 '제19항 3'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06. 한글 맞춤법 제47항을 보면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따라서 ③의 '뚫도하다'는 '뚫도'와 '하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②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⑤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07. 한글 맞춤법 제53항에 의하면 '-(으)게'와 같은 어미는 예사

소리로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네 말대로 할게.'가 알맞은 표기이다.

08. **오답 풀이** ㄱ의 '한 번'은 문맥에 따라 띄어쓰기도 하며 붙여쓰기도 한다.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나타내면 '한 번', '두 번', '세 번'과 같이 띄어 쓴다. 즉 '한번'을 '두 번', '세 번'으로 바꾸어 뜻이 통하면 '한 번'으로 띄어 쓴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어느 때나 기회' 혹은 '기회 있는 어떤 때에'라는 뜻이면 '한번'으로 붙여 쓴다. ㄴ은 문맥에 따라 '(으)로써' 또는 '(으)로서'가 쓰이는데,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의 뜻을 나타내면 '(으)로써'를 쓰고, 지위나 신분, 자격의 뜻을 나타내면 '(으)로서'를 쓴다.

평가 기준	
ㄱ과 ㄴ 모두 바르게 고친 경우	5점
ㄱ과 ㄴ 중 하나만 바르게 고친 경우	3점

09. 음절의 끝소리에 발음되는 종성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받침에 사용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제1항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제5항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제4항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⑤ 제2항의 예외적 설명으로, 영어의 [t]의 경우 '테이블(table), 샷(shot)'처럼 'ㅌ'과 'ㅅ'으로 표기할 수 있다.

10. 'boat'는 [bout]로 발음하므로 '보트'라고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ɔil]로 발음하므로 '오일'이라고 표기한다. ② [taim]으로 '타임'으로 표기한다. ③ [taus]로 발음하므로 '타워'로 표기한다. ⑤ [haus]로 발음하므로 '하우스'로 표기한다.

11. supermarket은 '슈퍼마켓'으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슈퍼마켓'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외래어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까페'라고 하지 않고 '카페'라고 표기한다. ② 'juice' [dʒu:s]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는 사용하지 않는 다'는 규칙에 따라 '주스'라고 표기한다. ④ 'comedy' [kɒmi-di]는 현지인의 발음을 고려하여 '코미디'라고 표기한다. 많은 사람이 '코메디'라고 표현하지만, 아직 관용어로 인정되지 않아 '코미디'라고 표기해야 한다. ⑤ 'accessory'는 복장에 따라서 그 조화를 꾀하는 장식을 가리키는 말로, 발음은 [æksəri]이다. 발음을 옮기면 '악세서리'가 아니라 '엑세서리'가 된다. '장식물', '노리게', '치렛감' 등으로 순화하기를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제안한다.

12. 외래어 표기법 제5항에 따라 'radio'는 이미 '라디오'로 굳어진 점을 존중하여 '라디오'로 표기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외래어 표기법 제5항의 원칙을 제대로 서술한 경우	5점
'라디오'로 굳어져서 표기된다는 등으로 서술한 경우	3점

13. ㉠으로 보아 'ㄱ, ㄷ, ㅂ'은 'g, d, b'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㉔ ‘옥저’의 경우 ‘ㄱ’을 ‘k’로 기록한 것으로 볼 때, ‘ㄱ’은 모음 앞에서는 ‘g’로, 자음 앞에서는 ‘k’로 적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㉔ ㉕과 ㉖에서 [쨌], [쨌]와 같이 된소리 발음이 되지만 로마자 표기는 ‘j’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설명이다. ㉓ ㉔의 ‘ㅌ’를 ‘y+eo’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ㅌ’는 ‘l’에 ‘ㅌ’가 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㉔ ㉔과 ㉕의 ‘ㄹ’은 모음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r’로 표기하고 있으나, ㉔ [ㄹ]의 경우는 ‘l’로 표기한 점으로 보아 적절한 설명이다. ㉓ ㉔~㉕은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14. ‘별내’는 ‘ㄴ’이 앞의 ‘ㄹ’과 동화 작용을 이루어 ‘ㄹ’로 바뀌어 [별래]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제3장 제1항 1에 따라 ‘Byeollae’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㉓ ‘같이’는 구개음화 현상에 의해 [가치]로 발음되므로 ‘gachi’로 표기해야 한다. ㉔ ‘알약’은 ‘ㄹ’이 덧나는 2항에 해당하므로 ‘allyak’으로 표기해야 한다. ㉓ ‘잡혀’는 ‘ㅂ’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가 나는 4에 해당하므로 ‘japyeo’로 표기해야 한다. ㉓ ‘목호’는 체언에서 ‘ㄱ’ 뒤에 ‘ㅎ’이 따르는 경우로, ‘ㅎ’을 밝혀 적는 4의 ‘다만’에 해당한다. 그리고 고유 명사는 대문자로 써야 하므로 ‘Mukho’로 표기해야 한다.

15. (다)에서 두 개의 로마자를 합쳐서 대응하는 때를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조건을 다 만족하여 서술한 경우	5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3점

중단원 실전 문제

pp. 394~400

01. ③ 02. ③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①
08. ③ 09. ④ 10. ② 11. ③ 12. ④ 13. ② 14. ①
15. ⑤ 16. ④ 17. 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정하고 그 표준 발음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8. ③ 19. ② 20. ⑤
21. ㉔ ‘시’, ㉕ 모음 22. (가) maji, (나) Seoraksan, (다) Marado, (라) Gyeongbokgung

01. 이 글에는 설득을 위한 국어 자료에 논리성을 더하려는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오답 풀이 ㉓ (가)의 첫 문단에서 생산 목적에 따른 국어 자료의 분류가 나와 있다. ㉔ (가)의 마지막 문장 “친교 및 정서 표현이 목적인 국어 자료는 구어적인 표현이 많이 쓰여 읽는 이가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는 언어적 특성이 있다.”고 나와 있다. ㉔, ㉕ 정보를 전달하는 국어 자료와 설득을 위한 국어 자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와 (다)에서 언급되고 있다.

02. (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국어 자료이다. (나)에 따르면 정보를 전달하는 국어 자료는 객관성이 생명이므로 과장된 내용이나 꾸민 부분은 배제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특성이 있다. 구어적인 표현은 (가)와 같은 친교 및 정서 표현이 목적인 국어 자료의 언어적 특성이다.

오답 풀이 ㉓ <예제>는 ‘동메달이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라는 소재목으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㉔ <예제>는 주제를 알아보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의 국어 자료 생산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㉔ <예제>는 정보 전달의 글이므로 과장된 내용이나 꾸민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 ㉕ <예제>에서는 코넬 대학교 연구팀이라는 대학 연구팀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도 정보를 전달하는 국어 자료 생산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03. (다)의 국어 자료 <예제 3>은 설득력이 있는 국어 자료이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국어 자료의 특성은 설득의 기능을 하는 논설문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보기>에 해당하는 국어 자료는 <예제 3>과 같은 국어 자료이다.

04. 이 글에는 국어 자료의 구체적인 갈래 층위의 분류가 소개되고 있다. 광고문, 기사문, 보도문, 공고문을 예로 들어 소개하고 있는데 각각의 국어 자료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갈래 층위를 왜 이해해야 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㉓ (가)에서 소개되고 있다. ㉔ (다)에 설명하고 있다. ㉓ (나)에서 설명하고 있다. ㉔ (가)의 첫 문장에 나와 있다.

05.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표현이 간결하고 압축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은 광고문과 같은 국어 자료에 해당한다. 공고문은 전달하고자 하는 조건적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며, 공고되는 내용을 읽는 독자는 정보를 빨리 전달받는 것보다는 정확히 전달받기를 원한다.

오답 풀이 ㉓ <보기>의 공고문은 모집 대상, 신청 방법, 선발 방법 등의 조건적 정보를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㉔ 조건적 정보를 전달할 때, 명사형 종결을 사용하고 있다. ㉔ <보기>의 자료는 공고문이다. 공고문의 정의는 (다)에 ‘기업이나 단체에서 공고할 정보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만든 국어 자료’라고 나와 있다. ㉕ 공고문은 전달하려는 내용이 조건적 정보이므로 해석의 혼동을 유발하는 표현은 공고문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06. (나)의 <예제 2>는 기사문이다. 기사문, 보도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㉔과 ㉕이다.

오답 풀이 ㉔ 설득을 목적으로 생산된 국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기사문이나 보도문에서는 ‘기자 개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추측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㉕ 광고

문과 같은 국어 자료의 특성이다.

07. 성별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는 과거와 비교하면 현재는 그 구분이 매우 약화되고 있다.

08. <보기>의 상황에서 할머니는 의사소통의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방언의 사용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할머니의 방언 사용은 친밀감의 표현일 수 있으나 그것으로 더 우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④ 어머니의 반응은 할머니의 요구에 대해 긍정하고 있는 반응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어머니가 표준어의 우월성을 인식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의 할머니가 공식적인 언어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비공식적인 언어 상황에서는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할머니의 언어 습관이거나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

09. (나)의 <예제 2>는 세대별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에서 온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나타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④번의 경우이다. 동호는 '일전', '낙상' 등과 같이 자신의 세대는 쓰지 않는 어휘를 쓰는 할아버지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지역에 따라 같은 사물을 지칭하는 어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방언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② 사회 방언 중 직업에 따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나타난 사례이다. ③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나타난 경우인데 의사가 사용하는 어휘가 사회 방언으로 작용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⑤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를 낳은 것이다. 남성은 '하십시오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해 여성은 '해요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10. 공식적인 자리 혹은 격식을 갖춘 자리에는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소통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풀이 ① 화자와 청자의 출신 지역이 같다면 지역 방언의 사용은 친근감 형성에 기여한다. ③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또래 집단에서는 지역 방언의 사용이 거리를 가깝게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⑤ 표준어와 방언의 선택은 공식적이고 격식을 강조하는 자리에서는 표준어가 선택되고, 친밀한 관계이거나 또래 집단, 같은 지역 출신끼리 만나는 자리에서는 방언이 선택된다. 선택의 기준이 공식적이고 격식을 갖추었는가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이나 등에 의해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1. (바)에 따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한글로 적는 기준을 정하여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12. 표준어와 방언의 차이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표준어 사정의 총칙에 제시된 원칙을 언급하면서 표준어의 개념을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사)에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바)에서 언급하고 있다. ⑤ (가)의 '통일된 표기법 없이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는다면, 문자 생활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며, (나)에서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어 규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13. (가)를 보면 의사소통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어문 규범을 만들었다고 하였고, (나)에서는 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정하기 위해 표준어 규정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표준어를 제정한 궁극적인 이유는 의사소통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14. '윗몸'은 '몸에서, 허리 위의 부분'으로 명사 '위'에 맞추어 '윗-'을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적절한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② '여러 채가 있는 집에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을 가리키며, 거센소리 '채' 앞에 나타나는 단어는 '윗채'가 아니라 '위채'가 적절한 표기이다. ③ '어른'은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이므로 '윗-'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윗어른'이 아니라 '웃어른'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 '윗몸'에 입는 옷'을 가리키는 단어는 '윗도리'이다. 몸의 아랫부분에 입는 옷을 '아랫도리'라고 한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단어이므로 '윗-'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운동방 바닥에서 위쪽 부분'을 가리키는 말은 '윗목'이다. '아래쪽 부분'을 가리키는 말을 '아랫목'이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아래, 위'의 대립이 있는 단어이므로 '윗-'을 사용할 수 없다.

15. '-내기'는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시골내기'가 표준어이다.

오답 풀이 ①~④의 밑줄 친 단어는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난 형태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16. '광주리-광우리'는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로, '광주리'는 표준어이나 '광우리'는 비표준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③은 '제26항'에 해당하며, ⑤는 '제19항'에 해당하는 복수 표준어이다.

17. 공식적인 국어 생활에서 사용되는 표준어를 사정하고 그 표준 발음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소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기준	
'의사소통'과 '혼란'을 언급한 경우	5점
'의사소통'과 '혼란' 중 하나만 맞힌 경우	3점
맞춤법에 어긋난 경우 등	-1점

18. 외래어 표기법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로마자 표기법 제3항의 경우 ‘ㄷ’ 소리가 나더라도 ‘ㅅ’으로 적게 되어 있으며, 제4항의 경우 파열음의 발음이 된소리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표기와 발음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우리 나름의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발음과 일치하는 표기만을 인정’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로마자 표기법은 한글 철자를 그대로 로마자로 적는 것이 아니라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한글 표기에 맞게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음에 맞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④ 로마자 표기법은 우리말로 표기된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규정으로, 외국인에게 우리말을 바르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의 발음의 편의성을 위한 규정이지, 우리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개’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dog’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gae’로 표기한다. 그러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⑤ 외래어 ‘camera’를 ‘카메라’로 표기하는 것은 표기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관용을 존중한 경우이지, 사람들의 발음을 존중한 경우가 아니다.

19.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는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3항]에 따라 ‘robot’은 대표음 ‘ㅅ’이 받침으로 쓰인 ‘로봇’이 바른 표기이다.

오답 풀이 ① ‘파열음의 발음이 된소리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4항]에 따라 ‘gang’은 ‘깡’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③ ‘cognac’의 실제 발음은 [kóunjæk]으로 ‘k’는 ‘ㅋ’으로 써야 한다. 그러므로 ‘코낙’은 적절한 표기이다. ④ ‘frypan’의 경우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2항]의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에 따라 ‘f’는 ‘ㅎ’이 아닌 ‘ㅍ’으로 표기한다. 그러므로 ‘후라이팬’이 아니라 ‘프라이팬’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chocolate’은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 [제3항]의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에 따라 ‘초콜릿’으로 표기해야 한다.

20. ‘홍길동’을 발음하면 된소리되기가 되어 [홍길똥]으로 발음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ng Gildong’ 또는 ‘Hong Gil-dong’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음운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Hong Gildog’ 또는 ‘Hong Gil-dong’으로 표기함으로써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붙임표(-)’를 쓴 ‘Hong Gil-dong’과 같은 표기도 허용한다’는 설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Hong Gildong’ 또는 ‘Hong Gil-dong’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성과 이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의 설명

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21. ‘flash’를 보면 [ʃ]가 단어 끝에 오므로 ‘플래시’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leadership’에서 [ʃ]가 모음 앞에 오므로 ‘리더십’이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에는 ‘모음’이 제시되어야 한다.

22. **오답 풀이** (가) ‘말이’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마지]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maji’로 표기해야 한다. (나)는 ‘ㄹ’이 모음 앞에 위치하므로 ‘r’로 표기해야 하며, 고유 명사이므로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Seoraksan’이라고 표기한다. (다)는 ‘ㄹ’이 모음 ‘ㅏ’ 앞에 오며, 고유 명사이므로 대문자로 시작한다. 그러므로 ‘Marado’라고 표기한다. (라) ‘경복궁’은 문화재이며, 인공 건축물의 이름이므로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고 붙여 쓴다. 그러므로 ‘Gyeongbokgung’이라고 표기한

평가 기준	
ㄱ~ㄹ을 모두 맞힌 경우	5점
ㄱ~ㄹ 중 4개 맞힌 경우	4점
ㄱ~ㄹ 중 3개 맞힌 경우	3점
ㄱ~ㄹ 중 2개 맞힌 경우	2점